연구보고 2015-34

한국아동패널 2008-2014 자료 심층 분석 연구

이정림 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2008년부터 2014년에 걸쳐 1~7차년도까지 축적되었고, 금년에 8차년도 자료가 수집 중이다. 이러한 축적된 종단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한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인 탐색 및 제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 모색 등 보다 심층적인 연구 주제 발굴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연구팀에서는 연구 주제 발굴 및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관련 학계의 연구를 활성화 하고 주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한 이슈들을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4년에 걸쳐 수집된 자료의 횡단 및 종단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영아 시기부터 누적된 사교육 경험이 이후 문제행동 발생과의 관계, 문제행동과 유아의 학습준비도와의 관계, 문화인프라 이용 빈도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어머니가 우울 위험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예측변인 탐색, 한국과 유럽 영유아 부모의 양육가치관 비교 분석, 부모의 흡연 및 음주, 모유수유,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알레르기질환 발생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심층 분석 연구를 위해 수고하신 아동패널연구팀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본 연구 내용과 분석 결과 등이 관련 학계 연구의 활성화와 육아정책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 ····· 1

Ⅰ. 서론 ·····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2. 분석 자료 및 방법 ····· 12
3.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 12

Ⅱ. 아동의 성장과 발달 ····· 15
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최지은·이민경) ····· 17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문화인프라 이용 빈도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강은진·이예진·이정림) ····· 49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송신영·이예진) ····· 67
4.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문제행동을 중심으로(김진미) ··· 91

Ⅲ. 아동의 양육환경 ····· 109
1. 자녀 성장에 따른 어머니 우울 위험 집단의 예측 변인 탐색(김길숙·이예진) ····· 111
2. 한국 영유아 부모의 양육가치관 변화 추이: European Values Study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송요현·김소아·김신경) ····· 145

Ⅳ. 아동의 건강 ····· 173
1. 출산전후 부모의 사회경제지표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김영호·권지원·홍수종) ····· 175

Abstract ····· 197

표 차례

〈표 Ⅱ-1-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26
〈표 Ⅱ-1- 2〉 한국아동패널의 사교육 이용 관련 문항 ····· 28
〈표 Ⅱ-1- 3〉 영유아 사교육 이용 현황 ····· 30
〈표 Ⅱ-1- 4〉 영역별 사교육 참여자(중복응답) ····· 32
〈표 Ⅱ-1- 5〉 만5세 유아의 문제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 32
〈표 Ⅱ-1- 6〉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33
〈표 Ⅱ-1- 7〉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34
〈표 Ⅱ-1- 8〉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35
〈표 Ⅱ-1- 9〉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36
〈표 Ⅱ-1-10〉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 집단 ····· 37
〈표 Ⅱ-1-11〉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 집단 간 만5세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 ····· 37
〈표 Ⅱ-1-12〉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 상하 집단 ····· 39
〈표 Ⅱ-1-13〉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 상하 집단 간 만5세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 ····· 39
〈표 Ⅱ-2- 1〉 문화 인프라별 이용 빈도 ····· 55
〈표 Ⅱ-2- 2〉 측정모형 분석 결과 ····· 58
〈표 Ⅱ-2- 3〉 모형의 적합도 지수 ····· 58
〈표 Ⅱ-2- 4〉 최종모형 분석 결과 ····· 59
〈표 Ⅱ-3- 1〉 경쟁 모형 설명 ····· 72
〈표 Ⅱ-3- 2〉 측정 변인간 상관 및 기술통계 ····· 74
〈표 Ⅱ-3- 3〉 내재화 문제행동의 측정 모형 적합도 지수 ····· 75
〈표 Ⅱ-3- 4〉 측정모형 분석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 ····· 76
〈표 Ⅱ-3- 5〉 외현화 문제행동의 측정 모형 적합도 지수 ····· 79
〈표 Ⅱ-3- 6〉 측정모형 분석 결과: 외현화 문제행동 ····· 80

〈표 Ⅱ-3- 7〉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 ····· 82
〈표 Ⅱ-3- 8〉 ACLM 다집단 분석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 ····· 82
〈표 Ⅱ-3- 9〉 ACLM 다집단 분석 결과: 외현화 문제행동 ····· 83
〈표 Ⅱ-4-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 96
〈표 Ⅱ-4- 2〉 변인 간의 상관관계 ····· 98
〈표 Ⅱ-4- 3〉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 99
〈표 Ⅱ-4- 4〉 모형 적합도 ····· 100
〈표 Ⅱ-4- 5〉 모형의 모수추정치 ····· 100
〈표 Ⅱ-4- 6〉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 101
〈표 Ⅱ-4- 7〉 모형 적합도 ····· 102
〈표 Ⅱ-4- 8〉 모형의 모수추정치 ····· 102
〈표 Ⅱ-4- 9〉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 103
〈표 Ⅲ-1- 1〉 주요 연구 도구 및 신뢰도 ····· 116
〈표 Ⅲ-1- 2〉 1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 118
〈표 Ⅲ-1- 3〉 1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 119
〈표 Ⅲ-1- 4〉 2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 121
〈표 Ⅲ-1- 5〉 2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 122
〈표 Ⅲ-1- 6〉 3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 124
〈표 Ⅲ-1- 7〉 3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 125
〈표 Ⅲ-1- 8〉 4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 127
〈표 Ⅲ-1- 9〉 4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 128
〈표 Ⅲ-1-10〉 5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 131
〈표 Ⅲ-1-11〉 5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 132
〈표 Ⅲ-1-12〉 6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 133
〈표 Ⅲ-1-13〉 6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 133
〈표 Ⅲ-1-14〉 7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 136
〈표 Ⅲ-1-15〉 7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 137
〈표 Ⅲ-2- 1〉 국가별 연구대상의 연령 ····· 151
〈표 Ⅲ-2- 2〉 국가별 연구대상의 성별 ····· 151
〈표 Ⅲ-2- 3〉 국가별 연구대상의 결혼상태 ····· 152
〈표 Ⅲ-2- 4〉 양육가치관 사용 문항 ····· 153

〈표 Ⅲ-2- 5〉 차수별 한국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 ····· 155
〈표 Ⅲ-2- 6〉 한국 부모가 응답한 차수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 159
〈표 Ⅲ-2- 7〉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의 유럽 부모 응답 비교 ····· 160
〈표 Ⅲ-2- 8〉 유럽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 162
〈표 Ⅲ-2- 9〉 국가별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 ····· 164
〈표 Ⅲ-2-10〉 국가별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 순위 ····· 164
〈표 Ⅲ-2-11〉 국가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 165
〈표 Ⅳ-1- 1〉 천식의 유병률 ····· 178
〈표 Ⅳ-1- 2〉 알레르기비염의 유병률 ····· 179
〈표 Ⅳ-1- 3〉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 ····· 179
〈표 Ⅳ-1- 4〉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2008, 2013, 2014)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 180
〈표 Ⅳ-1- 5〉 부모 직업 (2008)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 181
〈표 Ⅳ-1- 6〉 부모 학력 (2008)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 182
〈표 Ⅳ-1- 7〉 주택 형태 (2008)와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 182
〈표 Ⅳ-1- 8〉 소득 및 지출 (2008, 2011)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 183
〈표 Ⅳ-1- 9〉 모 직장/학업, 양육 스트레스 및 수유형태 (2008, 2014)와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 184
〈표 Ⅳ-1-10〉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2008, 2013, 2014)과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 185
〈표 Ⅳ-1-11〉 부모 직업 (2008)과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 186
〈표 Ⅳ-1-12〉 부모 학력 (2008)과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 187
〈표 Ⅳ-1-13〉 주택 형태 (2008)와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 187
〈표 Ⅳ-1-14〉 소득 및 지출 (2008, 2011)과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 188
〈표 Ⅳ-1-15〉 모 직장/학업, 양육 스트레스 및 수유형태 (2009, 2014)와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 189
〈표 Ⅳ-1-16〉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2008, 2013, 2014)과 아동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 ····· 190
〈표 Ⅳ-1-17〉 부모 학력 (2008)과 아동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 ····· 191
〈표 Ⅳ-1-18〉 부모 학력 (2008)과 아동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 ····· 192
〈표 Ⅳ-1-19〉 주택 형태 (2008)와 아동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 ····· 192

〈표 Ⅳ-1-20〉 소득 및 지출 (2008, 2011)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 193
〈표 Ⅳ-1-21〉 모 직장/학업, 양육 스트레스 및 수유형태 (2008, 2014)와 아동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 ····· 194

그림 차례

[그림 Ⅱ-1-1] 연령별 사교육 이용률(%) ····· 31
[그림 Ⅱ-1-2] 연령별 1인당 이용 사교육 프로그램 수(개) ····· 31
[그림 Ⅱ-1-3] 연령별 월 사교육 이용 시간(시간) ····· 31
[그림 Ⅱ-1-4] 연령별 월 사교육 지출액(만원) ····· 31
[그림 Ⅱ-1-5]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 집단에 따른 문제행동 총점 ····· 38
[그림 Ⅱ-1-6]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 집단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 ···· 38
[그림 Ⅱ-1-7]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 상하집단에 따른 문제행동 총점 ····· 40
[그림 Ⅱ-1-8]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 상하집단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 ····· 40
[그림 Ⅱ-2-1] 연구모형 ····· 54
[그림 Ⅱ-2-2] 측정 모형 분석 결과 ····· 57
[그림 Ⅱ-2-3] 최종모형 분석 결과 ····· 59
[그림 Ⅱ-3-1] 내재화 문제행동 연구모형(기저모형) ····· 75
[그림 Ⅱ-3-2] 내재화 문제행동 최종모형 분석 결과 ····· 77
[그림 Ⅱ-3-3] 외현화 문제행동 연구모형(기저모형) ····· 78
[그림 Ⅱ-3-4] 외현화 문제행동 최종모형 분석 결과 ····· 81
[그림 Ⅱ-4-1] 연구모형 ····· 97
[그림 Ⅲ-1-1] 1차년도 어머니 우울 집단 결정 모형 ····· 120
[그림 Ⅲ-1-2] 2차년도 어머니 우울 집단 결정 모형 ····· 123
[그림 Ⅲ-1-3] 3차년도 어머니 우울 집단 결정 모형 ····· 126
[그림 Ⅲ-1-4] 4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 예측 모형 ····· 129
[그림 Ⅲ-1-5] 5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 예측 모형 ····· 130
[그림 Ⅲ-1-6] 6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 예측 모형 ····· 134
[그림 Ⅲ-1-7] 7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 예측 모형 ····· 135
[그림 Ⅲ-2-1]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의 한국 부모 응답 비교 - 1차년도 ··· 155
[그림 Ⅲ-2-2]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의 한국 부모 응답 비교 - 2차년도 ··· 156
[그림 Ⅲ-2-3]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의 한국 부모 응답 비교 - 3차년도 ··· 156

[그림 Ⅲ-2-4]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의 한국 부모 응답 비교 - 5차년도 … 157
[그림 Ⅲ-2-5] 아버지가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 변화 추이 …… 157
[그림 Ⅲ-2-6] 어머니가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 변화 추이 …… 158
[그림 Ⅲ-2-7] 부모의 책임에 대한 부모 응답 비교 …… 159

요 약

1. 연구의 목적

□ 한국아동패널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관련 학계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한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인 탐색 및 제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 모색을 위한 연구 주제 발굴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함.

○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한 이슈들을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의 건강이라는 3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구성되었음.

2. 아동의 성장과 발달

가.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아동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 최근 우리나라 사교육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대상 연령이 취학 전 유아로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전문가들이 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고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만 0~5세 영유아기 전반 동안의 사교육 경험이 만5세 시점의 문제행동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와 누적된 이용 시간이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1~6차년도(2008~2013년) 조사의 사교육 관련 질문세트(CAPI)와 6차년도의 문제행동 질문세트(CBCL 1.5-5)에 모두

참여한 1,651케이스임.

□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일원변량분석 등을 이용함.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사교육 이용자 수는 만0~4세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만5세에 감소하였으며, 월 이용 시간은 만0~4세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만5세에 급증함.

○ 둘째, 전반적인 문제행동 및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낮은 편이었고,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불안/우울이, 외현화 문제행동 중에는 공격행동을 가장 많이 보임.

○ 셋째,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많을수록 만 5세 때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의 총점 및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음.

○ 넷째, 영아기보다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만5세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다섯째,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를 기준으로 네 집단을 구분한 결과, 영아기와 유아기를 통틀어 전혀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한 시기라도 사교육을 이용한 세 집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 총점과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임.

○ 여섯째, 사교육 이용자 중에서 영아기와 유아기의 총 사교육 이용 시간을 각각 상하로 나누어 네 집단을 구분한 결과, 영아기와 유아기 모두 사교육을 적은 시간 경험한 경우가 한 시기라도 사교육을 오랜 시간 경험한 세 집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 총점과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임.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드러났으므로 무분별하게 팽창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규제가 필요함.

○ 둘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셋째, 영유아 대상 사교육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의 누적적인 영향력을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사교육프로그램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점, 많은 영유아들이 참여하는 교육·보육기관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의 영향력을 별도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추후 발전된 연구를 기대함.

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문화인프라 이용빈도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온정적, 통제적), 지역사회의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밝혀보고자 함.

□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되었음.

□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증가는 온정적 양육행동의 감소와 관련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통제적 행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할수록 자녀와 함께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문화 인프라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의 사회적 기술은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 인프라 이용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는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더불어서 아동의 문화 인프라 이용 경험 빈도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 유아기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아동패널 5~7차년도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총 1,77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를 살펴봄. 또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함.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정적 자기회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 교차지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 셋째,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부적 지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 넷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지연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 다섯째,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은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함. 다만 유아의 문제행동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적이며, 유아의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가 반대 방향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자의 대처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 유아의 문제행동은 이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온정적 양육행동은 이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행동을 한다고 인식한다면 대처 전략으로 작용하여 부모됨에 대한 요구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인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함.

라.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문제행동을 중심으로

□ 취학 전 유아의 학습준비도가 이후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이를 위해 가구의 사회경제적 요인, 모의 양육행동과 함께 문제행동의 특성을 내재화와 외현화로 나누어, 문제행동과 인지발달을 매개로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

□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 기관용 설문지에 응답한 교사는 총 1,203명으로, 이들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대해 평정한 자료를 사용함.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각 부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가정의 SES가 부적인 영향을 미침.

○ 둘째,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인지발달과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모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은 문제행동을 매개로 인지발달과 학습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넷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인지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습준비도에도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인지발달 및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중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초기 아동의 인지 등의 발달이 이후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교육경험의 계층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유아 시기 소외 계층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3. 아동의 양육환경

가. 자녀 성장에 따른 어머니 우울 위험 집단의 예측 변인 탐색

□ 본 연구는 자녀 성장에 따른 어머니의 우울 위험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규칙을 도출함으로써 유자녀 어머니의 우울 위험집단에 이르는 경로 모형을 제시하려 함.

□ 데이터마이닝 중 의사결정나무분석은 각 자료 내에 존재하는 관계와 규칙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모형화하는 분석기법으로, 분석대상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는 규칙을 나무구조로 만들어 이를 새로운 대상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특성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으로 이해하기 쉬운 규칙을 생성시켜 주고 예측이 쉬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므로 본 분석에 적용하려 함.

□ 연구자료는 한국아동패널 1~7차년도 조사의 각 차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자기기입식 응답한 우울 척도를 기준으로 정상 집단과 위험 집단으로 분리하여 종속변인으로 활용함. 투입된 독립변수는 어머니 개인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최종학력, 주당 근무시간을, 배우자 변인으로 결혼만족도, 부부갈등을, 자녀 및 양육 관련 변인으로 자녀의 기질(활동성, 부정적 정서성, 사회성), 양육행동(사회적, 온정적, 통제적), 양육스트레스, 남편의 양육참여를, 가구 변인으로 가구 소득을 사용함.

□ 본 연구에서 밝힌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자녀 출산 후 4개월 시점에는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갈등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 ○ 자녀가 만 1세가 된 시점에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 ○ 자녀가 만 2세가 된 시점에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사회성 기질, 부부갈등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 자녀가 만 3세가 된 시점에는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의 사회성 기질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 자녀가 만 4세가 된 시점에는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남편의 양육참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 자녀가 만 5세가 된 시점에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 자녀가 만 6세가 된 시점에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 연구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개인 내적 특성, 양육관련 요인, 부부관계, 자녀의 기질 등이 서로 조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자녀가 만 5세가 되는 시점까지는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이, 학령기 직전 시기인 만 6세 시점에는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이는 자녀의 성장 주기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 중재를 위해 고려해야 할 방향성이 다름을 암시함.

나. 한국 영유아 부모의 양육가치관 변화 추이: European Values Study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과 유럽가치관 조사(European Values Study)의 공통 문항인 자녀에 대한 양육가치관 문항 분석을 통해, 한국과 유럽 부모의 양육가치관을 비교하고자 함.

○ 양육가치관 문항은 두 가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자녀가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고 기대하는 자질 및 특성'임.

○ 한국 부모의 양육가치관 변화양상은 한국아동패널의 1, 2, 3, 5차의 자료를 통해서 탐색하고, 한국과 유럽 부모의 양육가치관 비교는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 자료와 유럽가치관조사 4차년도(2008년) 자료를 토대로, 한국과 유럽 6개국(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부모의 양육가치관을 비교함.

□ 본 연구에서 밝힌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한국과 유럽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모책임'에 대한 응답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응답과 '자녀를 위해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반반정도로 나타났으나, 비교국인 유럽의 부모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응답비율이 70%이상으로 훨씬 많았음.

○ 한국과 유럽 부모의 자녀가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고 기대하는 자질 및 특성에 대한 응답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된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과 영국, 핀란드는 '예의바른 생활습관', 독일과 이탈리아는 '책임감', 스웨덴과 프랑스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의 항목이었음. 각 국가별로 가장 많은 비율로 선택된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의 자질과 특성은 각 국가마다 선택한 5순위 안에 포함되는 공통된 자질과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 및 특성을 통해서 살펴본 바, 한국과 비교국가인 유럽의 6개국의 양육가치관에는 공통적이고 보편적 속성이 공존하였음. 그러나 각 사회의 맥락마다, 문화마다, 역사마다 반영되는 현상적인 내용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응답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부모의 응답에 다른 양상을 보였음. 이는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양육가치관이 있으나,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현실적 양육가치관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 양육가치관의 응답에서 나타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돌봄'의 문제를 부모만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결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대두됨. 더불어 '돌봄의 사회화'와 '부모됨'에 대한 국가적으로 공동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4. 아동의 건강

가. 출산전후 부모의 사회경제지표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알레르기질환의 증가 원인으로 출생 전후 유전적, 환경적 요인 노출이 중요시되며, 그 중 서구화된 생활문화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지표 상승이 알레르기질환과 연관됨이 밝혀짐.

□ 국내에서 사회경제지표와 알레르기질환의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음. 이에 2014년도 한국아동패널 만 6세 아동 조사 자료를 통해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및 출산 전후 사회경제지표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분석을 위해 산전 산후 설문조사와 2014년 7차년도(만 6세)에 시행한 알레르기질환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을 조사하고, 출생 당시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등 사회경제지표와 자녀 알레르기질환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함.

□ 본 연구에서 밝힌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천식 진단 유병률은 7.78%, 비염 진단 유병률 50.03%, 아토피피부염 진단 유병률 30.49%, 현증 천식 유병률 2.45%, 현증 알레르기비염 유병률 36.49%, 현증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15.27%로 나타남.

○ 아동의 출생 연도인 2008년 당시의 부모직업, 주택형태, 소득, 지출 등은 2014년 알레르기질환 발생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음.

○ 출생 당시의 환경 요인 중 부모의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은 학동전기 알레르기질환의 발생과 연관성을 보임.

○ 출생 후 분유수유는 모유수유에 비하여 천식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임신 중 산모의 스트레스는 알레르기비염과 아토피피부염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함.

○ 알레르기질환 발생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엄마의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흡연이나 음주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함.

○ 임신 중 산모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사회보건학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이 적극 필요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인 탐색 및 제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환경 제공은 연령에 따라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달리 제공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모색도 필요하다.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횡단 자료 및 축적된 종단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상에서 제기하였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2008년부터 2014년에 걸쳐 1~7차년도까지 축적되었고, 금년에 8차년도 자료가 수집 중이다. 이상과 같이 누적된 자료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횡단자료에서 밝힐 수 없었던 연구 내용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변인들에 관한 인과 관계 분석 등과 같은 종단적 자료 분석의 활용 예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계 전문가들에게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기법 및 연구 주제를 제안함으로써 관련 학계 전문가 및 대학원생들의 연구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한 이슈들, 조기 외국어 교육 누적 경험의 부정적 영향,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유 수유 및 임신 중 산모 스트레스 등과 같은 변인들을 밝힘으로써 향후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종단 자료 분석의 장점을 부각시켜 연령에 맞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지원정책 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조기 경험이 전 생애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경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종단 자료의 생산과 축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무시키고자 한다. 넷째, 일반인 공개를 앞두고 있는 6차년도 자료와 내년에 공개 예정인 7차년도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보다 신뢰로운 자료 생산 및 구축을 기하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보고서에 수록된 각 연구는 2008~2014년도에 걸친 7년간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수집된 1~5차년도 데이터는 이미 일반인에게 공개되었고, 2013년 6차년도 자료는 2015년 12월에 일반인 공개 예정에 있으며 본 보고서 연구 참여자는 1~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4년 7차년도 자료는 공개 이전의 자료로서 패널 연구진에 한정되어 사용되었으며, 패널 자료 공개 전의 자료 검토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대부분의 논문은 1~6차년도 까지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한 편의 논문만이 가장 최근 자료인 7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 논문들에서 활용된 통계 분석 기법은 다양하였다. 먼저,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술통계, 백분율,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일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다음으로 PASW 12.0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및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분석이 실시되었다.

3.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의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연구팀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와의 MOU 체결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과 공동으로 건강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아산병원 소아천식아토피센터 연구진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2015년 심층분석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주된 종속변인을 중심으로 종속변인의 행위 주체가 아동인지, 부모를 포함한 양육환경인지를 구분하여 2개의 주제를 정하였고,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따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에서 주제별에 따른 연구 논문 구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첫째,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주제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로 알려진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들 변인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하

지 못하였던 그 동안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정확한 지침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유아 사교육 경험이 이후의 부정적인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단자료 분석을 통하여 밝힘으로써 영아 시기부터 누적된 사교육 경험이 이후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 행동 발달에 기여함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종단자료가 활용되었다.

한편,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힘으로써 조기에 문제행동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가 포함되었다. 또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문화인프라 이용 빈도와 같은 변인을 검토해 봄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횡단 자료를 활용하였던 두 개의 연구는 가장 최근 자료인 7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둘째, 아동의 양육환경에 관한 주제에서는 2개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먼저, 아동의 양육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신 건강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에서 7차년도에 걸친 종단 자료를 통하여 어머니가 우울 위험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예측변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측변인들을 통하여 자녀의 성장주기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 중재를 위해 고려해야 할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영유아 부모의 양육가치관의 변화 추이를 유럽 부모들의 양육 가치관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부모들의 양육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현재 한국 부모들의 양육 부담 문화에 관하여 담론을 형성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셋째, 아동의 건강 관련 변인으로 알레르기질환 발생과 관련된 변인들을 모색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동의 출생 당시 환경 중 부모의 흡연 및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이 알레르기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모유수유의 경우 천식 발생 위험을 줄이고, 임신 중 산모의 스트레스도 알레르기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을 밝혔다.

Ⅱ. 아동의 성장과 발달

1.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아동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

최지은·이민경 (육아정책연구소)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문화인프라 이용빈도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강은진·이예진·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송신영·이예진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4.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문제행동을 중심으로

김진미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아동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

최지은·이민경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1. 서론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의 유행은 최근에 불거진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자녀 1명을 대학 졸업 시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3억여 원에 달하는데, 월평균 양육비의 33.2%를 사교육비가 차지했다(김승권 외, 2012). 또한, 13~19세 청소년의 8%가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고, 그 이유로는 성적, 진학문제가 가장 많은 39.3%를 차지했다(통계청, 2012). 이렇게 학업 압박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피폐해지고, 지나친 사교육비가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출산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되자 정부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시간이 흐르면서 수그러들기보다는 시대에 맞추어 변모하고 더욱 확산되어 대상 연령이 취학 전 유아로까지 내려오면서 영유아기의 조기사교육이 성행하게 되었다.

더욱이 2013년부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지원되는 사실상 무상보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영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서문희·양미선, 2013). 실제로 2012년부터 매해 실시한 전국 단위의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영유아 가구와 아동의 비율이 각각 2012년 76.4%와 63.7%, 2013년 82.5%와 68.0%, 2014년 88.7%와 74.3%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 2014).

이와 더불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과목의 다양화와 시간의

양적 증가가 함께 이루어짐(민선옥·배지희, 2014; 이명순, 2007)에 따라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적 대두되었고, 사교육 경험이 영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교육 경험은 영유아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데 특히, 연구자들은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사교육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학교 폭력 및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함에 따라 가치, 태도 및 인성의 기초적인 틀이 형성되는 영유아기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익중(2012)은 사교육이 만3~5세 유아의 언어발달과 사회성발달과 정적인 관련이 있고, 정서발달과는 부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부모의 과보호 상황에서 지나친 사교육은 유아발달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정익중, 2012). 유치원 원장들은 조기사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학습요령 터득,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을 들었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자율성 부족을 지적하였다(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 특히 원장들은 유아들이 조기사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또래보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을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우남희 외, 2005). 이렇게 영유아기 사교육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 모두를 보고한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위험성이 강조되었다. 예컨대, 방과 후 활동을 실시하는 유아가 하지 않는 유아보다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고(김정원·이정아, 2002), 유아가 경험한 사교육의 가짓수는 유아들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 나아가 신의진(2011)은 조기사교육에 의한 유아자폐증과 우울증의 위험성까지 지적하고 있다(정익중, 2012, 재인용).

하지만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와 관련 연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 전반을 아울러서 사교육 경험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 미치는지에 대하여 대표성을 지닌 자료를 이용하여 탐색하려는 시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한 시점의 사교육 경험과 그 시기 발달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에서 나아가 과거부터 누적된 사교육 경험이 현재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기 어느 시점에 사교육을 경험하는지에

따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 경험 시기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이후의 사교육 이용 양상은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의 영유아기 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 출생아의 발달 상황을 매년 추적·조사한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2008년)부터 6차년(201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만5세 시점의 사회·정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사교육 이용 현황과 만5세 시기 문제행동의 수준을 알아보고,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 정도(이용 햇수와 시간)의 총합이 만5세 시점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전 차수의 특성이 다음 차수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같은 년도에 측정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통한 인과관계보다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인과관계를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준호·박현수·이윤영·최수형·박성훈, 2006). 이어서 영아기(만0세~만2세)와 유아기(만3~만5세)의 사교육 이용 정도(이용 햇수와 시간)를 구분하여 만5세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또한,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와 이용 시간의 상하를 기준으로 4개의 교차집단을 생성하여 집단간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 현황과 만5세 시점의 문제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영유아기(만0~5세)의 사교육 이용 정도가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영아기(만0~2세)와 유아기(만3~5세)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3. 영유아기의 누적된 사교육 이용 시간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4. 영아기(만0~2세)와 유아기(만3~5세)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에 만5세의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3-1.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집단 간에 만5세의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3-2.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 상하집단 간에 만5세의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선행연구

가. 영유아 사교육의 개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교육(私敎育)을 '사립학교와 같이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공적인 재원(財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인 공교육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재원에 따라 교육을 구분하는 정의가 있는가 하면, 공교육을 국·공립과 사립학교까지를 포함하여 교육법령의 제도권 내의 학교교육을 의미한다고 보고, 사교육은 정규 학교교육 과정에서 제공하는 공교육을 제외한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서비스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송정·양정선·차성현·정연주, 2011).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초·중등 학교교육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대상 사교육에 관해서는 그 독특한 맥락을 고려한 또 다른 개념화가 요구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송정 외, 2011),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합의된 개념 정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서문희·양미선, 2013).

예컨대 김지경(2004), 이경선과 김주후(2010)의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의 학원, 그룹 및 개인 과외, 학습지, 방과후 교실 등'으로 규정한 반면에, 강이주(2007), 송정 외(2011), 서문희와 양미선(2013) 등은 사교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규과정 이외의 교육'으로 개념화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까지를 포함하였다. 즉, 영유아 사교육 정의에서의 주요 논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방과후과정)을 포함할 것인가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유아교육·보육기관 내에서 특별활동 및 방과후과정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1] 이러한 기관 내 사교육은 기관 외 사교육과 그 성격이 다르다. 우선, 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사교육은 해당 기관에서 선별한 몇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또한, 각 아동에게 참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유아교육·보육기관의 단체활동의 연속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외 사교육만큼 자발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2]. 이렇게 기관 내 사교육과 기관 외의 사교육은 제공되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을 둔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유아교육·보육기관의 특별활동을 제외한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학원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나.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 현상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이 확대되어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지면서, 최근 들어 대규모 실태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년에 걸쳐서 만0~5세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였다[3]. 2014년에 전국 100개 조사구에서 2,509가구, 영유아 3,6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유아 가구 중 88.7%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만 3~5세 유아의 경우 94%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양미선 외, 2014). 사교육을 실시하는 아동은 월평균 145,900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영아가 67,300원, 유아 176,3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유치원이 아닌 기타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거나, 영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취업모보다 미취업모

1)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66.5%가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음(서문희 외, 2012).

2) 자녀에게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시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가 44.8%로 가장 많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라는 응답이 15.2%로 3위를 차지했다(양미선 외, 2014).

3) 여기서의 사교육비란 "총 교육·보육비용 항목 중 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비 및 특별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 및 시간제 교육기관 총 비용,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와 인터넷 및 전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양미선 외, 2014, p. 189).

(전업주부)의 자녀가,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에 사교육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4년 5월 기준으로 3조 2,289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2013년보다 영아의 경우 3.4%, 유아의 경우 21.1% 증가한 수치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교육을 실시하는 영유아 가구의 비율은 76.4%, 82.5%, 88.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서문희·양미선, 2012; 양미선·박진아·손창균·임지희, 2013; 양미선 외, 2014). 이러한 최근 3년간의 증가추세는 2012년 0~2세 보육비와 5세 누리과정 비용이 지원되고, 2013년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전면 무상보육·교육이 실시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각 가구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이 절약되면서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양한 사교육 과목 중에서 영유아는 특히 영어, 한글 등 언어 관련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양미선 외(2014)에서는 시간제 학원의 과목에 대한 정보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교육·보육기관의 특별활동과목 중에서 영어를 실시하는 비율이 어린이집의 경우 84.3%, 유치원은 62.8%로 가장 높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 중에서도 영어학원이 54.3%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에서 실시하는 학습지는 한글이 84.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와 기대를 비롯하여, 영유아 사교육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 선행연구에서는 대규모 양적 데이터보다는 개별 부모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질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장유진, 2014; 전지형, 2005).

장유진(2014)은 대표적인 사교육 성행 지역인 서울 목동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신의 경험과 주변 엄마들을 관찰,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사교육에 집중하는 부모의 내면과 그 맥락을 폭넓고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연구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유교적 가족주의에 근간을 둔 부모-자녀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자녀관계가 가족의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와 일체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녀와 성공과 성취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장유진(2014)은 목동 유아 사교육의 상황적인 구조로 '세계화와 영어의 필요성', '한국 사회 여성의 교육·취업·육아구조', '한국의 학력·학벌주의'를 들고, 이를 매개하는 상황으로 사교육 기관, 주위의 동네 엄마들, 대중매체의 담론을 설명하였다. 특히 남편의 벌이가 좋을수록 맞벌이 확

률이 줄어드는데, 자신의 이름보다 '○○엄마'로 살아갈 때, 전업주부들은 현실적으로 자녀를 통해 자신의 성취를 이룰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여성들은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순환구조에 있다. 실제로 양적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취업했을 때보다 취업하지 않았을 때에 영유아 사교육비가 유의하게 더 크다고 보고된다(양미선 외, 2014).

이 밖에 교육을 위해 무리하게 목동으로 이주 온 엄마들은 다양한 학원을 접하면서 더욱 손쉽게 사교육을 시키게 되고, 자녀가 엄마의 요구를 잘 따라주거나 가시적인 성취를 보였을 때 사교육 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장유진, 2014). 이를 통해 연구자는 유아 대상 사교육 현상을 독립된 인격체이기보다 '기획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아이 존재의 부재, 확고한 교육관을 갖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선별하지 못하는 엄마 존재의 부재,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힘들거나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교사로서의 부모 존재의 부재로 해석하였다(장유진, 2014).

한편, 전지형(2005)은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2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52명을 대상으로 간략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유아 문자언어교육에 대한 만 3~5세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45.2%의 학부모는 유아의 문자언어교육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문자언어교육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시점은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가 한글을 더 많이 알고 있을 때(49.5%)'였다. 2위는 '개인적으로 한글 교육을 빨리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가 20.2%로 뒤를 이었다. 즉, 부모들은 자신의 양육철학이나 교육관보다는 다른 아이들의 성취에 자극되어 문자언어교육을 시킬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책과 학습지를 구입할 때에는 아이의 선호보다는 교육적 내용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국어내용을 지도하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만5세 부모의 43.9%가 찬성했다. 인터뷰를 통해 문자언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구체적인 인식을 알 수 있었는데, 유치원 교사가 자녀의 한글 습득 정도를 빠른 편으로 평가한 유아의 부모들도 자녀보다 조금 더 빠른 단 한명의 유아를 발견함으로써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이 발견되었다(전지형, 2005).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모 중에서 특히 어머니들은 인생에서 학업성취가 중요하다는 교육관,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지면 안 된다는 경쟁심리와 불안감, 자녀와 일체감을 갖고 자녀의 성취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 등으로 인해서 영유아 자녀의 사교육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사교육 경험과 사회·정서발달

사교육 경험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용석·모선영·최현정·이자영, 2008; 김진선·진영자, 2010; 박나래·정익중, 2012; 송정은·전덕인·석정호·홍나래·김영신·홍현주, 2010).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의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영유아기 사교육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사교육의 대상 연령이 하향화되고, 그 종류와 가짓수가 많아지면서 영유아에게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과 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에는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민선옥·배지희, 2014; 이명순, 2007). 특히, 현재 영유아에게 행해지는 상당수의 사교육은 진정한 교육과 거리가 멀며 단편적인 학습과 지식, 기술 습득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장유진, 2014) 선행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사교육이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우남희 외(2005)는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유치원 원장들은 사교육이 유아의 학습요령 및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이는 단기적인 효과이거나 진정한 의미의 자신감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자율성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신의진(2002)은 인지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상관없이 부적절한 학습 자극을 가하는 것으로써 유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회로 중 스트레스 관련 부분의 조절력에 손상을 주고 더 나아가 면역기능 및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뇌 발달상의 문제는 사회성 및 인지 발달의 저하 등의 발달 지연 및 왜곡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우남희 외, 2005, 재인용).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문제행동, 스트레스 등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백혜정 외, 2005; 장은미, 2008; 정익중, 2012; 홍은자·김희진, 2003). 장은미(2008)는 영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위축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적 행동, 정서불안 행동, 미성숙 행동 등 어린이

집 초기 적응에서의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이전에 문화센터,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영아들은 그렇지 않은 영아보다 어린이집 초기 적응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불안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백혜정 외(2005)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경험하는 사교육의 수가 증가할수록 높은 수준의 비행,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외에서는 영유아 대상 학원 또는 사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미취학 아동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교육적인 압박이 사회·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Hirsh-Pasek, Hyson, Rescorla(1990)은 부모가 제공하는 학습 환경이 유아의 학업성취와 사회·정서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의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태도는 만4세 학업기술과 관련이 있었으나 만5세가 되니 관련성이 사라졌다. 부모의 통제적이고 가르치는(didactic) 행동은 만4세, 5세의 학업기술과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 또한, 부모의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태도와 통제적 행동은 유아의 창의적 표현(독창성)과 부적 관련이 있었고, 통제적 행동은 시험불안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 또한 Brenckaman과 Lichenstein(1987)의 연구에서도 발달적으로 부적합한 학문적 과제는 부모의 별거나 이혼 다음으로 유아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홍은자·김희진, 2002, 재인용). 이렇듯 국외에서도 영유아에게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 발달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맥락이 반영된 것이므로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영유아기의 사교육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등 사회·정서발달을 위협한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교육과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등장한 영유아기 사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과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그동안의 누적된 사교육 이용현황을 질문한 선행연구라 할지라도 기억의 한계에 따른 편향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매해 추적·조사한 한국아동패널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한국아동패널이란 한국 아동이 출생 후 영·유아기부터 어떠한 삶의 궤적을 보이고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매년 수집·관리하고 있는 자료이다(최윤경·배윤진·송신영·임준범·이예진·김소아·김신경, 2014). 2008년 출생한 2,150명의 신생아 조사로 시작되어 현재 2012년에 조사한 5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었다. 전년도 대비 표본 유지율은 2차년도 91.6%(1,904가구), 3차년도 94.6%(1,802가구), 4차년도 97.3%(1,754가구), 5차년도 97.1%(1,703가구), 6차년도 97.6%(1,662가구)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 2차년도(2009년), 3차년도(2010년), 4차년도(2011년), 5차년도(2012년), 6차년도(2013년) 조사의 사교육 관련 질문세트(CAPI)와 6차년도의 문제행동 질문세트(CBCL 1.5-5)에 모두 참여한 1,651케이스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 Ⅱ-1-1>에 제시하였다.

〈표 Ⅱ-1-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명 (%)	구 분	명 (%)
유아 특성	성별		총 자녀 수	
	남아	849 (51.4)	1명	217 (13.1)
	여아	802 (48.6)	2명	1,070 (64.8)
	월령		3명 이상	364 (22.0)
	59~60개월	61 (3.7)	출생순위	
	61~62개월	681 (41.2)	첫째	767 (46.5)
	63~64개월	756 (45.8)	둘째	692 (41.9)
	65~66개월	153 (9.3)	셋째 이상	192 (11.6)
가족 특성	부모설문 응답자		부 연령	
	어머니	1,627 (98.5)	30대 이하	988 (59.8)
	아버지	16 (1.0)	40대	624 (38.0)
	조부모	8 (0.5)	50대 이상	13 (1.0)
	어머니 취업 상태		부 최종학력	
	취업 중	674 (41.4)	고졸 이하	440 (26.7)
	취업했으나 휴직	30 (1.8)	전문대 졸업	316 (19.1)
	학업 중	9 (0.6)	대학교 졸업	698 (42.3)
	미취업/미학업	914 (56.2)	대학원 졸업	171 (10.4)

(표 Ⅱ-1-1 계속)

	구 분	명 (%)	구 분	명 (%)
	월평균 가구소득		모 연령	
	300만원 미만	314 (19.1)	20대	45 (2.7)
	300~500만원	749 (45.4)	30대	1,326 (80.3)
	500~1000만원	529 (32.0)	40대 이상	262 (15.9)
	1000만원 초과	50 (3.0)	모 최종학력	
	거주지역		고졸 이하	481 (29.5)
	대도시	689 (41.7)	전문대 졸업	436 (26.4)
	중소도시	668 (40.5)	대학교 졸업	628 (38.0)
	읍면	294 (17.8)	대학원 졸업	86 (5.2)
기관 특성	재원 기관 종류		재원 기관 설립유형	
	유치원	690 (41.8)	국공립	213 (17.6)
	어린이집	466 (28.2)	법인	166 (13.7)
	반일제 이상 학원	51 (4.2)	사립·민간	829 (68.6)

주 1) 6차년도(2013년) 만5세 시점의 자료임.
2) 항목별 무응답으로 인해 총합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51.4%로 여아보다 조금 더 많으며, 평균 월령은 62.7개월(*SD*=1.3)이다. 가구의 총 자녀 수는 평균 2.1명(*SD*=0.7)이고 연구대상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46.5%, 둘째가 41.9%, 셋째 이상이 11.6%이다. 부모 대상 설문의 응답자는 대부분이 어머니였으며(98.5%), 학업을 포함한 맞벌이 가정이 43.8%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433.2만원(*SD*=215.0)이고, 모 연령은 평균 36.1세(SD=3.6), 부 연령은 평균 38.6세(*SD*=4.0)이다. 이밖에 유아의 41.8%는 유치원에, 28.2%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이 중에서 68.6%가 사립(민간)기관이다.

나. 측정도구

1) 사교육 이용 햇수

사교육 이용 햇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1~6차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에서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 유무를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표 I -1-2>와 같으며,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0, 이용했으면 1의 값을 부여하여 각 차년도를 합산하였다.

〈표 II-1-2〉 한국아동패널의 사교육 이용 관련 문항

차년도	문항 및 내용	응답 방식
1차 (2008)	49. 현재 아기와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용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보기처럼 모두 작성하여 주십시오. 교사의 가정방문, 부모님이나 기타 아기를 돌보는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프로그램, 기관명 기술
2차 (2009)	60. 지난 조사 이후 ○○이가 주기적으로 다닌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가정방문, 부모님이나 기타 아기를 돌보는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단, 보육시설 등과 같이 대리양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① 참여프로그램 없음 ② 참여프로그램 있음 ⇨ ___개 ⇨ ②응답자에게만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 질문
3차 (2010)	68. 지난 조사 이후 ○○이가 주기적으로 다닌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가정방문, 부모님이나 기타 아기를 돌보는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단, 보육시설, 반일제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4차 (2011)	83. 지난 조사 이후 ○○이가 주기적으로 이용한 학습지 및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가정방문, 부모님 또는 아이를 돌보는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단, 주로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5차 (2012)	54. 지난 조사 이후 ○○이가 주기적으로 이용한 학습지 및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응답 가능) 단, 주로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6차 (2013)	13. ○○이가 지난 1년간 이용한 육아지원 서비스는 몇 개입니까? 현재 이용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___개 ⇨ ⑤ 응답자에게만 특별활동에 대한 세부사항 질문

자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panel.kicce.re.kr/kor/index.jsp)에서 2015년 10월에 인출함.

2) 사교육 이용 시간

사교육을 이용한 영유아가 얼마나 긴 시간동안 이용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차수별로 사교육 회당 이용 시간, 주당 횟수, 월별 횟수 등을 질문한 문항을 모두 '월별 이용 시간'으로 환산하였다.

3) 문제행동

만5세의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6차년도(2013년) 조사의 유아행동평가척도(CBCL 1.5-5) 중 내재화 문제 36문항, 외현화 문제 24문항, 총 60문항을 사용하였다. 주양육자가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CBCL 1.5-5 척도는 내재화 문제를 정서적 반응성 9문항, 불안·우울 8문항, 신체증상 11문항, 위축 8문항으로 측정하고, 외현화 문제는 주의집중문제 5문항, 공격행동 19문항으로 측정한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내재화 문제 .874, 외현화 문제 .882, 문제행동 총점 .927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 정도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때에는 성별,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모의 양육스트레스, 모의 우울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다음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아동패널 1~6차년도 데이터를 하나로 합친 후에 1~6차년도 CAPI, 6차년도 CBCL 1.5-5 조사에 모두 참여한 케이스를 선택한 결과 1,651케이스가 선택되었다. 둘째, 연구문제1) 영유아의 사교육 경험과 만5세 유아의 문제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2) 만0~5세 동안의 사교육 경험(이용 햇수와 이용 시간)이 만5세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변인을 포함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공차한계(.612~.999), VIF(1.635~1.001), Durbin-Watson의 d 통계값(1.993~2.048)을 확인한 결과 예측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문제3)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0~2세 영아기와 3~5세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를 기준으로 4

개의 교차집단을 생성하고 종속변인인 문제행동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사교육 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상하집단을 구분한 뒤, 위와 같은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가. 사교육 이용 현황과 문제행동 수준

1)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 현황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만0~5세동안 사교육 이용 현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표 Ⅱ-1-3>과 [그림 Ⅱ-1-1]~[그림 Ⅱ-1-4]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관 외 사교육 이용률은 만0세 3.63%, 만1세 15.51%, 만2세 20.53%, 만3세 29.74%, 만4세 45.49%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만5세 16.4%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Ⅱ-1-1]참조). 하지만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평균 이용 프로그램 수는 만0세 1.07개에서 만5세 1.85개로 꾸준히 증가한다([그림 Ⅱ-1-2]참조). 월 이용 시간은 만0세부터 만4세까지는 등락을 보이다가 만5세에 9.41시간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1-3]참조). 월평균 비용은 만1세부터 만5세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인다([그림 Ⅱ-1-4]참조). 즉, 만5세가 되면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줄어들지만 이용 아동 한 명이 수강하는 프로그램 개수와 이용 시간, 비용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3〉 영유아 사교육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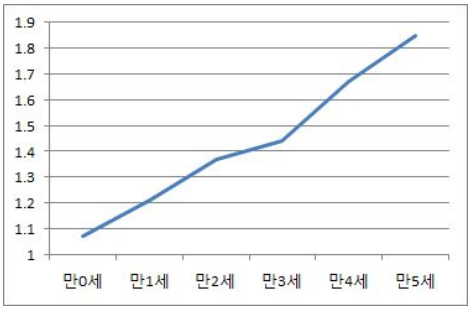
단위: %(명), M(SD)

	단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이용률	(%)	3.63 (60)	15.51 (256)	20.53(339)	29.74(491)	45.49(751)	16.41 (271)
이용 프로그램	(개)	1.07 (0.25)	1.21 (0.49)	1.37 (0.76)	1.44 (0.80)	1.67 (0.90)	1.85 (1.17)
월 이용 시간	(시간)	3.51 (3.30)	4.40 (4.77)	6.38 (12.89)	5.69 (10.31)	5.06 (6.19)	9.41 (8.45)
월 비용	(만원)	-	5.61 (5.07)	6.66 (7.39)	7.11 (6.62)	8.02 (8.09)	10.10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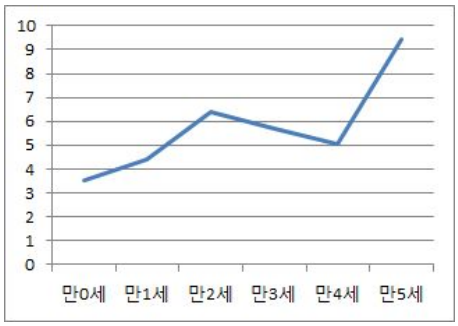
주: 이용 프로그램, 월 이용 시간, 월 비용은 각 차년도에서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제외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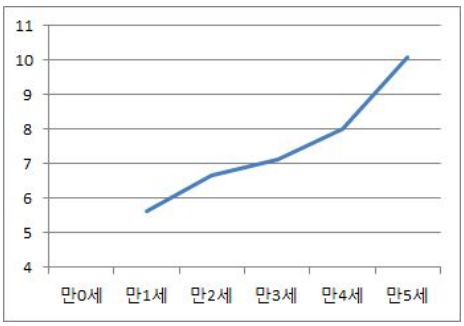
[그림 II-1-1] 연령별 사교육 이용률(%)



[그림 II-1-2] 연령별 1인당 이용 사교육 프로그램 수(개)



[그림 II-1-3] 연령별 월 사교육 이용 시간(시간)



[그림 II-1-4] 연령별 월 사교육 지출액(만원)

영유아가 연령별로 어떠한 영역의 사교육을 이용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표 Ⅱ-1-4>에 제시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만0세에는 3가지, 만1세에는 8가지, 만2세부터 만5세까지는 14가지 종류의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만0세 사교육 이용아의 대부분은 기타 프로그램과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만1세에는 사교육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였더니, 통합프로그램(44.8%), 감각·조작프로그램(28.7%), 음악프로그램(12.6%) 순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2세까지는 통합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하지만, 만3세부터 만5세까지는 국어(한글)프로그램의 참여율이 가장 높다. 만4세부터는 수학프로그램 참여율이 3배 이상 급증하고 통합프로그램은 급감하며, 만5세에는 예체능 계열의 프로그램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II-1-4〉 영역별 사교육 참여자(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만0세	구분	만1세	구분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통합	31 (48.4)	한글	7 (2.3)	미술	37 (8.0)	54 (7.1)	100 (8.0)	77 (13.3)
한글	1 (1.6)	외국어	2 (0.6)	음악	41 (8.8)	19 (2.5)	21 (1.7)	22 (3.8)
기타	32 (50.0)	미술	1 (0.3)	체육	63 (13.5)	41 (5.4)	71 (5.7)	78 (13.4)
		음악	39 (12.6)	과학	0 (0.0)	1 (0.1)	7 (0.6)	10 (1.7)
		체육	15 (4.8)	수학	3 (0.6)	43 (5.7)	216 (17.2)	102 (17.6)
		감각·조작	89 (28.7)	국어(한글)	49 (10.5)	294 (38.8)	543 (43.3)	152 (26.2)
		통합	139 (44.8)	컴퓨터	0 (0.0)	0 (0.0)	0 (0.0)	0 (0.0)
		기타	18 (5.8)	교구 이용	48 (10.3)	81 (10.7)	93 (7.4)	34 (5.9)
				한자	2 (0.4)	2 (0.3)	18 (1.4)	19 (3.3)
				영어	13 (2.8)	61 (8.1)	93 (7.4)	54 (9.3)
				기타외국어	1 (0.2)	2 (0.3)	1 (0.1)	2 (0.3)
				창의성	0 (0.0)	0 (0.0)	57 (4.5)	26 (4.5)
				통합	199 (42.8)	87 (11.5)	31 (2.5)	4 (0.7)
				기타	9 (1.9)	72 (9.5)	4 (0.3)	0 (0.0)
계	64 (100.0)	계	310 (100.0)	계	465 (100.0)	757 (100.0)	1,255 (100.0)	580 (100.0)

주: 통합프로그램이란 2개 이상의 내용을 같은 비중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2) 만5세 유아의 문제행동 실태

본 연구 대상 만5세 유아의 문제행동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Ⅱ-1-5>와 같다.

〈표 II-1-5〉 만5세 유아의 문제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1651)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내재화 문제행동	정서적 반응성	1.84 (2.14)
	불안/우울	2.58 (2.16)
	신체증상	1.44 (1.67)
	위축	1.48 (1.70)
	총점	7.34 (6.28)
외현화 문제행동	주의집중문제	1.11 (1.39)
	공격행동	5.22 (4.59)
	총점	6.33 (5.52)
총 점		13.67 (10.95)

문제행동 총점은 0~120점의 점수범위에서 13.67점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만5세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이 척도의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0~72점의 범위에서 평균 7.34점이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중 불안/우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정서적 반응성, 위축, 신체증상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0~48점의 범위에서 6.33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대상 유아들은 주의집중문제보다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정도가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만5세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Ⅱ-1-6>과 같다. 1단계에는 만5세의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들을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였고, 2단계에는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햇수를 투입하였다.

〈표 Ⅱ-1-6〉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N = 1,523)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β	β	β	β	β
성별	-.066**	-.073**	-.013	-.021	-.115***	-.121***
부모 애정적 양육행동	-.091***	-.101***	-.038	-.048	-.137***	-.145***
모 양육스트레스	.307***	.303***	.293***	.289***	.276***	.272***
모 우울	.093**	.093**	.097**	.097**	.075**	.075**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 햇수		.096***		.098***		.079**
F	81.837***	69.555***	62.077***	53.566***	81.616***	68.042***
R^2	.177	.186	.140	.150	.176	.183

주: 성별은 남아일 경우 1, 여아일 경우 2로 코딩함.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은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2단계에 투입된 변인들은 만5세 문제행동 총점 변량의 18.6%를, 내재화 문제행동의 15.0%를, 외현화 문제행동의 18.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아일 경우에,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낮고, 모 양육스트레스와 모 우울이 높을수록 그리고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많을수록 만5세에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 총점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또한, 모 양육스트레스와 모 우울이 높을수록,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많을수록 만5세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2)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햇수가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를 구분하여 만5세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Ⅱ-1-7>과 같다.

분석 결과,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은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만5세의 문제행동 총점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영아기 사교육 이용 햇수보다 유아기 이용 햇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7〉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N = 1,529)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β	β	β	β	β
성별	-.067*	-.075**	-.015	-.023	-.116***	-.123***
부모 애정적 양육행동	-.090***	-.100***	-.039	-.049	-.135***	-.143***
모 양육스트레스	.307***	.303***	.293***	.288***	.275***	.272***
모 우울	.092**	.092**	.095**	.095**	.075**	.075**
영아기 사교육 이용 햇수		.054*		.063*		.036
유아기 사교육 이용 햇수		.073**		.068**		.067**
F	81.275***	57.707***	61.593***	44.464***	80.969***	56.377***
R^2	.140	.150	.140	.150	.176	.182

주: 성별은 남아일 경우 1, 여아일 경우 2로 코딩함.
* p < .05, ** p < .01, *** p < .001.

3) 영유아기의 누적된 사교육 이용 시간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의 누적된 사교육 이용 시간의 총합이 만5세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Ⅱ-1-8>과 같다.

분석 결과,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은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2단계를 살펴보면, 투입된 변인들이 만5세 문제행동 총점 변량의 19.4%를, 내재화 문제행동의 15.9%를, 외현화 문제행동의 19.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아인 경우,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부족하고, 모 양육스트레스와 모 우울이 높을수록 그리고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길수록 만5세 때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 총점을 보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모 양육스트레스, 모 우울이 높을수록,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 시간의 총합이 길수록 만5세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남아인 경우,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낮고, 모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 시간 총합이 길수록 유아는 만5세 때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표 Ⅱ-1-8〉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N = 1,056)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β	β	β	β	β
성별	-.066*	-.070*	-.014	-.018	-.115***	-.118***
부모 애정적 양육행동	-.103**	-.109***	-.040	-.047	-.160***	-.165***
모 양육스트레스	.324***	.331***	.320***	.328***	.280***	.286***
모 우울	.076*	.071*	.084*	.079*	.056	.052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 시간		.068*		.069*		.058*
F	61.387***	50.525***	48.137***	39.836***	60.609***	49.482***
R^2	.189	.194	.155	.159	.187	.191

주: 성별은 남아일 경우 1, 여아일 경우 2로 코딩함.
* p 〈 .05, ** p 〈 .01, *** p 〈 .001.

4)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시간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

영아기와 유아기에 사교육을 모두 이용한 경우에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각각 만5세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Ⅱ-1-9>와 같다.

분석 결과,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은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영아기와 유아기에 사교육을 모두 이용한 유아 중에서는 영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만이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아기에 사교육을 오랜 시간 이용했을수록 만5세 때 문제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9〉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N = 334)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β	β	β	β	β
성별	-.063	-.067	.003	-.001	-.131**	-.133**
부모 애정적 양육행동	-.045	-.050	.027	.021	-.121*	-.125*
모 양육스트레스	.286***	.303***	.284***	.301***	.243***	.256***
모 우울	.191**	.180**	.191**	.178**	.159**	.152*
영아기 사교육 이용 시간		.121*		.091		.136*
유아기 사교육 이용 시간		-.034		-.002		-.067
F	20.262***	14.347***	16.553***	11.587***	19.398***	13.894***
R^2	.198	.208	.168	.175	.191	.203

주: 성별은 남아일 경우 1, 여아일 경우 2로 코딩함.
* p < .05, ** p < .01, *** p < .001.

다.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만5세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

1)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 집단 간 만5세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에 따라 만5세 문제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 집단을 구분하였다.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에 따른 집단별 인원수는 <표 Ⅱ-1-10>과 같다.

〈표 Ⅱ-1-10〉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 집단

단위: 명(%)

구 분		유아기		
		없음	있음	계
영아기	없음	536(30.7)	665(38.0)	1,201(68.5)
	있음	164(9.4)	383(21.9)	547(31.2)
	계	700(40.0)	1,048(59.7)	1,748(100.0)

〈표 Ⅱ-1-11〉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 집단 간 만5세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

구 분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영아기 × 유아기 ×	12.44	10.08	2.947*	6.55_{a}	5.82	3.938**	5.89	5.19	1.459
영아기 × 유아기 ○	14.07	11.22		7.52_{ab}	6.30		6.55	5.66	
영아기 ○ 유아기 ×	14.15	10.44		7.76_{ab}	6.12		6.39	5.15	
영아기 ○ 유아기 ○	14.34	11.75		7.87_{b}	6.82		6.47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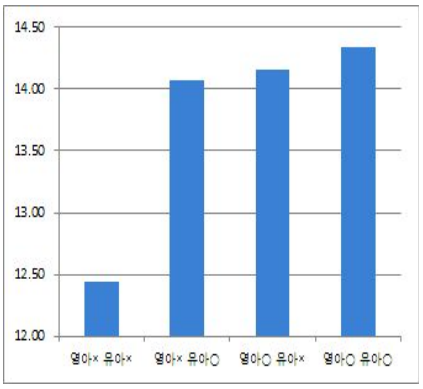
주: 1) a, b는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a 〈b).
2) 집단 간 사례 수의 차이가 있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Welch 검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통계량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여 분산분석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가 타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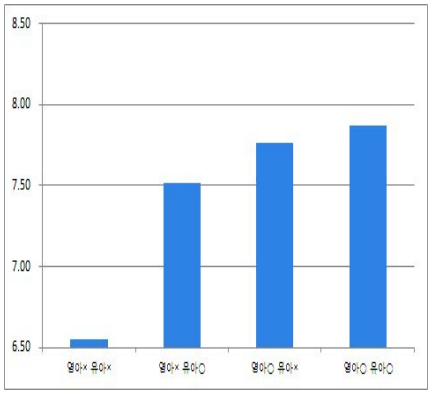
변량분석 결과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에 따른 집단 간에 문제행동 총점(F = 2.947, p 〈 .05) 및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F = 3.938, p 〈 .01)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11> 참조).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영아기와 유아기에 모두 사교육을 이용한 집단이 모두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심한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Ⅱ-1-5]와 [그림 Ⅱ-1-6]과 같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영아기와 유아기에 지속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집단이 한 시기라도 사교육을 경험한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서 눈에 띄게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5〕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 집단에 따른 문제행동 총점



〔그림 Ⅱ-1-6〕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 집단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

2)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 상하 집단 간 만5세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

사교육 이용자 중에서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정도에 따라 만5세 문제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교육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을 나누어 문제행동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사례수를 기준으로 영아기의 월별 사교육 이용 시간이 3.33시간 미만이면 하집단, 이상이면 상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유아기는 월별 4.29시간 미만이면 하집단, 이상이면 상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에 따른 상하 집단별 인원수는 <표 Ⅱ-1-12>와 같다.

〈표 Ⅱ-1-12〉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 상하 집단

단위: 명(%)

구 분		유아기		
		하	상	계
영아기	하	63(17.9)	94(26.7)	157(44.6)
	상	59(16.8)	136(38.6)	195(55.4)
	계	122(34.7)	230(65.3)	352(100.0)

변량분석 결과, 사교육 이용 시간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에 문제행동 총점(F = 3.244, $p < .05$) 및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F = 3.074, $p < .05$)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13> 참조).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영아기와 유아기에 모두 사교육을 상대적으로 긴 시간 이용한 유아가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모두 적었던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 총점과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표 Ⅱ-1-13〉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 상하 집단 간 만5세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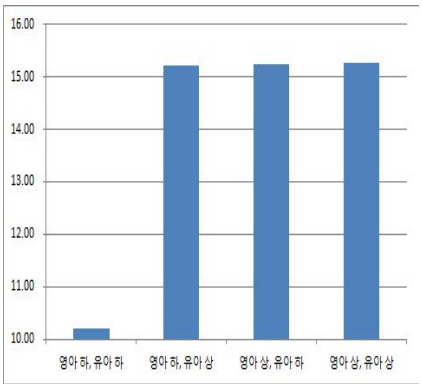
구 분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영아기 하 유아기 하	10.21[a]	9.21	3.244*	5.54[a]	4.90	3.074*	4.67	4.83	2.498
영아기 하 유아기 상	15.22[ab]	13.32		8.22[ab]	7.82		7.00	6.46	
영아기 상 유아기 하	15.24[ab]	9.58		8.37[ab]	5.48		6.86	5.12	
영아기 상 유아기 상	15.26[b]	12.14		7.87[b]	7.14		6.79	6.06	

주 1) a, b는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함(a < b).
2) 집단 간 사례 수의 차이가 있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Welch 검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통계량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여 분산분석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가 타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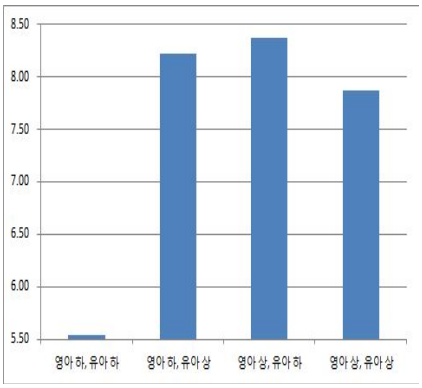
* $p < .05$

집단 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Ⅱ-1-7], [그림 Ⅱ-1-8]과 같이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영아기와 유아기 모두 사교육을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한 집단이 한 시기라도 사교육을 많이 이용한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서 눈에 띄게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7〕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 상하집단에 따른 문제행동 총점



〔그림 Ⅱ-1-8〕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시간 상하집단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를 아우르는 사교육 경험이 만5세 시점의 사회·정서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 햇수와 시간이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영유아기 사교육 이용 유무와 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교차집단을 생성하여 집단 간의 문제행동 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사교육과 문제행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교육 이용자 수는 만0~4세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만5세에 감소하였으며, 월 이용 시간은 만0~4세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만5세에 급증하였다. 만5세의 사교육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은 <표 Ⅱ-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차수별로 사교육 이용 여부를 묻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응답하게 한 3~5차년도와 달리 6차년도에서는 '학원'의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제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질문했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례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만5세 시기는 초등학교 취학 준비를 위하여 유치원 등 정규 유아교육·보육기관 혹은 사교육기관으로 유아가 양분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 대상인 유아의 전반적인 문제행동 및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불안/우울이 가장 높았고, 정서적 반응성, 위축, 신체증상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중에는 주의집중문제보다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둘째,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만5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의 총점 및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사교육 이용자 중에서도 영유아기의 누적된 사교육 이용 시간이 길수록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 총점 및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백혜정 외, 2005; Hirsh-Pasek et al., 1990), 영유아기의 사교육은 아동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기보다 부모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유아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불안, 우울,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등 다양한 방식의 문제행동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보다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햇수가 만5세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영아기의 경우 70% 이상이 사교육을 전혀 이용하지 않을 만큼 사교육 이용 햇수 변수가 다소 편포되고 표준편차가 작아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영아기와 유아기에 모두 사교육을 경험한 유아 중에서는 영아기의 사교육 누적 이용 시간만이 만5세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에는 전반적인 사교육 이용률은 적지만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이후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 이용 유무를 기준으로 네 집단을 구분한 결과, 영아기와 유아기에 전혀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한 시기라도 사교육을 이용한 세 집단에 비하여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 총점과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또한, 사교육 이용자 중에서 영아기와 유아기의 월별 사교육 이용 시간을 상하로 나누어 네 집단을 구분한 결과, 영아기와 유아기 모

두 사교육을 적은 시간 경험한 경우가 한 시기라도 사교육을 오랜 시간 경험한 세 집단에 비하여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 총점과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유아기에 지속적으로 사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가능한 한 적은 시간을 이용할 때, 문제행동 발현 가능성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드러났으므로 무분별하게 팽창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방식의 사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비과학적인 혹은 과대 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교육 관련 업체에서는 자신의 프로그램, 교재, 교구가 가장 좋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자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한다(전지형, 2005). 특정 학자의 이론이나 연구 결과의 일부를 차용해 과대 해석하거나 왜곡하여 자사의 교재·교구의 과학성을 피력하는 광고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이러한 홍보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해당 사교육의 과학성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 아이만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업체가 제공하는 광고 컨텐츠의 진위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영유아 대상 사교육 산업의 과대·과장 광고, 허위 광고는 개별 아동의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 가계 경제를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적인 출산력을 저해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타 산업의 과대·과장 광고, 허위 광고 못지않게 국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영유아기의 과도한 사교육이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우려가 큰 데에 반해, 부모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담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예컨대 만5세, 초등학교 3학년, 대학생의 중국어교육 효과를 비교한 실험연구에 의하면, 외국어 습득은 어린 연령에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통념과는 달리 말하기, 읽기 능력에 있어서 성인의 수업 효과가 가장 컸고 유아는 가장 낮았다(이정림 외, 2015).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부모 대상의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성취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등 부모들이 바람직한 자녀 교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활

성화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영유아의 학부모들은 한 번 들은 이론보다는 예외를 벗어나는 주변의 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아동발달이나 교육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면 교육방법을 즉시 변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전지형, 2005),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사교육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영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과열되는 것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교육·보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라 생각하여 다른 형태의 조기교육 또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내 아이만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이부미·이수정, 2010). 심지어 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학원과 비슷한 사교육기관으로 인식하면서 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보육·교육 기관에 요구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이명순, 2007). 이로 인해 전인교육을 목표로 해야 하는 교육·보육기관에서 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놀이중심·통합 활동보다 특기·적성교육 등의 특별활동에 치중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사교육의 팽창을 막고,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보육·교육 과정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부모들에게 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그에 따른 추후 연구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교육 전체의 이용유무와 이용 양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예체능이나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과 문자,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동기와 진행 방식 등이 다르고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정익중(2011)은 선행학습을 위한 지식교육을 학습사교육으로, 예체능 등 특기 및 재능과 관련된 교육을 재능사교육으로 명명하여 구분하였는데, 우리나라 사교육 영역 중에서 영어, 한글 등 언어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점에서 추후에는 언어사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의 문제행동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교육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교육 이용정도에 따른 집단간 문제행동의 차이를 해석할 때 주의를 요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문제행동과 사교육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드러났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했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장기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영유아기 사교육이 아동의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자아개념 등 다른 차원의 사회·정서발달, 그리고 인지, 신체, 언어발달 등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지만 실제로 많은 영유아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사교육이 한국아동패널의 가장 최근 차수인 만5세 시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학령기, 성인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밝혀진다면 우리 사회에 큰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아동패널과 같은 종단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와 유아기라는 두 시기의 사교육 경험 유무 및 이용 시간의 양에 따른 집단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연속적인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년도의 사교육 이용이 다음년도 발달에 순차적으로 미치는 영향, 혹은 영유아기 6년간의 사교육 이용 궤적이 이후 발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가적인 종단데이터인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문제행동 발현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의 영유아기의 과열된 사교육 실태에 시사점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영유아기 사교육은 아동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양육비 총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을 야기하며, 공교육 약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참고문헌

강이주(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15-331.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종서·손창균·최영준·김연우·이가은·윤아름(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석·모선영·최현정·이자영(2008).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현황과 지워 방안에 관한 연구.** 어린이재단.

김정원·이정아(2002). 유아의 방과후 활동 경험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121-137.

김준호·박현수·이윤영·최수형·박성훈(2006). 패널연구를 통해본 종단적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사회, 7**(1), 201-230.

김지경(2004). 연구논문: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7-86.

김진선·진영자(2010). 사교육 경험 및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7**(2), 5-22.

민선옥·배지희(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아동교육, 23**(4), 263-285.

박나래·정익중(2012). 방임, 과보호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7**(단일호), 139-164.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서문희·양미선(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양미선(2013). 유아 사교육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189-207.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송정·양정선·차성현·정연주(2011).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송정은·전덕인·석정호·홍나래·김영신·홍현주(2010). 사교육 시간에 따른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의 성별 차이.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1), 37-44.

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박진아·손창균·임지희(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이경선·김주후(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특성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1-38.

이명순(2007). 유아 조기교육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한 대안 탐색.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1**(4), 160-181.

이부미·이수정(2010). 조기교육: 불안한 부모와 바쁜 아이들. **시민인문학, 18**(단일호), 85-107.

이정림·배윤진·조혜주·송요현·고성룡·이정희(2015).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장유진(2014). 목동 엄마들의 분재(盆栽) 만들기: 유아 사교육의 상황적 구조와 한계. **교육인류학연구, 17**(1), 159-195.

장은미(2008). 영아의 기질, 조기교육경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서의 문제행동. **육아지원연구, 3**(2), 33-50.

전지형. (2005). 유아 문자언어교육에 대한 유치원 학부모의 인식조사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151-167.

정익중(2011). 초중고 사교육비의 사회계층적 예측요인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5**(단일호), 73-98.

정익중(2012). 방임, 과보호, 사교육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4), 255-278.

최윤경·배윤진·송신영·임준범·이예진·김소아·김신경(2014). **한국아동패널 2014.** 육아정책연구소.

통계청(2012). 사회조사.

홍은자·김희진(2003).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7**(1), 1-24.

Hirsh-Pasek, K., Hyson, M. C., & Rescorla, L. (1990). Academic environments in preschool: Do they pressure or challenge young childre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6), 401-423.

[인터넷 사이트]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panel.kicce.re.kr/kor/index.jsp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문화인프라 이용빈도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강은진·이예진·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 기술이란 대인관계에서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적절한 목표지향적 행동을 결정하며, 타인과 좋은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구사하는 능력을 말한다(Bedell & Lennox, 1997, 김지현·정지나, 2011, p.16에서 재인용). 아동의 사회적 기술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등이다.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박성연, 1989). 즉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보살펴주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이순형 외, 2011: 52). 여러 학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Baumrind는 독재적, 권위적, 허용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고, Bernstein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 유형에 따라 지위지향적(position-oriented) 가정, 대인지향적(person-oriented) 가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Barbour & Barbour, 2001).

이기숙·김순환·김민정(2010)도 어머니의 양육 유형을 공유형, 지시형, 희생형, 통제형의 4개 유형으로 도출하고, 특히 어머니가 아이와 자주 상호작용하고 함께 있는 것을 즐기며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공유형 양육 유형일 때 자녀들의 사회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제형, 희생형, 지시형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손영지·박성연, 2011; 이인학·박지은·최성열, 2010; 장성오·김용미, 2011)이다. 어머니 됨은 여성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자유를 구속받거나 부부관계의 변화,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 경력단절 등의 문제도 동반한다. 영유아의 기질, 자녀양육행동, 문화요인 등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부모의 역할행동을 형성하게 된다(정계숙 외, 2013: 80-81).

장성오와 김용미(2011)는 만3-5세 유아의 어머니 381명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소진,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효능감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적극적 참여행동이 낮게 나타나고, 오히려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손영지와 박성연(2011)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양육스트레스, 신경증, 외향적 성격과 상관이 있다고 밝혔는데, 특히 어머니의 성격보다는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더 잘 예측함을 발견하였으며, 이인학·박지은·최성열(2010)도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석호와 이주연(2012)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사회적 상호작용, 교훈적/물리적 자극, 한계설정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낮을수록, 어머니가 직장이 없을 경우, 그리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의 양육행동을 더 자주하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교훈적/물리적 자극 양육행동과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었다. 이인학, 최성열과 송희원(201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온정적이지 않고 자율적이지 않은 양육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낮은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높은 사회적 능력과 밀접히 관련되었다(이인학 외, 2013). 온정적이며 애정적인 표현을 잘하고, 자율성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친사회적이고 사교적이며 또래에게 잘 수용되었다(권연희, 2003). 그리고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지닌 부모의 자녀는 정서조절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서정·김순옥, 2005). 반면 권위주의적이거나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지닌 어머니의 자녀는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내어(곽소현·김

순옥, 200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발달과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인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류관열, 2012).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3세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서도 낮게 인식하였으나, 온정·격려의 양육행동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도 높게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밀접히 관련되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에게는 온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되며,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문화 인프라 이용과도 관련 가능성이 있다. 김혜금(2012)은 2세 미만 영아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지역사회의 육아지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여가 공간/시설과 문화시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육아지원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시사점을 얻었다. 노신애와 진미정(2012)도 지역사회의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가 높고, 사회 자본을 높게 평가할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가족 친화적이라고 인식하며, 양육스트레스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공영시설, 도서관 등의 문화 인프라는 다른 육아인프라(육아지원기관 충분성, 공공여가 공간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이용편리성이 낮으며(임준범·이예진·김신경, 2014), 이용 빈도에 있어서도 집근처 놀이터, 놀이공원, 수족관·동식물원, 사설 키즈카페, 극장 등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이윤진·이정원·구자연, 2013). 그러므로 문화 인프라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양육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다른 육아인프라를 사용하는 어머니들보다 양육에 대한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유재언과 진미정(2013)은 서울시 거주자의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친화 지역사회 요소가 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영유아 가정은 편의서비스 인프라(의료기관 수, 사설학원수, 금융기관 수, 공공체육시설 수 등)가 많고

사회자본 수준(자원봉사율, 기부경험률 지표)이 높을수록 생활환경만족도도 높음을 밝혔다. 이에 비해 돌봄시설(유치원과 어린이집수)과 문화시설은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인프라를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의 개수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야기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변의 문화인프라의 개수와 문화인프라를 이용하는 빈도 중 이용빈도가 사용자의 행동을 보다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문화 인프라의 이용 빈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나,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공영시설, 도서관 등의 문화인프라가 그 나라의 문화역량을 말해주는 지표임과 동시에, 앞서 노신애와 진미정(2012)이 언급하였듯이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임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살펴봄이 필요하겠다.

한편 문화인프라 이용과 유아의 사회성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다. 국내외 박물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전시와 교육과정과의 관련성도 높으며, 주로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관내에서 가이드의 지도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곽아정·박현주·조화연, 2009). 박물관을 활용해 프로젝트접근법을 실시했을 때에도 유아의 확산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며 비판적 사고(즉 서로 다른 관점 인식하기, 판단하여 이유말하기, 결과 예측하기, 타인적용기준을 나에게 적용하기)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혜전, 2008).

서영숙과 김진숙(2005)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유아가 미술능력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이 측정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은 인지적 능력, 동료 수용, 신체적 능력, 자기수용으로 특히 넓은 공간인 박물관에서 활동을 하며 동료들 간의 친밀감과 사회적 발달이 형성되었다고 해석하였다. 강영숙과 박지숙(2014)도 영국의 미술관 가족체험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어린이와 가족사이의 '경험'이 특히 사회화와 교육에 포함된다는 Wolins(1998)의 말을 인용하여 미술관이 가족 참여자들에게 교육적 전시나 프로그램 등 독창적 기회를 제공하며 그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학습 효과를 얻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최근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부모와 유아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부모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책읽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 유아들에 비해 언어발달과 사회성 발달에도 더 큰 향상을 보인다(전경화·이송은, 2008)는 연구 결과와 같이 유아와 책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유아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 기술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양육 스트레스는 반대로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인프라는 그 나라의 문화지표임과 동시에 가족친화지역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문화 인프라의 수효보다 문화 인프라를 이용하는 어머니의 행동빈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아동의 사회적 기술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은 건강한 아동 성장에 주요 발달 영역이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등)의 관계 모색과 문화인프라 이용 빈도 변수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미칠 수 있는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적 요인 이용 빈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살펴보지 않았던 문화인프라 이용 빈도와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문화 인프라의 이용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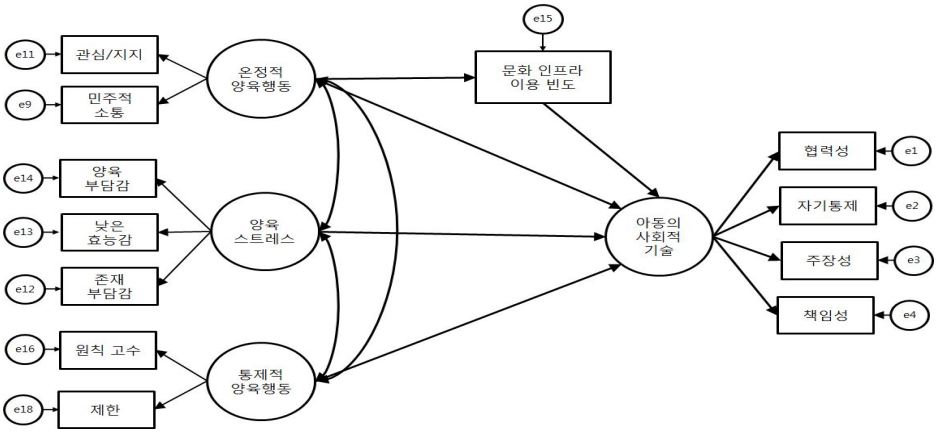
연구가설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3.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4. 가구의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6.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가구의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7. 가구의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할 것이다.



〔그림 Ⅱ-2-1〕 연구모형

2.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 ~ 8월 중에 출산한 아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총 2,150가구의 전국단위 신생아 패널 조사로써,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8차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이 모두 조사된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참여자 1,62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는 평균 36.82세(*SD*=3.69)로, 43.3%가 대학교 이상 졸업, 27.2%가 전문대 졸업자였고, 52.4%가 미취/학업 중이었다. 대상 아동은 평균 76.10개월(*SD*=1.50)로, 첫째가 45.9%, 둘째가 42.5%였다.

가. 연구 도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은 모두 패널 아동의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1) 아동의 사회적 기술

아동의 사회적 기술은 Gresham & Elliott(1990)의 Social skills rating system을 한국판으로 타당화 한 서미옥(2004)의 부모 평정용 취학 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를 사용하였다. 총 32문항의 3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 영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책임성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협력성은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수업 중 학업을 잘 수행하기, 다른 아이들과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기 등이 포함되며, 주장성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 말하기, 동료칭찬하기, 놀이할 때 다른 아이에게도 같이 하자는 말 하기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통제는 동료에게 놀림을 당할 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기 등이 포함되며, 책임성은 놀이를 할 때 규칙과 순서 지키기, 부모의 지시에 주의기울이기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협력성 .82, 주장성 .85, 자기통제 .76, 책임성 .78로 나타났다.

2)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영화관, 장난감 대여센터, 도서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의 1개월 간 이용 빈도를 물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의 합산을 사용하였다. 응답 대상의 각 시설별 이용 빈도는 다음 〈표 Ⅱ-2-1〉 과 같다.

<표 Ⅱ-2-1> 문화 인프라별 이용 빈도

단위: 1개월 ( )일

구분	*Min*	*Max*	*M*	*SD*	구분	*Min*	*Max*	*M*	*SD*
박물관	0	10	0.33	0.87	영화관	0	14	0.63	0.90
미술관	0	10	0.20	0.69	장난감	0	14	0.10	0.60
공연시설	0	10	0.34	0.80	도서관	0	30	1.79	3.26
					전체	0	62	3.38	4.71

3) 양육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디스트레스를 반영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영역만을 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총 11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요인으로 조사 된 양육 스트레스를 양육 부담감, 낮은 효능감, 존재 부담감의 3개의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양육 스트레스의 *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다.

4) 온정적, 통제적 양육 행동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온정적 양육 행동, 통제적 양육 행동으로 자체 제작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각각 6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관심과 지지, 민주적 소통으로, 통제적 양육행동을 원칙 고수와 제한으로 각각 2개 문항 꾸러미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의 *Cronbach α*는 .86, 통제적 양육행동은 .7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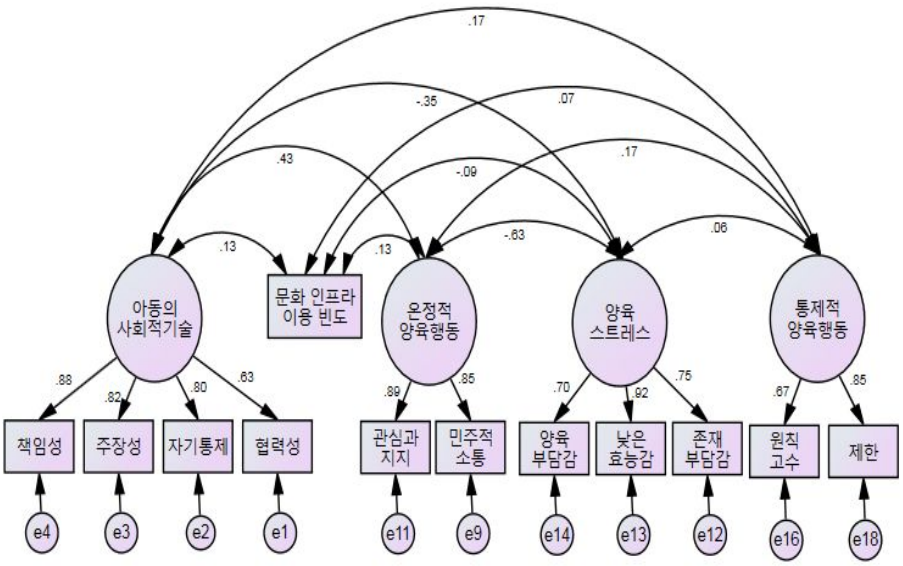
나.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을 왜곡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잠재 변인을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로 제작해 사용하였다(서영석, 2010). 문항 꾸러미는 각 변인이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 순서에 따라 제작하였고, 각 항목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각 꾸러미를 명명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에 따라 측정모형을 먼저 추정한 후,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결측치 처리방법으로는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선택하였으며, 모형적합도는 χ^2, NFI, TLI, CFI 및 RMSEA를 기준으로 하였다.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에 따른 매개 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방법을 적용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모형의 추정이 이루어졌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아동의 사회적 기술,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통제적 양육행동을 포함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148.90(df=45, p <.001), NFI=.982, TLI=.978, CFI=.987, RMSEA=.038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2] 측정 모형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각 지표의 요인부하량은 .630~.924로 나타났으며, C.R.(Critical Ratio) 역시 모두 1.965 이상으로 관측변수가 잠재 변수의 구성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잠재변수들 간의 상호상관정도를 검토한 결과 변별타당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Ⅱ-2-2〉 측정모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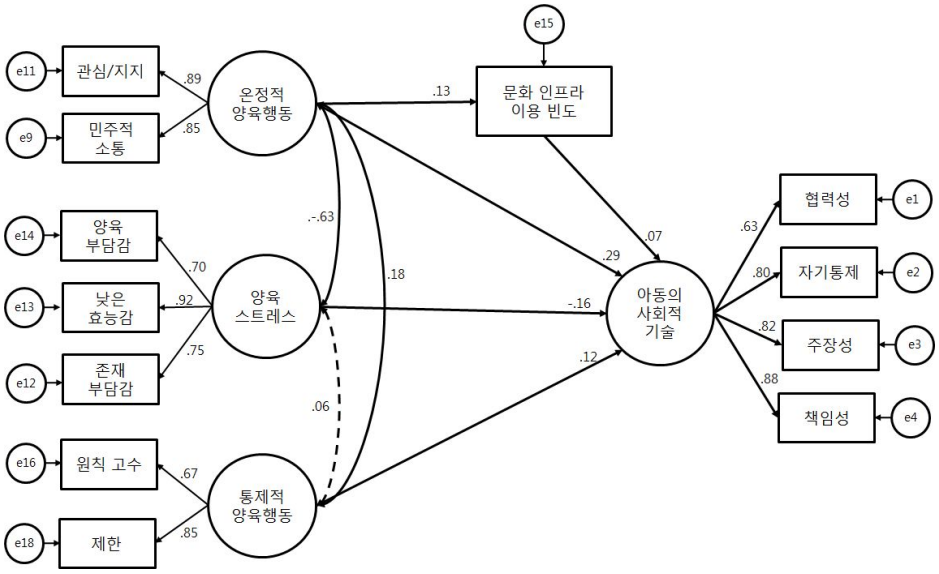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C.R.*	*p*
아동의 사회적 기술	협력성	1.000	.630			
	자기통제	1.125	.804	0.043	25.877	.000
	주장성	2.238	.815	0.086	26.113	.000
	책임성	1.525	.884	0.056	27.298	.000
양육 스트레스	존재 부담감	1.000	.753			
	낮은 효능감	1.322	.924	0.040	32.677	.000
	양육 부담감	1.010	.702	0.037	27.479	.000
온정적 양육행동	민주적 소통	1.000	.853			
	관심과 지지	1.045	.887	0.032	32.402	.000
통제적 양육행동	제한	1.000	.847			
	원칙 고수	1.319	.667	0.155	8.523	.000
-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	3.388		0.119	28.428	.000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구조모형의 χ^2는 152.85(df=47, p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NFI=.981, TLI=.978, CFI=.987, RMSEA=.037로 본 연구모형은 자료를 비교적 잘 설명하였다.

〈표 Ⅱ-2-3〉 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p	χ^2/df	*NFI*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측정모형	148.90	45	.000	3.309	.982	.978	.987	.038 (.031-.045)
연구모형	152.85	47	.000	3.252	.981	.978	.987	.037 (.031-.044)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β=.13, p <.001).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β=.29, p <.001), 통제적 양육행동(β=.12, p <.001),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β=.07, p <.01)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양육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β=-.16, p <.001). 즉 연구가설 3의 방향성을 제외한 전체 가설이 채택되었다.



주: 유의미한 경로는 실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기함.

〔그림 Ⅱ-2-3〕 최종모형 분석 결과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기술 사이에서 유의미한 간접 효과(β=.010, p <.05)를 보이며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표 Ⅱ-2-4〉 최종모형 분석 결과

경로			B	β	*S.E.*	*p*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	←	온정적 양육행동	1.277	.133	.259	.000
아동의 사회적 기술	←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	.022	.069	.008	.005
	←	온정적 양육행동	.919	.294	.127	.000
	←	통제적 양육행동	.533	.124	.130	.000
	←	양육 스트레스	-.478	-.160	-4.167	.000
양육 스트레스	↔	온정적 양육행동	-.160	-.634	.010	.000
양육 스트레스	↔	통제적 양육행동	.010	.057	.006	.065
온정적 양육행동	↔	통제적 양육행동	.031	.175	.006	.000

4. 논의 및 정책 제언

가.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 자료를 토대로 만6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증가는 온정적 양육행동의 감소와 관련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통제적 행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통제적 양육행동과 약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할수록 자녀와 함께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문화 인프라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어머니가 지역사회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는 빈도도 높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사회적 기술은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 인프라 이용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온정적 양육행동과 적절한 통제를 할수록, 그리고 문화 인프라를 빈번히 사용할수록 아동의 협력성, 자기통제, 주장성, 책임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이 증가하였다.

넷째,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는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정적 양육행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장난감 대여센터, 도서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문화 인프라 이용 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추가 분석으로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를 기준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기준으로 이용 빈도가 적은 집단과 많은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어머니의 연령, 가구의 소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통제적 양육 행동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가 빈번한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모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온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아동 가구의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아동 가구의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가구의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아동 가구의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의 매개효과가 비록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크지 않아서 가구의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 변수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을 설명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외생변인들이 많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가구의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놀이와 경험 중심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아동 가구의 문화 인프라 이용 빈도가 향후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종단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될 때, 보다 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나. 정책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자기를 조절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가 아이와 자주 상호작용하고 함께 있는 것을 즐기며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온정적 양육 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장간남 대여센터, 도서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화 인프라 이용 경험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 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더불어서 아동의 문화 인프라 이용 경험 빈도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협력성, 자기통제, 주장성, 책임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문화 인프라의 이용 빈도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화 인프라 체험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동이 학원이나 특기활동 등의 다소 구조화된 활동이 아닌 보다 자유롭고 덜 구조화된 형태의 문화적 인프라를 어머니와 함께 체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사회적 기술도 증진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상의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줄 때 온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예측 변인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 자존감, 효능감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엄지원, 2011; 이정림, 2011). 또한, 결혼만족도와 부부 갈등과 같은 부부관계의 질,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서적 지원과 같은 요인들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림,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1년에 개최되었던 한국아동패널 정책세미나에서 육아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방안으로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시행 및 보급이 제안된 바 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관계 증진 및 부부관계 결속을 위한 프로그램 방안 모색 및 확산을 제안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들이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문화 인프라 이용 경험 빈도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즉 부모가 아동과 함께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장난감 대여센터, 도서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이용

하면서, 관련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이용 순서 기다리기, 정숙하기, 아동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기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등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술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부모와 함께 문화 인프라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문화 인프라 확대도 필요하지만, 각 가정에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문화 인프라 이용을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에서의 문화 인프라 확장과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부모가 인근 도시에서의 문화 인프라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차량 연계를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의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장난감 대여센터, 도서관 같은 곳에서 영유아들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 구성 및 마련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영숙·박지숙(2014). **영국미술관 가족체험프로그램의 '소통'에 관한 사례.** 한국과학예술포럼.

곽소현·김순옥(2007).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곽아정·박현주·조화연(2009). 국공립박물관의 유아대상 교육 프로그램 현황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25-46.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 및 어머니 행동과 또래 수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3-28.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학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지현·정지나(2011). 유아의 위축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기술. **대한가정학회지, 49**(9), 15-24.

김혜금(201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지역사회 육아 지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1), 5-24.

노신애·진미정(201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미취학자녀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35-149.

류관열(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간의 관계. **아동교육, 21**(3), 231-240.

박서정·김순옥(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35-53.

박성연(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서영숙·김진숙(2005).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미술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6**(2), 135-147.

서혜전(2008). 박물관을 활용한 프로젝트접근법이 유아의 사고양식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153-175.

손영지·박성연(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인간발달연구, 18**(2), 125-144.

엄지원(2011). 한국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예측 변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영아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련 특성,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재언·진미정(2013). 가족친화 지역사회 요소가 생활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거주자의 가족생애주기 단계별 비교. **가족과 문화, 25**(3), 97-127.

이기숙·김순환·김민정(2010). 유아의 성, 연령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머니 양육유형과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0**(4), 187-212.

이석호·이주연(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련변인 연구: 양육행동의 하위영역별 비교. **한국보육학회지, 12**(1), 111-130.

이순형·민하영·권혜진·정윤주·한유진·최윤경·권기남(2011).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이윤진·이정원·구자연(2013).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인학·박지은·최성열(2010).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19**(4), 81-91.

이인학·최성열·송희원(20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2**(1), 69-81.

이정림(2011).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분석을 통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2011년 한국아동패널 정책세미나 자료집(2011-04), 3-30.

임준범·이예진·김신경(2014). **지역사회 양육환경 인식 특성에 따른 후속출산 영향력 분석. 한국아동패널 2014 심층분석연구.** 최윤경(편). pp.269-289. 육아정책연구소.

장성오·김용미(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발도르프교육연구, 3**(1), 91-111

전경화·이송은, 2008. 책 읽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한 도서대여활동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99**(1), 31-50.

정계숙·문혁준·김명애·김혜금·심희옥·안효진·양성은·이정희·이희선·정태회·제경숙·한세영(2013). **부모교육(개정판)**. 서울: 창지사.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Barbour, C., & Barbour, N. H. (2001).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Building partnerships for educating children*(2nd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edell, J. R., & Lennox, S. S. (1997). *Handbook for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Hoboken, NJ: John Wiley & Sons.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am*: Mannual. American Guidance Service.

Wolins, I. S. (1989). A Case for Family Programmes in Museums, In Butler, B. h. sussman, M. B.(Eds.), *Museum Visits and Activities for family life Enrichment*, London: The Haworth Press, Inc, pp. 7-1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송신영·이예진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1. 서론

인간이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유아기는 사회적 인간으로의 전반적인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유아는 자율성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범위를 확장해 나가며, 사회적 욕구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러한 발달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발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발달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유아기에 보이는 부적응 문제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체로 2세 때 정점을 보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Tremblay, 2000). 그러나 유아의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 특성, 또는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속되기도 하고(Stormont, Beckner, Mitchell & Richter, 2005), 청소년기에 이르러 일탈이나 비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Sourander & Helstela, 2005). 때문에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 진단과 중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그 노력은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경로를 밝히는 데에 집중되어 왔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과 관련 변인을 분석한 이순자·유순옥(2012)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 내적 요인은 기질, 성별 및 연령 등 유아 개인적 특성에 관한 요인이며, 개인 외적 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의 부모 양육 관련 특성과 부부 갈등이나 교수-유아 관계, 가정의 경제적 요인 등으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이 중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문제행동

뿐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오랜 기간 아동기 발달 결과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양육행동은 유아가 보이는 문제행동을 초기에 바로잡을 수 있는 변인으로도 주목받으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김연·한태숙·정인희·박연경·황혜정·구현아, 2006; Mackler, Kelleher, Shanahan, Calkins, Keane, & O'Brien. 2015). 양육스트레스 역시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밝혀져 왔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아동의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Abidin, 1990, 1992; Mackler et al., 2015) 때로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Anthony et al., 2005; Crnic et al., 2005).

양육스트레스는 지각된 양육 요구 정도와 이용 가능한 자원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발생으로(Deater-Deckard, 1998), 스트레스의 일종으로 본다면, 외부 사건 및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대처를 거쳐 나타나는 반응 스트레스 이론(Lazarus, 1993)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양육 요구도를 높이는 기제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양육행동 역시 아동의 기질이나 성별과 같은 아동 특성과 부모의 성격, 결혼만족도, 일 관련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Belsky, 1984)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동의 문제행동은 양육 대상 아동 특성으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이 두 변인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관련 특성의 관계를 다룬 대다수의 연구는 어머니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아동의 문제행동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특성에 미치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마저도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이영준·송원영·최의겸·신의진, 2003), 발달 지체를 가진 아동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비교연구(Baker, Blacher, Crnic, & Edelbrock, 2002) 등 임상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아동에의 적용은 무리가 있다.

최근 아동발달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아동과 타인과의 관계가 어느 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양방향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넘어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보적 인과관계(Sameroff, 2009)를 밝히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양방향적인 관계를 증명하

기 위해서는 동일 시점의 자료를 통한 분석으로도 가능하지만 상보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해야 함에 따라 종단자료가 필수적이다.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들의 교류적 관계에 대한 시도가 일부 이루어져 왔다. Neece 등(2012)의 연구에서는 3세부터 9세까지의 문제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두 변인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추후 양육행동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Mackler 등(2015)은 4세부터 10세까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부모로부터 아동에게 미치는 직접 모델, 아동으로부터 부모에게 미치는 직접 모델,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는 간접 모델, 시간의 흐름에 세 변인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는 교류관계 모델의 네 개 모형을 가정한 후 이 중 교류모델이 세 변인의 관계를 가장 적합하게 설명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ackler 등(2015)의 연구는 외현화 문제행동만을 다루어 내재화 문제행동은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강지현, 2008). 내재화 문제행동은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정서불안, 신체증상 등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오경자김영아, 2009) 행동문제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 상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에게서 조기에 발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재화된 문제행동의 경우 초기 수준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형태를 보이는 특성이 보고됨에 따라(강지현, 2008; Keiley et al., 2003) 초기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한편 영유아기에 보이는 문제행동은 4세 이후부터 성차를 보이기 시작해 발생 비율이나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Keenan, & Shaw, 1997). 이들은 언어 발달이나 인지적 특성, 공감 발달 등에서의 성차가 유아가 습득하는 적응 기술 등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부모의 양육기술 및 행동 등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발달 경로를 보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Keenan, & Shaw, 199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다룬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 수집한 유아기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 변인간의 교류적 관계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상보적 인과관계를 갖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는 성차가 존재하는가?

2.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5~7차년도(2012년~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태도 간의 교차된 지연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층화 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해 구축한 패널로, 대상 아동이 만 0세부터 매년 1회 조사되는 전국 단위의 데이터이다. 이 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유아가 만 4세~만 6세가 되는 조사 기간 중 1회 이상 조사에 참여한 1,7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 조사를 기준으로 대상 아동의 51.3%는 남아, 48.7%는 여아였으며, 첫째 및 외동이 45.9%, 둘째가 42.6%였다. 어머니는 평균 34.79세(*SD*=3.70)였으며, 43.5%가 4년제 이상의 대졸자였고, 26.8%가 초대졸자였으며, 어머니의 42.9%는 취업 또는 학업 중이었다. 분석 대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총 476.84만원(*SD*=453.87)이었고, 전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월평균 소비성 지출은 108.08만원(*SD*=65.25)였다.

나. 연구 도구

1)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머니가 보고한 CBCL 1.5-5(오경자·김영아, 2009)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100개의 문항에 대해 6개월 내에 유아가 그 행동을 보였는지를 판단하여 0~3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내용을 토대로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은 '내재화 문제(36문항)'로,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은 '외현화 문제(24문항)'로 계산된다.

2)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디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을 사용하였다(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된 총 11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만 4세~만 6세 모두 .88로 나타났다.

3) 온정적 양육 행동

온정적 양육행동은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의 도구를 바탕으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에 의해 자체 제작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와 같은 응답자의 양육 관련 행동에 대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되었다. 총 6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 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만 4세 .86, 만 5세 .85, 만 6세 .87로 나타났다.

다. 분석 방법

자료 분석에 앞서 자료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0.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패널 자료에서 발생하는 결측치를 보정하였

다. 본 자료의 결측치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변수를 종속변수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것에 의해 예측되는 값으로 대체하는 결측점에서의 선형추세(Linear trend at point)를 사용하였다. 연구 모형 설정에 앞서 잠재변인을 왜곡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잠재 변인을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로 제작해 사용하였다(서영석, 2010).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각 변인이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 순서에 따라 온정적 양육 행동은 2개의 문항 꾸러미로, 양육스트레스는 3개의 문항 꾸러미로 구성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CLM)을 설정하고,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시점에서 측정한 개념이 동일한 개념인지를 확인하는 측정 동일성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후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검증하는 경로 동일성, 각 변인이 가지는 관련성이 진정한 의미의 관련성인지 시간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오차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해야 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Ⅱ-3-1〉과 같이 경쟁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가 여아와 남아에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남아와 여아의 형태동일성을 확인한 후, 〈표 Ⅱ-3-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Ⅱ-3-1〉 경쟁 모형 설명

모형		설명
기저모형	모형 1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모형
측정 동일성	모형 2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3	온정적 양육행동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4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표 Ⅱ-3-1 계속)

모형		설명
경로 동일성 /구조 동일성	모형 5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자기회귀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 6	온정적 양육행동의 자기회귀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 7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 8	양육스트레스 → 온정적 양육행동의 교차지연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 9	양육스트레스 →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교차지연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 10	온정적 양육행동 →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교차지연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 11	온정적 양육행동 → 양육스트레스의 교차지연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 12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 양육스트레스의 교차지연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 13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 온정적 양육행동의 교차지연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오차 공분산 동일성	모형 14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의 공분산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 15	양육스트레스와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공분산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 16	온정적 양육행동과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공분산 동일화 제약 모형

3. 연구 결과

가.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측정시기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결과는 〈표 Ⅱ-3-2〉와 같다. 만 4세부터 만 6세까지의 유아의 문제행동은 일관되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적으로,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에서도 모두 일관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 ±2 미만, 첨도 ±7 미만으로(West, Finch, & Curran, 1995) 정상 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

〈표 Ⅱ-3-2〉 측정 변인간 상관 및 기술통계

		만 4세				만 5세				만 6세			
		1	2	3	4	1	2	3	4	1	2	3	4
만 4세	1. 내재화 문제행동	1											
	2. 외현화 문제행동	.71***	1										
	3. 양육스트레스	.28***	.31***	1									
	4. 온정적 양육행동	-.20***	-.26***	.56***	1								
만 5세	1. 내재화 문제행동	.54***	.41***	.25***	-.19***	1							
	2. 외현화 문제행동	.42***	.57***	.28***	-.26***	.74***	1						
	3. 양육스트레스	.29***	.31***	.65***	-.42***	.37***	.39***	1					
	4. 온정적 양육행동	-.18***	-.24***	.37***	.61***	-.21***	-.29***	-.45***	1				
만 6세	1. 내재화 문제행동	.48***	.39***	.25***	-.19***	.63***	.51***	.34***	-.19***	1			
	2. 외현화 문제행동	.36***	.51***	.28***	-.24***	.50***	.64***	.37***	-.25***	.79***	1		
	3. 양육스트레스	.25***	.28***	.60***	-.42***	.32***	.36***	.65***	-.37***	.38***	.43***	1	
	4. 온정적 양육행동	-.18***	-.21***	-.39***	.56***	-.24***	-.29***	-.42***	-.56***	-.28***	-.32***	-.56***	1
기술통계	M	8.38	7.74	2.73	3.66	7.04	6.06	2.63	3.69	5.79	4.84	2.54	3.66
	SD	6.30	5.72	.64	.53	6.22	5.47	.60	.52	6.45	5.66	.60	.51
	왜도	1.15	.78	.10	-.05	1.48	1.11	.14	-.14	1.11	1.04	.30	-.42
	첨도	1.93	.22	.12	.33	3.19	.92	.32	.54	1.77	1.26	.33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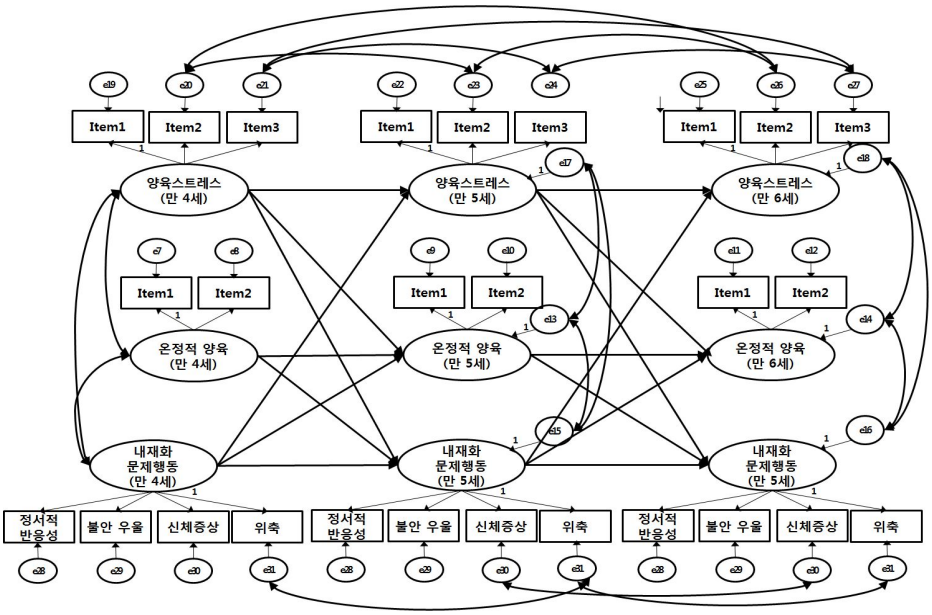
*** p 〈 .001.

나.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 검증

기저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χ^2=4184.677(df=297), TLI=.842, CFI=.866, RMSEA=.086으로 나타나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그림 Ⅱ-3-1]과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 모형의 적합도는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χ^2=1648.749(*df*=287), *TLI*=.943, *CFI*=.953, *RMSEA*=.052로 분석에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정 모형을 기저 모형으로 하여 각각의 16개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 간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모형 비교에는 χ^2 검증과 χ^2 검증이 표집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ΔCFI값을 사용하였다(Cheung & Rensvold, 2002).

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Ⅱ-3-3〉과 같이 측정동일성을 살펴본 모형 4, 경로 동일성을 살펴본 모형 5, 8, 11, 13, 공분산 동일성을 살펴본 모형 14, 15에서 $\Delta\chi^2$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TLI, RMSEA가 크게 나빠지지 않았으며, ΔCFI가 .01을 초과하지 않아 모형이 성립되었다(Cheung & Rensvold, 2002). 이에 모형 16을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II-3-1〕 내재화 문제행동 연구모형(기저모형)

〈표 II-3-3〉 내재화 문제행동의 측정 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df	ΔCFI
모형 1	4184.677	297	.842	.866	.086	-	-	-
모형 1-1	1648.749	287	.943	.953	.052	-	-	-
모형 2	1652.500	293	.944	.953	.051	3.751	6	.000
모형 3	1653.899	295	.944	.953	.051	1.399	2	.000
모형 4	1668.510	299	.945	.953	.051	14.611**	4	.000
모형 5	1675.653	300	.944	.953	.051	7.143***	1	.000
모형 6	1687.970	301	.944	.952	.051	12.317	1	.001
모형 7	1687.986	302	.944	.952	.051	0.016	1	.000
모형 8	1701.698	303	.944	.952	.051	13.712***	1	.000
모형 9	1704.379	304	.944	.952	.051	2.681	1	.000
모형 10	1704.631	305	.944	.952	.051	0.252	1	.000
모형 11	1712.477	306	.944	.951	.051	7.846**	1	.001
모형 12	1714.247	307	.945	.951	.051	1.770	1	.000
모형 13	1720.379	308	.944	.951	.051	6.132*	1	.000
모형 14	1727.569	309	.944	.951	.051	7.190**	1	.000
모형 15	1732.521	310	.944	.951	.051	4.952*	1	.000
모형 16	1733.378	311	.945	.951	.051	0.857	1	.000

* $p < .05$, ** $p < .01$, *** $p < .001$.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모형 16에서 구조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Ⅱ-3-4〉, [그림 Ⅱ-3-3]과 같다. 먼저 각 요인의 자기회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만 4세에서 만 5세(β=.680, p <.001), 만 5세에서 만 6세(β=.655, p <.001)으로 모든 시점에서 정적으로 유의했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도 만 4세에서 만 5세(β=.727, p <.001), 만 5세에서 만 6세(β=.710, p <.001)로 모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있어서도 만 4세에서 만 5세(β=.635, p <.001), 만 5세에서 만 6세(β=.648, p <.001)로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 각 요인은 이전 시점이 이후 시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나타나는 교차지연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β=.073, β=.068, p <.01) 나타냈으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β=.076, β=.079, p <.001), 온정적 양육행동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β=-.052, β=-.054, p <.001)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전 시점에서 유아가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온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영향을 미쳐, 이전 시점에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이후 시점에서 유아가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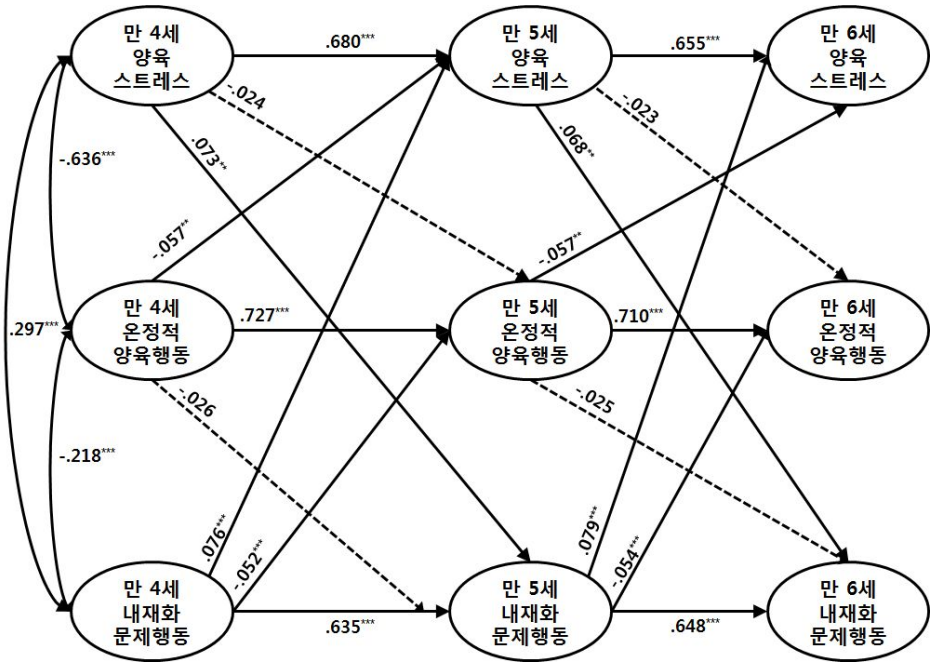
〈표 Ⅱ-3-4〉 측정모형 분석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

구분			*B*	β	*S.E.*	*C.R.*
양육스트레스(만 4세)	→	양육스트레스(만 5세)	.644	.680	.020	31.584***
온정적 양육(만 4세)	→	온정적 양육(만 5세)	.708	.727	.021	32.979***
내재화 문제(만 4세)	→	내재화 문제(만 5세)	.652	.635	.016	40.395***
양육스트레스(만 4세)	→	온정적 양육(만 5세)	-.017	-.024	.016	-1.068
온정적 양육(만 4세)	→	내재화 문제(만 5세)	-.061	-.026	.050	-1.220
양육스트레스(만 4세)	→	내재화 문제(만 5세)	.123	.073	.038	3.273**

(표 Ⅱ-3-4 계속)

구분			*B*	*β*	*S.E.*	*C.R.*
내재화 문제(만 4세)	→	온정적 양육(만 5세)	-.022	-.052	.007	-3.417***
내재화 문제(만 4세)	→	양육스트레스(만 5세)	.044	.076	.008	5.178***
온정적 양육(만 4세)	→	양육스트레스(만 5세)	-.075	-.057	.026	-2.833**
양육스트레스(만 5세)	→	양육스트레스(만 6세)	.644	.655	.020	31.584***
온정적 양육(만 5세)	→	온정적 양육(만 6세)	.708	.710	.021	32.979***
내재화 문제(만 5세)	→	내재화 문제(만 6세)	.652	.648	.016	40.395***
양육스트레스(만 5세)	→	온정적 양육(만 6세)	-.017	-.023	.016	-1.068
양육스트레스(만 5세)	→	내재화 문제(만 6세)	.123	.068	.038	3.273**
온정적 양육(만 5세)	→	내재화 문제(만 6세)	-.061	-.025	.050	-1.220
내재화 문제(만 5세)	→	온정적 양육(만 6세)	-.022	-.054	.007	-3.417***
내재화 문제(만 5세)	→	양육스트레스(만 6세)	.044	.079	.008	5.178***
온정적 양육(만 5세)	→	양육스트레스(만 6세)	-.075	-.057	.026	-2.83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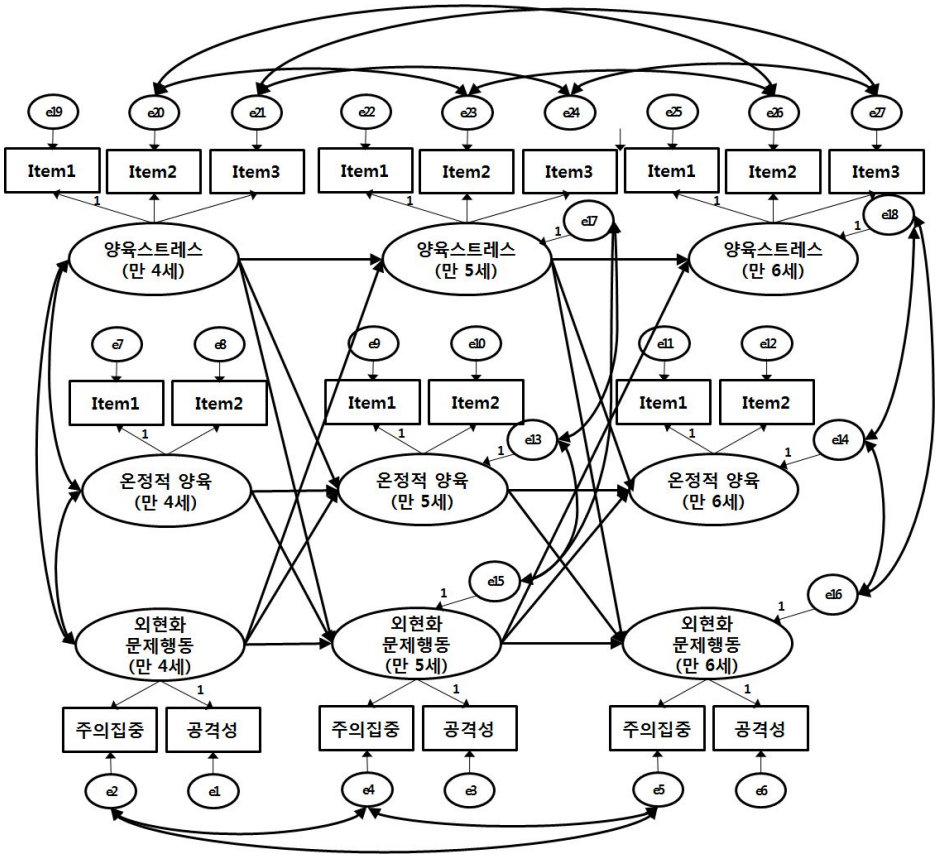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Ⅱ-3-2〕 내재화 문제행동 최종모형 분석 결과

다. 외현화 문제행동 모형 검증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χ^2=3044.477(*df*=162), *TLI*=.827, *CFI*=.867, *RMSEA*=1.000으로 나타나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그림 Ⅱ-3-2]와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다.



〔그림 Ⅱ-3-3〕 외현화 문제행동 연구모형(기저모형)

수정 모형의 적합도는 χ^2=959.173(*df*=153), *TLI*=.949, *CFI*=.963, *RMSEA*=.054로 분석에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정 모형을 기저 모형으로 하여 각각의 16개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 간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모형 비교에는 χ^2 검증과 χ^2 검증이 표집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ΔCFI값을 사용하였다(Cheung & Rensvold, 2002).

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Ⅱ-3-5〉에서와 같이 측정동일성을 살펴본 모형 2, 4, 경로 동일성을 살펴본 모형 6, 8, 9, 11, 공분산 동일성을 살펴본 모형 14에서 $\Delta\chi^2$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TLI, RMSEA가 크게 나빠지지 않았으며, ΔCFI가 .01을 초과하지 않아 모형이 성립되었다(Cheung & Rensvold, 2002). 이에 모형 16을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Ⅱ-3-5〉 외현화 문제행동의 측정 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df*	*ΔCFI*
모형 1	3044.477	162	.827	.867	1.000	-	-	-
모형 1-1	959.173	153	.949	.963	.054	-	-	-
모형 2	967.480	155	.949	.962	.054	8.307*	2	.001
모형 3	968.771	157	.950	.962	.054	1.291	2	.000
모형 4	983.498	161	.950	.962	.054	14.727**	4	.000
모형 5	985.483	162	.951	.962	.053	1.985	1	.000
모형 6	997.492	163	.950	.961	.054	12.009**	1	.001
모형 7	997.723	164	.951	.961	.054	0.231	1	.000
모형 8	1015.561	165	.950	.961	.054	17.838***	1	.000
모형 9	1019.985	166	.950	.960	.054	4.424*	1	.001
모형 10	1020.634	167	.950	.960	.054	0.649	1	.000
모형 11	1025.759	168	.950	.960	.054	5.125*	1	.000
모형 12	1025.790	169	.951	.960	.053	0.031	1	.000
모형 13	1026.583	170	.951	.960	.053	0.793	1	.000
모형 14	1033.963	171	.951	.960	.053	7.38**	1	.000
모형 15	1035.411	172	.951	.960	.053	1.448	1	.000
모형 16	1035.571	173	.952	.960	.053	0.16	1	.000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각 요인의 자기회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만 4세에서 만 5세(β=.675, p <.001), 만 5세에서 만 6세(β=.654, p <.001)으로 모든 시점에서 정적으로 유의했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도 만 4세에서 만 5세(β=.720, p <.001), 만 5세에서 만 6세(β=.700, p <.001)로 모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도 만 4세에서 만 5세(β=.641, p <.001), 만 5세에서 만 6세(β=.657, p <.001)로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 각 요인은 이전 시점이 이후 시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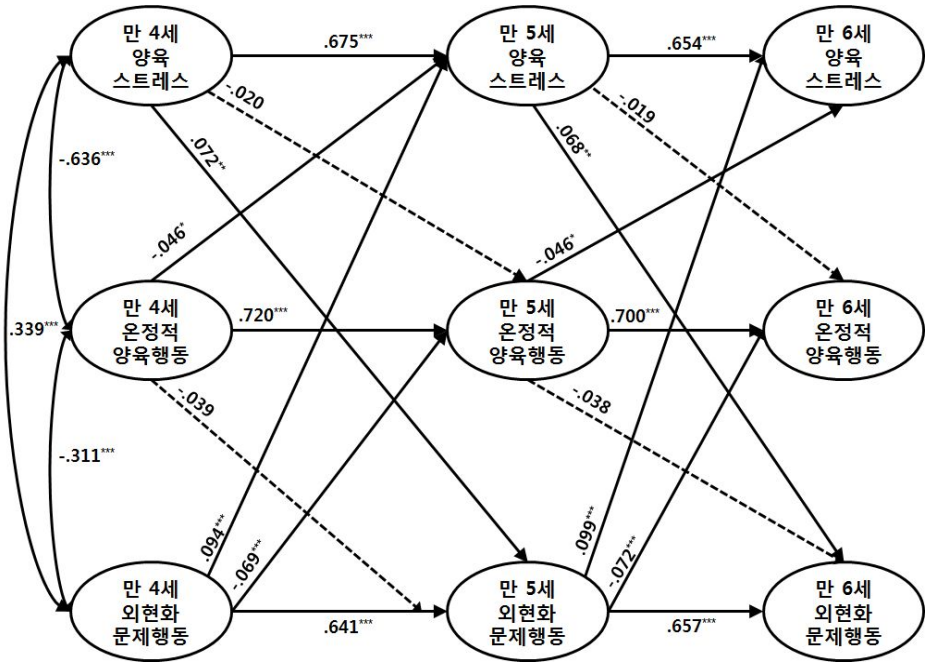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에 나타나는 교차지연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β=.072, β=.068, p <.01) 나타냈으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β=.094, β=.099, p <.001), 온정적 양육행동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β=-.069, β=-.072, p <.001)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전 시점에서 유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온정적 양육행동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영향을 미쳐, 이전 시점에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이후 시점에서 유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Ⅱ-3-6〉 측정모형 분석 결과: 외현화 문제행동

구분			*B*	*β*	*S.E.*	*C.R.*
양육스트레스(만 4세)	→	양육스트레스(만 5세)	.641	.675	.020	31.664***
온정적 양육(만 4세)	→	온정적 양육(만 5세)	.699	.720	.022	32.428***
외현화 문제(만 4세)	→	외현화 문제(만 5세)	.661	.641	.019	34.090***
양육스트레스(만 4세)	→	온정적 양육(만 5세)	-.014	-.020	.015	-.907
온정적 양육(만 4세)	→	외현화 문제(만 5세)	-.334	-.039	.183	-1.830
양육스트레스(만 4세)	→	외현화 문제(만 5세)	.443	.072	.136	3.249**
외현화 문제(만 4세)	→	온정적 양육(만 5세)	-.008	-.069	.002	-4.367***
외현화 문제(만 4세)	→	양육스트레스(만 5세)	.015	.094	.002	6.179***
온정적 양육(만 4세)	→	양육스트레스(만 5세)	-.061	-.046	.027	-2.299*
양육스트레스(만 5세)	→	양육스트레스(만 6세)	.641	.654	.020	31.664***
온정적 양육(만 5세)	→	온정적 양육(만 6세)	.699	.700	.022	32.428***
외현화 문제(만 5세)	→	외현화 문제(만 6세)	.661	.657	.019	34.090***
양육스트레스(만 5세)	→	온정적 양육(만 6세)	-.014	-.019	.015	-.907
양육스트레스(만 5세)	→	외현화 문제(만 6세)	.443	.068	.136	3.249**
온정적 양육(만 5세)	→	외현화 문제(만 6세)	-.334	-.038	.183	-1.830
외현화 문제(만 5세)	→	온정적 양육(만 6세)	-.008	-.072	.002	-4.367***
외현화 문제(만 5세)	→	양육스트레스(만 6세)	.015	.099	.002	6.179***
온정적 양육(만 5세)	→	양육스트레스(만 6세)	-.061	-.046	.027	-2.299*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Ⅱ-3-4］ 외현화 문제행동 최종모형 분석 결과

라. 성별에 따른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전 최종 모형으로 선택된 모형 16이 여아와 남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태 동일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Ⅱ-3-7〉과 같다. 모형 16을 남아와 여아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남아와 여아 모두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아와 여아 두 집단에서 형태 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3-7〉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

구분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χ^2	*df*	*TLI*	*CFI*	*RMSEA*	χ^2	*df*	*TLI*	*CFI*	*RMSEA*
남아	1028.863	287	.939	.951	.053	604.928	153	.945	.960	.057
여아	955.413	287	.942	.953	.052	517.322	153	.951	.964	.052

남녀 두 집단에 대한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표 Ⅱ-3-1〉의 절차에 따라 다집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18개의 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비교 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의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χ^2 검증과 χ^2검증이 표집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ΔCFI 값을 사용하였다(Cheung & Rensvold, 2002).

〈표 Ⅱ-3-8〉 ACLM 다집단 분석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

구분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df	ΔCFI
모형 1	1984.275	574	.941	.951	.037	-	-	-
모형 2	1998.970	586	.942	.951	.037	14.695	12	.000
모형 3	2000.785	590	.942	.951	.037	1.815	4	.000
모형 4	2020.017	598	.943	.951	.037	19.232*	8	.000
모형 5	2029.054	600	.942	.951	.037	9.037*	2	.000
모형 6	2047.136	602	.942	.951	.037	18.082***	2	.001
모형 7	2047.329	604	.942	.950	.037	0.193	2	.000
모형 8	2054.404	606	.942	.950	.037	7.075*	2	.000
모형 9	2058.685	608	.942	.950	.037	4.281	2	.000
모형 10	2062.999	610	.942	.950	.037	4.314	2	.000
모형 11	2072.691	612	.942	.950	.037	9.692**	2	.000
모형 12	2075.178	614	.942	.950	.037	2.487	2	.000
모형 13	2077.899	616	.943	.950	.037	2.721	2	.000
모형 14	2085.623	618	.943	.950	.037	7.724*	2	.000
모형 15	2091.154	620	.943	.949	.037	5.531	2	.000
모형 16	2091.989	622	.943	.949	.036	0.835	2	.000

* p 〈 .05, ** p 〈 .01, *** p 〈 .001.

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Ⅱ-3-8〉, 〈표 Ⅱ-3-9〉와 같다. 모형 비교 시 일부 모형에서 $\Delta\chi^2$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TLI, RMSEA가 크게 나빠지지 않았으며, ΔCFI가 .01을 초과하지 않아 모형 16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모형 16에 의하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자기회귀효과와 교차지연효과 모두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9〉 ACLM 다집단 분석 결과: 외현화 문제행동

구분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df	ΔCFI
모형 1	1707.280	312	.913	.935	.050	-	-	-
모형 2	1715.056	316	.914	.935	.050	7.776	4	.000
모형 3	1716.596	320	.915	.935	.050	1.540	4	.000
모형 4	1732.143	328	.916	.934	.049	15.547*	8	.000
모형 5	1741.580	330	.917	.934	.049	9.437**	2	.001
모형 6	1757.767	332	.916	.934	.049	16.187***	2	.000
모형 7	1759.261	334	.917	.934	.049	1.494	2	.000
모형 8	1766.485	336	.917	.934	.049	7.224*	2	.000
모형 9	1772.113	338	.917	.934	.049	5.620	2	.001
모형 10	1773.897	340	.918	.933	.049	1.784	2	.000
모형 11	1779.826	342	.918	.933	.049	5.929	2	.000
모형 12	1779.986	344	.919	.933	.049	0.160	2	.000
모형 13	1787.311	346	.919	.933	.048	7.325*	2	.000
모형 14	1792.756	348	.919	.933	.048	5.445	2	.000
모형 15	1801.545	350	.919	.933	.048	8.789*	2	.000
모형 16	1803.512	352	.920	.933	.048	1.967	2	.000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및 논의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각각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으나, 어느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는 단일 방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 세 변인간의 양방향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횡단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시간상의 선후관계를 고려한 정확한 의미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종단자료를 이용해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지만 양육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만을 보거나, 외현화 문제행동만을 포함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3년에 걸친 종단자료를 분석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한 한국아동패널 5~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유아 초기의 문제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면 이러한 경향이 5세, 6세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양육행동 또한 초기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Mackler 등(2015)이 4세에서 10세까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들 세 변인의 자기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유아기 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자기회귀계수가 유아의 문제행동 내 자기회귀계수에 비해 작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대적인 위치가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문제행동이 다른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상보적 인과관계에 있으며 이는 4세에서 6세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문제행동은 이후 시기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 이는 다시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육스트레스와 문제행동 간의 상호 교차지연 효과를 밝힌 선행연구 결과(Mackler et al., 2015; Neece et al., 2012)를 지지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유아의 문제행동이 양육스트레스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가 반대 방향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자의 대처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워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교차지연 효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에서 이후 시기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이 이후 시기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온정성을 떨어뜨리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이후 시기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같은 시기의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교차지연 효과 역시 양육행동이 이후 시기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이후 시기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Abidin, 1990; Belsky, 1984)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그 영향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이후 시기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스트레스가 대처 전략에 따라 나타난다는 점(Lazarus, 1993)에서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행동을 한다고 인식한다면 대처 전략으로 작용하여 부모됨에 대한 요구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인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하며, 반대로 양육행동의 온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우선 유아의 문제행동 평정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을 모두 어머니가 응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이다. 응답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주관적 인식 정도가 달라지므로 문제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가 과대추정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아동에 대한 기대가 크거나 아동의 행위에 예민할 경우, 객관적인 문제행동 수준과 관계없이 문제행동 수준을 높게 평정하고 양육스트레스 또한 높게 보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양육자가 실제로 자신이 제공하는 양육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도 해석 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패널 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결측과 이에 대한 보정으로 인한 한계이다. 본 연구는 만 4세~만 6세가 되는 조사 기간 중 1회 이상 조사에 참여한 1,777명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보정을 실시하였으므로, 해석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밝혔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관련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다시 아동의 문제행동 악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혀냈다.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 시 대상 유아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향후 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지현(2009). **유아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유아기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연·한태숙·정인희·박연경·황혜정·구현아(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29-250.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오경자·김영아(2009). **CBCL 1.5-5 매뉴얼 개정판**. 서울: 휴노컨설팅.

이순자·유순옥(2012).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유아 문제행동 관련 변인 분석-국내학회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6), 127-156.

이영준·송원영·최의겸·신의진(2003).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와 어머니의 우울증,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4**(2), 218-228.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Baker, B. L., Blacher, J., Crnic, K. A., & Edelbrock, C. (2002). Behavior problems and parenting stress in families of three-year-old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Journal Information, 107*(6), 433-444.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7-132.

Deater 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Keenan, K., & Shaw, D. (1997). Developmental and social influences on young girls' early problem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1*(1), 95.

Keiley, M. K.,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0). A cross-domain growth analysi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during 8 years of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61-179.

Mackler, J. S., Kelleher, R. T., Shanahan, L., Calkins, S. D., Keane, S. P., & O'Brien, M. (2015). Parenting stress, parental reactions, and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s 4 to 10.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2), 388-406.

Neece, C. L., Green, S. A., & Baker, B. L. (2012). Parenting stres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 transactional relationship across time. *American Journal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17*(1), 48-66.

Lazarus, R. S. (1993).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emotion: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21.

Rothermel, C. R. (2007). *Differentiating the Role of Parenting Stress With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Mediational and Bi-directional Model* (Doctoral dissertation, Lehigh University).

Sameroff, A. (2010). A unified theory of development: A dialectic integration of nature and nurture. *Child Development, 81*, 6-22.

Sourander, A., & Helstelä, L. (2005). Childhood predictor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4*(8), 415-423.

Stormont, M., Beckner, R., Mitchell, B., & Richter, M. (2005). Supporting successful transition to kindergarten: General challenges and specific implications for students with problem behavior. *Psychology in the Schools, 42*(8), 765-778.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29- 141.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5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CA.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김진미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1. 서론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는 아동의 학급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 및 인지적 발달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Parker, Baok, Griffin, Peay & Ripple, 1999). 이는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긍정적인 아동발달을 이끌 수 있으며(박연정·정옥분, 2010), 유아의 성공적인 초등학교 생활전반의 적응과 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Cho & Ahn, 2015). 학교준비도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에서 이들을 구성하는 측정요인들은 연구자마다 상이한데, Cho & Ahn(2015)은 학교준비도를 신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지식, 기능, 적응, 성향, 태도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지성애·정대현·정효은·안지송·박은영(2006)은 학교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지식, 적응, 기능, 성향, 규칙 등 5가지로 살펴보았다. 또한, 성미영·장영은·이강이·손승희(2010)는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3가지 하위영역(어휘능력, 읽기능력, 산수과제 성취도)으로 구성하였으며, 임정진·김유정·조수원·안선희(2012)는 학교준비도의 개념을 4가지 영역(학습관련 기술, 사회적 행동, 이야기 이해력, 소근육 운동능력)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처럼, 학교준비도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해서 학자마다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학교준비도가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학습경험으로 이어지는 개인적 자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임정진 외, 2012: 296).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특성(성, 기질)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부모 양육태도 등과 관련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박연정·정옥분, 2010; 성미영·장영은·이강이·손승희, 2010; 이수현·황혜정, 2014;

전은옥·최나야, 2015; 조성연, 2002, 2010; Brooks-Gunn & Markman, 2005; Chazan-Cohen et al., 2009; Cho & Ahn; 2015, Lee, 2002; Parker et al., 1999; Ramey & Ramey, 2004; Raver, 2003). 먼저 유아의 개인적 특성의 경우, 유아의 창의적 특성과 기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박연정·정옥분, 2010; 조성연, 2010) 나타난 반면, 성별의 경우 일관되지 않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박연정·정옥분, 2010; 이수현·황혜정, 2014; 전은옥·최나야, 2015)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조성연, 2002, 2010)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관련,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학교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인다(박연정·정옥분, 2010; 이수현·황혜정, 2014; 전은옥·최나야, 2015; 조성연, 2010; Ramey & Ramey, 2004). 이외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참여와 행동, 신념과 지원 등이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인다고 보고된다(박연정·정옥분; 2010; 성미영 외, 2010; Brooks-Gunn & Markman, 2005; Cho & Ahn, 2015; Chazan-Cohen et al., 2009; Parker et al., 1999).

한편, 유아기는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 등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로 적응상의 문제가 나타나기 쉽지만, 상당수가 일시적이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반면, 몇몇의 경우에는 유아기의 심리적 적응문제가 학령기 이후까지 나타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강지현·오경자, 2009). 즉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발생초기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빈도는 증가하고, 학령기로 지속될 경향이 높으며(Stormont, Beckner, Mitchell & Richter, 2005), 이후 청소년기의 일탈이나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Sourander & Helstela, 2005)는 점에서 유아 문제행동의 조기 개입이 요구된다(Khaleque & Rohner, 2002; 홍현재·문혁준, 2013:246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이 학령기로 진입하면서 학교 부적응 등 이후 다양한 행동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공영숙·이지영, 2013; 김혜진·김영아·이진·오경자, 2009; 우수경, 2007; 조미영·정미경·김영희, 2010).

Lee(2002)는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통해 영아, 유아기, 초등시기의 정서, 행동적 문제가 1학년의 학습준비도(School readiness)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세 시기 모두 정서·행동적 문제가 학습준비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Raver(2003)는 아동의 학업준비도(academic preparedness)에 대한 종단연구를 고찰하며, 아동의 정서·사회

적 문제가 학교준비도와 초기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학령 전 유아기의 정서·사회적 문제가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이후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수준에서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문제행동 및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규명을 통해 가정 및 기관 내에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요인, 모의 양육행동과 함께 문제행동이 내재화와 외현화 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행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취학 전 유아의 학습준비도[4]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가구의 사회경제적 요인, 모의 양육행동, 인지발달, 문제행동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15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을 둘러싼 아동 특성, 가구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 등에 대해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2014년 표본수는 1,620가구로, 전년도 대비 유지율 97.5%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가구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 외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7차년도(2014)에 기관용 설문

4) 취학 전 유아의 입학 준비수준을 측정하는 검사는 크게 학습준비도와 학교준비도로 나눌 수 있는데, 학습준비도가 학습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의미하는 반면, 학교준비도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업이나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의 보다 광의적인 개념을 갖는다(방소영·황혜정, 20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준비도(School Readiness)는 Murphey와 Burns(2002)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한 자료로(최윤경·배윤진·송신영·임준범·이예진·김소아·김신경, 2014: 45), 사회정서 발달(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8문항), 의사소통(3문항),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사용한 용어를 사용하여, 학습준비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에 응답한 교사는 총 1,203명으로, 이들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대해 평정한 자료를 사용한다.

나. 변수 설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문제행동과 모의 양육행동, 인지발달, 월가구소득은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외 부모 학력은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변수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학습준비도

학습준비도(School Readiness)는 Murphey와 Burns(2002)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최윤경 외, 2014: 45). 학습준비도는 부모와 교사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교사의 평정 점수를 사용하였다. 학습준비도는 총 22문항으로 사회정서 발달(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8문항), 의사소통(3문항),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정서 발달은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 기술을 사용한다.' '양육자와 쉽게 떨어진다.' '감정의 변화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하루일과 변화에 잘 적응한다.' '교사 등 어른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로 이들 문항에 대한 Cronbach α는 .75이다. 학습에 대한 태도는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15분 정도 지속한다.' '수업 활동에 열정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교사가 주도하는 집단 활동에 집중한다.' '언제/어떻게 어른을 자원으로 활용할지를 안다.' '교실 등의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먼저 시작한다.' '호기심이 많다.' 총 8문항으로 Cronbach α는 .86이다. 한편, 의사소통은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간단한 지시, 요청, 정보를 이해한다.' '대화에 참여한다.'로 구성되며,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은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 '활동을 기억하고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인쇄된 자신의 이름을 알아본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연필, 크레파스, 붓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상놀이를 한다.'

로 이들의 Cronbach α는 각 .85, .81이다.

2)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의 경우,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Preschool 1.5-5)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표준화 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1.5-5: CBCL 1.5-5)로 측정하였다. 내재화 문제(36문항)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으로 구성되며, 외현화 문제(24문항)는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값(0=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을 합산한 점수를 활용하였다.

3) 인지발달

유아의 언어 발달은 이종숙 외(2008)의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 중 인지를 측정하는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인지 영역은 지각(예; 균형 잡힌 사람을 그린다), 기억(예; 과거의 일을 네 가지 정도 기억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아니오'는 0점, '예'는 1점으로 점수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합산 점수를 활용하였다. 6차년도(2013)의 Cronbach α는 .77이다.

4) 모의 양육 행동

모의 양육행동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구성된다.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을 바탕으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된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은 각 6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합산 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등의 문항으로, 통제적 양육행동은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6차년도(2013)의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Cronbach α는 각 .85, .76이다.

5) 가구 사회경제적 지위

모학력과 부학력은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전문대=5, 대학교=6, 대학원 석사=7, 대학원 박사=8의 응답 값을 고교졸업 이하=12, 대학졸업=16, 대학원졸업=18의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편포의 문제를 고려하여 자연로그 값을 취한 후 사용하였다.

다. 기술통계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준비도의 네 가지 하위 변인 중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이 3.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소통(3.52), 사회·정서발달(3.51)순이었다. 문제행동의 경우, 내재화 하위변인 중 불안·우울(2.58)이 가장 높았으며, 외현화 하위변인에서는 공격성이 평균 5.22점으로 높았다.

한편,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중요한 가정은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상분포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시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Curran et al.(1996)은 왜도>절대값 2, 첨도>절대값 7일 경우 단변량 분포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송태민·김계수(2012)는 왜도<3, 첨도<10이하면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아래 <표 Ⅱ-4-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변인들은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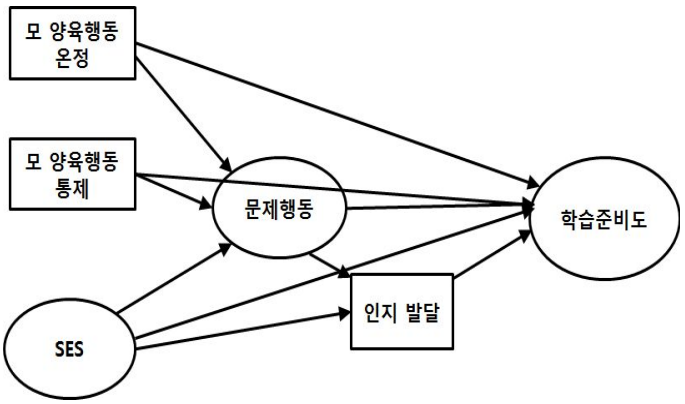
〈표 Ⅱ-4-1〉 기술통계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차수
학습준비도						
사회·정서발달		3.51	0.43	-1.01	0.89	7차
학습에 대한 태도		3.37	0.52	-0.85	0.51	7차
의사소통		3.52	0.54	-1.01	0.65	7차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3.64	0.41	-1.59	4.06	7차
문제행동						
내재화	정서적 반응성	1.84	2.14	1.76	4.41	6차
	불안·우울	2.58	2.16	1.06	1.53	6차
	신체증상	1.44	1.67	1.74	4.41	6차
	위축	1.48	1.70	1.50	2.40	6차
외현화	주의집중	1.11	1.39	1.43	2.04	6차
	공격성	5.22	4.59	1.05	0.76	6차
인지발달		10.57	2.54	-1.20	1.22	6차
모양육태도						
온정적		3.68	0.54	-0.07	0.26	6차
통제적		3.50	0.51	-0.11	0.28	6차
SES						
모학력		14.29	1.86	0.13	-1.13	1차
부학력		14.64	1.99	-0.06	-1.21	1차
월가구소득(로그)		5.98	0.44	-0.07	1.73	6차

라.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과 SPSS AMO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SS 21 프로그램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 SPSS AMO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FIML(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χ^2, NFI, TLI, CFI, RMSEA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χ^2 차이검증은 표본 수나 비정규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수에 덜 민감한 CFI, TLI, RMSEA 지수를 바탕으로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Ⅱ-4-1〕 연구모형

3. 연구 결과

가. 상관관계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Ⅱ-4-2〉와 같다. 학습준비도의 하위 영역간의 상관이 높았으며, 문제행동 영역간의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문제행동과 학습준비도 간의 상관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표 Ⅱ-4-2〉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695***	.609***	.514***	-.086**	-.087**	-.042	-.136***	-.142***	-.153***	.207***	.029	.051	-.045	.044	.022
2	.695***	1	.712***	.672***	-.086**	-.079**	-.066*	-.174***	-.219***	-.167***	.296***	.046	.030	.018	.076*	.044
3	.609***	.712***	1	.704***	-.090**	-.081**	-.056	-.186***	-.169***	-.142***	.285***	.044	.073*	.046	.070*	.070*
4	.514***	.672***	.704***	1	-.087**	-.066*	-.041	-.164***	-.199***	-.153***	.280***	.044	.049	.049	.089**	.091**
5	-.086**	-.086**	-.090**	-.087**	1	.732***	.496***	.575***	.472***	.683***	-.072*	-.163***	.055*	.024	.019	-.063*
6	-.087**	-.079**	-.081**	-.066*	.732***	1	.465***	.589***	.481***	.628***	-.010	-.165***	.033	.050*	.042	-.066**
7	-.042	-.066*	-.056	-.041	.496***	.465***	1	.406***	.334***	.428***	-.032	-.105***	.023	-.018	-.008	-.085**
8	-.136***	-.174***	-.186***	-.164***	.575***	.589***	.406***	1	.441***	.527***	-.118***	-.214***	-.073**	-.013	-.010	-.102***
9	-.142***	-.219***	-.169***	-.199***	.472***	.481***	.334***	.441***	1	.585***	-.179***	-.230***	-.014	-.096***	-.114***	-.133***
10	-.153***	-.167***	-.142***	-.153***	.683***	.628***	.428***	.527***	.585***	1	-.120***	-.266***	.028	-.004	-.041	-.064*
11	.207***	.296***	.285***	.280***	-.072*	-.010	-.032	-.118***	-.179***	-.120***	1	.020	.031	.048	.071*	.036
12	.029	.046	.044	.044	-.163***	-.165***	-.105***	-.214***	-.230***	-.266***	.020	1	.216***	.140***	.150***	.122***
13	.051	.030	.073*	.049	.055*	.033	.023	-.073**	-.014	.028	.031	.216***	1	.064*	.068**	-.021
14	-.045	.018	.046	.049	.024	.050*	-.018	-.013	-.096***	-.004	.048	.140***	.064*	1	.553***	.337***
15	.044	.076*	.070*	.089**	.019	.042	-.008	-.010	-.114***	-.041	.071*	.150***	.068**	.553***	1	.275***
16	.022	.044	.070*	.091**	-.063*	-.066**	-.085**	-.102***	-.133***	-.064*	.036	.122***	-.021	.337***	.275***	1

주: 1= 사회·정서발달 2=학습에 대한 태도 3=의사소통 4=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5=정서적 반응성 6=불안·우울 7=신체증상 8=위축 9=주의집중 10=공격성 11=인지발달 12=모 온정적 양육태도 13=모 통제적 양육태도 14=모학력 15=부학력 16=월가구소득_로그

* p 〈 .05, ** p 〈 .01, *** p 〈 .001.

나. 측정모형의 추정결과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Ⅱ-4-3〉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측정변수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각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4-3〉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측정변수	내재화			외현화		
	SES	내재화 문제행동	학습 준비도	SES	외현화 문제행동	학습 준비도
월가구소득	1.000			1.000		
부학력	7.382(.534)***			7.394(.531)***		
모학력	8.021(.654)***			7.712(.599)***		
정서적반응성		1.000				
불안·우울		1.001(.028)***				
신체증상		.515(.022)***				
위축		.634(.022)***				
주의집중					1.000	
공격성					2.092(.297)***	
사회·정서 발달			1.000			1.000
학습에 대한 태도			1.396(.048)***			1.401(.048)***
의사소통			1.419(.050)***			1.415(.050)***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990(.037)***			.991(.037)***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임.
*** p 〈 .001.

다.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문제행동의 특성(내재화 및 외현화)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내재화

본 연구에서 가구 사회경제적 변인 및 모 양육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인지발

달을 포함하여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다음 〈표 Ⅱ-4-4〉와 같다. χ^2 차이검증 및 CFI, TLI, RMSEA 지수를 바탕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Hu & Bentler(1999)는 CFI, TLI가 .95이상, RMSEA는 .06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보았으며, 홍세희(2000)에 따르면 NFI, CFI, TLI가 .90이상이며, RMSEA값이 .80이하일 경우 양호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기준에 비추어 RMSEA값은 .08이하, TLI와 CFI값이 .90이상으로,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Ⅱ-4-4〉 모형 적합도

χ^2	df	χ^2/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266.296	67	3.975	.953	.970	.037 (.033~.042)

변인간의 경로계수를 보면 먼저,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부적으로(β=-.235, p 〈.001) 영향을 주는 반면, 통제적 양육태도는 정적인(β=.076, p 〈.01) 영향을 주었다. 한편 아동의 인지발달에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β=.083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β=-.069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학습준비도에는 내재화 문제행동(β=-.123, p 〈.001), 인지발달(β=.322, p 〈.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5〉 모형의 모수추정치

			b	β	S.E.	C.R.	*p*
모양육행동_온정	→	내재화 문제행동	-.797	-.235	.094	-8.499	***
모양육행동_통제	→		.276	.076	.097	2.844	.004
SES	→		.508	.052	.308	1.651	.099
내재화 문제행동	→	인지발달	-.096	-.069	.042	-2.262	.024
SES	→		1.126	.083	.457	2.466	.014
모양육행동_온정	→	학습준비도	-.005	-.009	.019	-.277	.782
모양육행동_통제	→		.033	.052	.019	1.728	.084
SES	→		.099	.058	.061	1.624	.104
내재화 문제행동	→		-.022	-.123	.006	-3.777	***
인지발달	→		.041	.322	.004	9.867	***

*** p 〈 .001.

한편, 구조모형에 대한 전체효과와 직·간접효과는 다음 〈표 Ⅱ-4-6〉과 같다. 가정의 SES, 모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은 인지발달과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내재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인지발달과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인지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후 학습준비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표 Ⅱ-4-6>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추정변수	전체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b	β	b	β	b	β	
SES	.508*	.052	.508*	.052			내재화 문제행동
	1.078**	.080	1.126**	.083	-.049**	-.004	인지발달
	.132**	.077	.099*	.058	.033**	.019	학습준비도
모 온정적 양육행동	-.797**	-.235	-.797**	-.235			내재화 문제행동
	.076**	.016			.076**	.016	인지발달
	.015	.025	-.005	-.009	.020**	.034	학습준비도
모 통제적 양육행동	.276**	.076	.276**	.076			내재화 문제행동
	-.026**	-.005			-.026**	-.005	인지발달
	.026	.041	.033*	.052	-.007**	-.011	학습준비도
내재화 문제행동	-.096**	-.069	-.096**	-.069			인지발달
	-.025**	-.146	-.022**	-.123	-.004**	-.022	학습준비도
인지발달	.041**	.322	.041**	.322			학습준비도

주: 효과의 유의수준은 신뢰수준 95% 구간에서 bootstapping 추정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외현화

가정의 SES, 모 양육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인지발달을 포함하여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다음 <표 Ⅱ-4-7>과 같다. RMSEA값은 .08이하, TLI와 CFI값이 .90이상으로,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표 Ⅱ-4-7〉 모형 적합도

χ^2	df	χ^2/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197.922	44	4.498	.943	.968	.040 (.035~.046)

변인간의 경로계수를 보면 먼저,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으로(β=-.324, p 〈.001) 영향을 주는 반면, 통제적 양육태도는 정적인(β=.083, p 〈.01) 영향을 주었다. 한편 아동의 인지발달에는 외현화 문제행동이 β=-.184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 〈.001에서 유의하였다. 학습준비도에는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β=.061, p 〈.05), 외현화 문제행동(β=-.230, p 〈.001), 인지발달(β=.291, p 〈.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8〉 모형의 모수추정치

			b	β	S.E.	C.R.	p
모양육행동_온정	→	외현화 문제행동	-.639	-.324	.062	-10.329	***
모양육행동_통제	→		.174	.083	.060	2.889	.004
SES	→		-.423	-.075	.191	-2.218	.027
외현화 문제행동	→	인지발달	-.439	-.184	.081	-5.435	***
SES	→		.757	.056	.454	1.670	.095
모양육행동_온정	→	학습준비도	-.033	-.055	.020	-1.672	.095
모양육행동_통제	→		.038	.061	.019	2.017	.044
SES	→		.051	.030	.060	.862	.389
외현화 문제행동	→		-.069	-.230	.012	-5.904	***
인지발달	→		.037	.291	.004	8.834	***

*** p 〈 .001.

구조모형에 대한 전체효과와 직·간접효과는 다음 〈표 Ⅱ-4-9〉와 같다. 가정의 SES, 모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가정의 SES가 높고,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은 반면,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았다. 한편,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변인들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인지발달과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표 II-4-9〉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추정변수	전체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b	β	b	β	b	β	
SES	-.423*	-.075	-.423*	-.075			외현화 문제행동
	.943**	.070	.757**	.056	.185*	.014	인지발달
	.115**	.068	.051	.030	.064**	.038	학습준비도
모 온정적 양육행동	-.639**	-.324	-.639**	-.324			외현화 문제행동
	.280**	.060			.280**	.060	인지발달
	.022*	.037	-.033	-.055	.054**	.092	학습준비도
모 통제적 양육행동	.174**	.083	.174**	.083			외현화 문제행동
	-.076**	-.015			-.076**	-.015	인지발달
	.024	.037	.038**	.061	-.015**	-.023	학습준비도
외현화 문제행동	-.439**	-.184	-.439**	-.184			인지발달
	-.085**	-.283	-.069**	-.230	-.016**	-.054	학습준비도
인지발달	.037**	.291	.037**	.291			학습준비도

주: 효과의 유의수준은 신뢰수준 95% 구간에서 bootstapping 추정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및 정책제언

가.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취학 전 유아의 학습준비도가 이후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요인, 모의 양육행동과 함께 문제행동의 특성을 내재화와 외현화로 나누어, 이러한 문제행동과 인지발달을 매개로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각 부적(-), 정적(+)으로 상이하였으며, 가정의 SES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가정의 SES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고 가정의 SES수준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

은 낮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았다.

셋째,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인지발달과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인지발달과 학습준비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보여준다.

넷째, 모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은 각각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인지발달과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특히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나며, 외현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인지발달과 학습준비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인지발달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학습준비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문제행동이 인지발달 뿐만 아니라 이후 학업적응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조기 개입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나. 정책 제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인지발달 및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내재화 문제행동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 내에서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김녹현·정영주·차선희, 2014; 박미진·강지현, 2012; 유영신·유연옥, 2015)에서 주지하였듯이 모의 양육행동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가정 내 모의 바람직한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의 온정적 행동은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관심과 지지에 기반하는 것이 중요함

을 보여준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을 모가 인지하고 있더라도, 직접 아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링이 필요하다. 또한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제반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중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아의 문제행동은 인지발달과 학습준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영유아 초기의 문제행동은 이후 학령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에 문제행동을 발견하고 중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가정뿐만 아니라 기관 내 아동과 오랜 시간 상호작용하는 교사의 관심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센터와 지원인력 및 프로그램이 마련·보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투입된 가구의 사회경제적 변인은 학습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최윤경·김소아·김신경·송신영(2014)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아동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학령기 이후 학생의 학업성취에 가구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초기 아동의 인지 등의 발달이 이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교육경험의 계층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유아 시기 소외 계층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강지현·오경자(2009). 교사가 지각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 **아동학회지, 30**(4), 69-85.

공영숙·임지영(2013). 유아의 기질과 실행기능이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Latzman 의 문제행동 이론 검증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22**(4), 5-24.

김녹현·정영주·차선희(201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4**(2), 89-121.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혜진·김영아·이진·오경자(200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한국 유아의 문제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25-144.

박미진·강지현(2012). 정서, 행동장애연구: 유아의 기질, 부부갈등, 부모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331-352.

박연정·정옥분(2010).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7**(3), 37-54.

방소영·황혜정(2013). 초등학교 학교준비도에 대한 유아기자녀 부모, 학령기자녀 부모와 유아교사, 초등교사의 인식차이. **아동학회지, 34**(2), 139-160.

성미영·장영은·이강이·손승희(2010). 양육신념, 부모협력 및 가정학습환경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1-29.

송태민·김계수(2012). **보건복지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한나래.

우수경(2007). 유아의 성, 기질, 사회적 능력 및 자기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27-450.

유영신·유연옥(2015).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3), 123-139.

이수현·황혜정(2014).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어**

린이문학교육연구, 15(2), 385-410.

임정진·김유정·조수원·안선희(2012). 유아와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 및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에 따른 유아의 학교준비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295-319.

전은옥·최나야(2015).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94**, 93-119.

조미영·정미경·김영희(2010).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정서조절, 그리고 어머니의 언어통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211-237.

조성연(2002).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가정환경(HOME)과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03-111.

조성연(2010).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창의적 특성과 성격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1), 127-136.

지성애·정대현·정효은·안지송·박은영(2006). 유아의 초등학교 준비도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와 학부모 및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227-249.

최윤경·김소아·김신경·송신영(2014). 생애초기 돌봄 및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패널 2014 심층분석연구.** 최윤경(편). 159-196.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배윤진·송신영·임준범·이예진·김소아·김신경(2014). **한국아동패널 2014.** 육아정책연구소.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현재·문혁준(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245-244.

Brooks-Gunn, J., & Markman, L. (2005). The contribution of parenting to ethnic and racial gaps in school readiness. *The future of children, 15*(1), 139-168.

Chazan-Cohen, R., Raikes, H., Brooks-Gunn, J., Ayoub, C., Pan, B. A., Kisker, E. E., ... & Fuligni, A. S. (2009). Low-income children's school

readiness: Parent contributions over the first five yea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0*(6), 958-977.

Cho, K. J., & Ahn, S. H. (2015). Effect of Home Environment Quality and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3), 229-239.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Lee, K. H(2002). Behavioural and Emotional Problems at Toddlerhood and Early Childhood in Predicting School Readiness at the First Grade. *정서· 행동장애연구, 18*(2), 265-278.

Parker, F. L., Boak, A. Y., Griffin, K. W., Ripple, C., & Peay, L. (1999). Parent-child relationship, home learning environment, and school readiness. *School Psychology Review, 28*(3), 413.

Ramey, C. T., & Ramey, S. L. (2004). Early learning and school readiness: Can early intervention make a difference?. *Merrill-Palmer Quarterly, 50*(4), 471-491.

Raver, C. (2003). Young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and school readiness. *Social policy report, 16*(3), 3-19.

Ⅲ. 아동의 양육환경

1. 자녀 성장에 따른 어머니 우울 위험 집단의 예측 변인 탐색

김길숙·이예진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2. 한국 영유아 부모의 양육가치관 변화 추이: European Values Study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요현·김소아·김신경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자녀 성장에 따른 어머니 우울 위험 집단의 예측 변인 탐색

김길숙·이예진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1. 서론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핵가족 비율은 61.6%(2010년 기준)로 2005보다 3.4%p 감소하였지만 적은 수치는 아니다[5]. 특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대가족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들을 핵가족에서는 오로지 부부가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핵가족 상황에서 부모가 되는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습득하기 쉽지 않고, 일차적으로 육아의 책임을 수행하면서 비간헐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데 있다. 물론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있지만,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부모에게는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찾기 쉽지 않다. 이러한 양육의 어려움이 우울감을 느끼게 하고, 부모로서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한가하는 부정적 자기 효능감마저 들게 한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부부만족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부모되기를 하면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양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우울은 아버지의 우울보다 문제시 되고 유병률도 더 높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성의 경우 출산 후 호르몬의 영향, 사회맥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11년 100,000명당 OECD 평균이 12.4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33.3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OECD, 2011)[6]. 이렇듯 우울증은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

5) 통계청(2011. 7. 7).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가구·주택부문)'. http://kostat.go.kr에서 2015. 10.12에 인출.

6) 자료: OECD. Korea's increase in suicides and psychiatric bed numbers is worrying, says

에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이희정, 2012) 자녀와의 애착형성에도 어려움을 주며(장영애·박정희, 2009) 자녀의 문제행동 유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도현심·신나나·박보경·김민정·김혜민, 2014; Dawson, Ashman, Panagiotides, Hessl, Self, Yamada, & Embry, 2003; Meadows, Mclanahan, & Brooks-Gunn, 2007). Dawson 외(2003)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행동 및 정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영아의 경우는 행동 장애뿐만 아니라 비정형 정면 뇌활동성(atypical frontal brain activity)을 보여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희정(20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렇듯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 스트레스, 남편의 양육참여, 부정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이 있다. 이윤주와 김진숙(2012)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자아존중감의 안정성 수준이 낮은 여성은 높은 양육스트레스 수준에서 우울에 취약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김미례(2007)의 연구에서도 이윤주 외(2012)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김경은(2011)은 어머니가 우울하다고 느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고 하였으며 엄세진(2014)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양육스타일이 부정적이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Brunelli 외(1995)는 남편이 부모역할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어머니의 자녀 양육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Weissman(1987)은 부부간의 갈등이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Sacco와 Phares(2001)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수준과 관련 없이 배우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결혼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다.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에 제시한 것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각 시기에 더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울감을 느끼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OECD.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MMHC-Country-Press-Note-Korea.pdf에서 2015. 10.12에 인출.

본 연구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데이터마이닝이란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들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 등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모형화 함으로써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한다(최종후·소선하, 2005).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대규모 자료를 활용해 어머니의 우울과 관련된 의미 있는 규칙들을 발견해 냄으로써 어머니 우울 개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근거 중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은 각 자료 내에 존재하는 관계와 규칙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모형화하는 분석기법으로 선형성, 정규성 및 등분산성 가정 등이 필요 없는 비모수적인 방법이다. 또한 의사결정나무 분석법은 분석대상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는 규칙을 나무구조로 만들어 이를 새로운 대상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특성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으로 이해하기 쉬운 규칙을 생성시켜 주고 예측이 쉬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규칙을 도출함으로써 어머니의 우울 위험집단에 이르는 경로를 도출하여 모형화 함으로써 어머니 집단만의 특성화된 우울 예방과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 정상 또는 위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어머니 우울과 관련된 예측 모형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 ~ 7월 중에 출산한 아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총 2,150가구의 전국단위 신생아 패널 조사로써,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8차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조사부터 7차년도까지의 각 차수별 참여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패널 아동의 어머니는 1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 31.34세

(*SD*=3.72)로, 취업 또는 학업 중인 경우가 30.1%(*n*=625)였으며, 40.2%(*n*=739)가 대졸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28.6%(*n*=590)가 초대졸이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은 평균 319.33만원(*SD*=151.49)이었고, 한국아동패널에 표집 된 자녀의 47.4%(*n*=984)가 외동 또는 첫째였으며, 41.5%(*n*=861)가 둘째였다.

나.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은 패널 아동의 어머니가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한 내용이며, 각 차수별 예측 변인의 투입 여부 및 척도 도구의 신뢰도 등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우울은 Kessler(2002)의 우울 척도 6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되었으며, 점수에 따라 정상(6~13점), 경도/중등도(14~18점), 중도(19~30점) 수준의 우울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간명성 및 사례수를 고려하여 정상 집단(13점 이하)과 경도 이상의 위험 집단(14점 이상)으로 그룹화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측 변인으로는 어머니 개인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최종학력 및 주당 근무 시간을, 배우자 변인으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을, 자녀 및 양육 관련 변인으로 자녀의 성별,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남편의 양육참여를, 가구 변인으로 가구 소득을 투입하였다.

어머니 개인적 변인으로 투입 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9)의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여 총 10개의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자기 효능감은 Pearlinm, Lieberman, Menaghanm과 Mullan(1981)에 의해 사용된 The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사용하여 총 4개의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최종학력과 주당 근무시간은 자기 기입식 질문지에 응답한 각 해년도의 응답값을 사용하였다.

배우자 변인으로 투입된 결혼만족도는 Chung(2004)의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RKMSS)을 사용하여 총 4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dhk Blumberg(1994)의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여 총 8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 및 양육 관련 변인으로 자녀의 기질은 Buss와 Plomin(1984)의 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The EAS)를 사용하여 총 2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기질은 정서성(5문항), 활동성(5문항), 사회성(10문항)의 총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 문항별로 정서성이 높을 경우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활동성이 높을 경우 아동이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님을, 사회성이 높을 경우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을 의미한다. 양육 행동 중 사회적 양육행동은 Bornstein(1989)의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PSQ) 중 사회적 양육유형 9문항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사회적 양육은 실제로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은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5점 리커트 문항을 사용하였다. 6개 문항으로 질문된 온정적 양육행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적 양육행동은 4차년도 8문항, 5차~7차년도 6문항으로 질문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총 11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홍성례(1995)가 사용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 도구를 사용하여 총 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자녀양육참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구 변인으로 투입된 가구 소득은 오픈 응답으로 질문된 가구 소득과 오픈 응답을 거부할 경우 범주형으로 응답한 응답값의 중위값을 병합하여 가구 소득 변수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표 Ⅲ-1-1> 주요 연구 도구 및 신뢰도

구분[출처]		측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어머니 개인 변인									
우울 [Kessler(2002)]		S	.91	.91	.91	.91	.92	.92	.92
자아존중감 [Rosenberg(1989)]		S	.85	.86	.87	.88	.88	.88	.89
부정적 자기효능감 [Pearlinm 외(1981)]		S	.81	.82	.83	.82	.84	-	-
최종학력		O	◎	◎	◎	◎	◎	◎	◎
주당 근무시간		S	◎	◎	◎	◎	◎	◎	◎
배우자 변인									
결혼만족도(RKMSS) [Chung(2004))		S	.91	.92	.92	.91	.93	-	.93
부부갈등 [Markman 외(1994)]		S	.91	.91	.91	.92	.92	-	.92
자녀 및 양육 관련 변인									
자녀의 성별		N	◎	◎	◎	◎	◎	◎	◎
자녀의 기질 (EAS) [Buss & Plomin (1984)]	활동성	S	.69	.78	.78	.78	.76	-	-
	부정적 정서성	S	.73	.76	.73	.73	.75	-	-
	사회성	S	-	-	.84	.83	.83	-	-
양육행동	사회적(PSQ) [Bornstein(1989)]	S	.82	.83	.85	.83	-	-	-
	온정적 [조복희 외(1999)]	S	-	-	-	-	.86	.85	.86
	통제적 [조복희 외(1999)]	S	-	-	-	.78	.76	.76	.73
양육스트레스 [김기현과 강희경(1997)]		S	.84	.85	.87	.87	.88	.87	.88
남편의 양육참여 [홍성례(1995)]		S	.77	.81	.80	.81	.80	-	-
가구 변인									
가구 소득		S	◎	◎	◎	◎	◎	◎	◎

주: 1) 측도의 'N'은 명목 변수, 'O'는 순서 변수, 'S'는 척도 변수를 의미함.
2) '◎'는 해당 차수에 예측 변수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며, 척도형 변수의 경우 신뢰도로 대체하여 표시하였고, '-'는 해당 연도에 조사되지 않음을 의미함.

다. 분석 방법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PASW 12.0을 사용하여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결정나무는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예측·분류·세분화 하는 모형을 만들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 속에서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해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한 기법이다. 의사결정나무에서는 관심대상이 되는 집단을 분류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의사결정 규칙(Decision Rule)을 마디(node)라고 불리는 구성요소들로 도표화 한다. 이를 통해 변수의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수 간의 교호작용을 나타내며, 개인의 상태나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질 때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인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사용하였다. 이는 목표변수가 이산형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을, 연속형인 경우 F-검정을 이용하여 다지분리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변수를 '정상집단'과 '위험집단'으로 이산화 시켰기에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하여 변수를 중복 사용하지 않고 반응변수와 설명변수의 유의성을 찾아내어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다지 분리(multiway split) 기법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율 및 예측 모형의 간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 마디(parent node)와 자식 마디(child node)의 최소 사례수를 각각 50과 10으로 설정하였고, 각 노드의 누계 Index(%)가 120 미만인 경우 가지치기(Pruning)를 실시하여 의미 없는 가지 확장을 제한했다. 본 모형의 분할 표본 타당도(split sample validation) 결과는 단순임의추출법에 의해 전체 자료 중 70%를 모형 분석용 데이터(training data)로, 30%는 구축된 모형에 대한 검증용 데이터(testing data)로 배분하여 위험추정치를 통해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1차년도(만 0세)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 변인

자녀 출산 후 4개월 시점에 조사된 만 0세 자녀 어머니의 우울 집단 결정 모형은 [그림 Ⅲ-1-1]과 같다. 아무런 예측 요인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의

우울 위험 집단은 361명으로 전체 1,291명 중 27.9%에 해당했다. 여기에 예측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 집단 결정 모델에서 영향력 있는 요인은 부정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머니의 우울 집단 예측에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뿌리마디에서 전체의 27.9%가 경도 이상의 우울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보통 이상이면(3.00점 이상) 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70.3%로 증가하였다(노드 4 참조). 또한 같은 부정적 자기효능감을 보인다 하더라도 부부간 갈등이 높으면 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고(84.5%), 부부 갈등이 중간 이하이면 위험률이 56.7%로 감소하였다(노드 15, 16 참조). 또한 부정적 자기효능이 중간 수준(2.25~3.00점)이라 하더라도, 부부 갈등이 보통 이상일 경우(3.00점 이상) 경도 이상의 우울 집단에 속할 확률이 75.9%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은 우울에 위험 요인이 되며, 보통 수준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을 갖는 경우에도 부부간 갈등과 같은 어려움 상황에서는 우울 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Ⅲ-1--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본 모형에서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에 대한 분류 민감도는 55.1%로 361명 중 199명이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류 정확도는 8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 분할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 분류 데이터의 위험추정치는 0.20(*SD* = 0.01), 검증 데이터의 위험추정치는 0.23(*SD* = 0.2)으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2> 1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집단	분류 데이터			검증 데이터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837	94	89.9	353	39	90.1
경도 이상	162	199	55.1	88	79	47.3
전체 퍼센트	77.3	22.7	80.2	78.9	21.1	77.3
위험도	0.20(*SD*=0.01)			0.23(*SD*=0.02)		

<표 Ⅲ-1-3>에 제시한 이익도표에서 노드의 N은 해당 노드에 속한 총 개체수이며, %는 전체 개체 수에 비해 해당 노드의 개체 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득에서 N은 해당 노드에 속한 목표 개체수(경도 이상 집단의 개체수)이며,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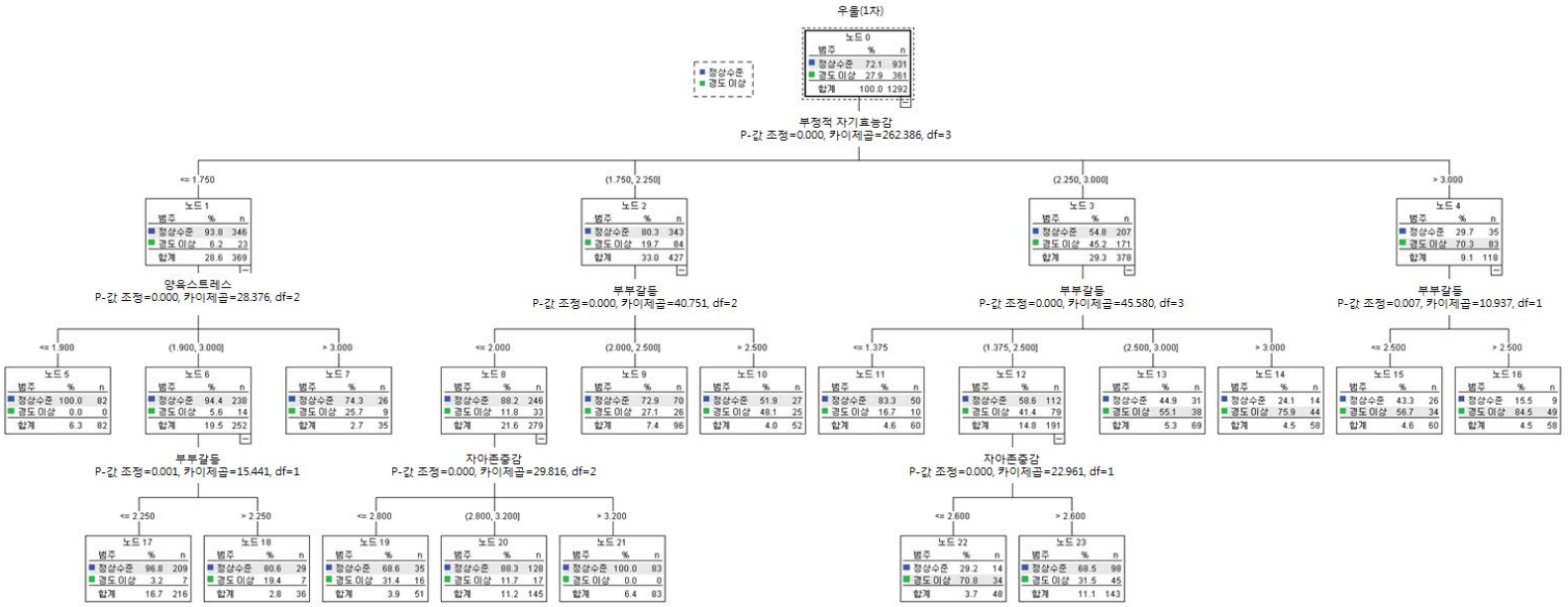
전체 경도 이상 집단의 개체 수에 비해 해당 노드의 경도 목표 개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응답은 해당 노드 내에서 전체 개체 수에 비해 목표 개체 수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며, 지수는 해당 노드 내에서 전체 개체 수 대비 목표 개체 수에 대한 비율, 즉 응답과 전체 개체 수 대비 전체 목표 개체 수에 대한 비율간의 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수는 종속변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았을 때보다 해당 노드의 특징을 가진 대상으로 분류할 때 어느 정도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 보여준다. 즉, 특정 노드에서의 경도 이상의 우울 집단 확률이 전체 표본에서의 우울 집단 확률에 비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 3의 지수를 보면, 지수 값이 가장 높은 노드는 16번이며 이는 어머니가 위험 집단에 속할 예측 효율이 가장 높은 노드가 16번임을 나타낸다. 16번 노드의 특징과 같이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보통 이상이고, 부부 갈등이 중간 이상인 경우의 어미니를 우울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고 분류하는 뿌리 마디에서 보다 3.02배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표 III-1-3> 1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노드	전체		경도 이상		응답(%)	지수(%)
	N	%	*N*	%		
16	58	4.5	49	13.6	84.5	302.4
14	58	4.5	44	12.2	75.9	271.5
22	48	3.7	34	9.4	70.8	253.5
15	60	4.6	34	9.4	56.7	202.8
13	69	5.3	38	10.5	55.1	197.1
10	52	4.0	25	6.9	48.1	172.1
23	143	11.1	45	12.5	31.5	112.6
19	51	3.9	16	4.4	31.4	112.3
9	96	7.4	26	7.2	27.1	96.9
7	35	2.7	9	2.5	25.7	92.0
18	36	2.8	7	1.9	19.4	69.6
11	60	4.6	10	2.8	16.7	59.6
20	145	11.2	17	4.7	11.7	42.0
17	216	16.7	7	1.9	3.2	11.6
21	83	6.4	0	.0	.0	.0
5	82	6.3	0	.0	.0	.0



[그림 Ⅲ-1-1] 1차년도 어머니 우울 집단 결정 모형

나. 2차년도(만 1세)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 변인

자녀가 만 1세가 된 시점에 조사된 어머니의 우울 집단 결정 모형은 [그림 Ⅲ-1-2]와 같다. 아무런 예측 요인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의 우울 위험 집단은 378명으로 전체 1,335명 중 28.3%에 해당했다. 여기에 예측 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 집단 결정 모델에서 영향력 있는 요인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로 나타났다. 이 중 어머니의 우울 집단 예측에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뿌리마디에서 전체의 28.3%가 경도 이상의 우울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낮은(2.40점 이하) 경우 경도 이상의 우울 집단군 속할 확률이 80%로 증가하였다(노드 1 참조). 특히 자아자존감이 낮은 어머니 중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보통 이상(3.00점 이상)일 경우, 경도 이상의 우울 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94.8%로 높게 증가하였다(노드 8 참조). 반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보통보다 높은 경우(3.00점 초과),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더라도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에 속할 확률이 22.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드 15 참조). 이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경우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더라도 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4>와 같이 본 예측 모형에서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에 대한 분류 민감도는 57.7%로 378명 중 218명이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류 정확도는 81.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 분할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 분류 데이터의 위험 추정치는 0.19(*SD*=0.01), 검증 데이터의 위험추정치는 0.25(*SD*=0.02)로 나타나 모형의 과잉일반화의 위험성은 매우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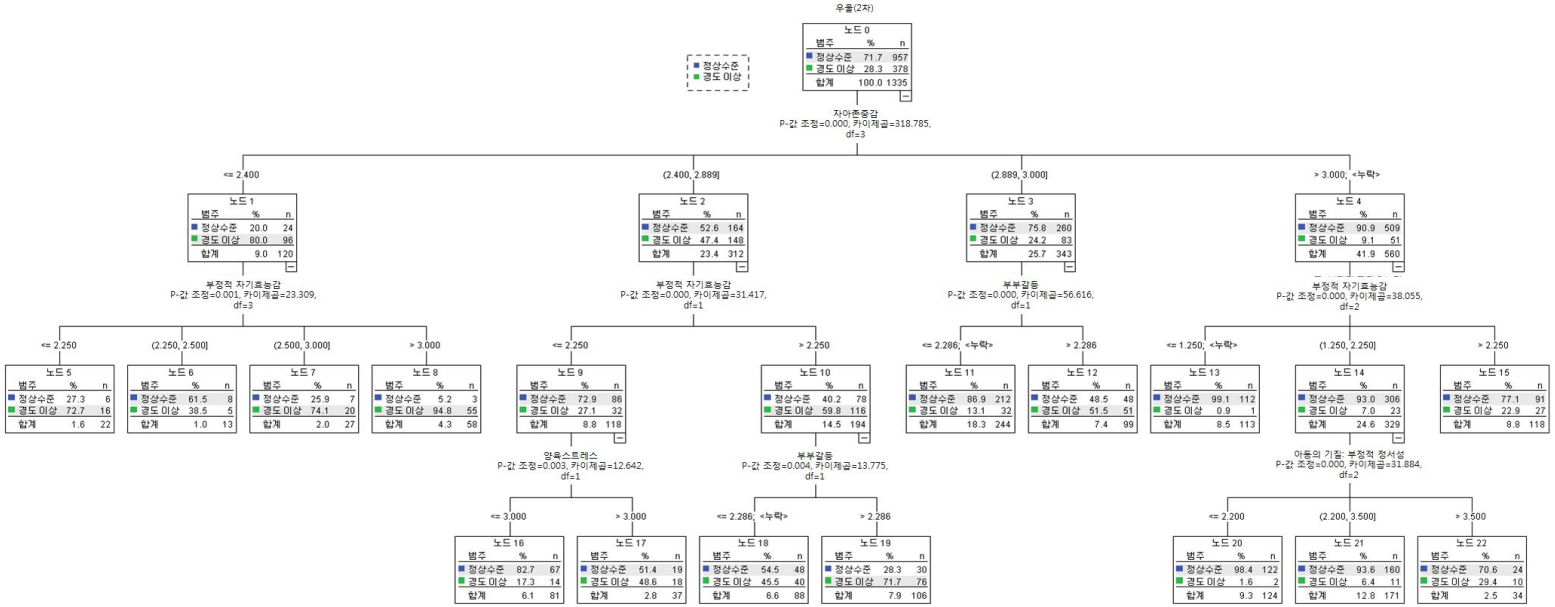
<표 Ⅲ-1-4> 2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집단	분류 데이터			검증 데이터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863	94	90.2	350	55	86.4
경도 이상	160	218	57.7	86	67	43.8
전체 퍼센트	76.6	23.4	81.0	78.1	21.9	74.7
위험도	0.19(SD=0.01)			0.25(SD=0.02)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 Ⅲ-1-5>의 지수를 보면, 지수 값이 가장 높은 노드는 8번이며, 이는 어머니가 위험 집단에 속할 예측 효율이 가장 높은 노드가 8번임을 나타낸다. 8번 노드의 특징과 같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보통 이상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의 어머니를 우울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없이 분류하는 뿌리 마디에서 보다 3.34배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표 Ⅲ-1-5> 2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노드	전체		경도 이상		응답(%)	지수(%)
	N	퍼센트	N	퍼센트		
8	58	4.3	55	14.6	94.8	334.9
7	27	2.0	20	5.3	74.1	261.6
5	22	1.6	16	4.2	72.7	256.9
19	106	7.9	76	20.1	71.7	253.2
12	99	7.4	51	13.5	51.5	181.9
17	37	2.8	18	4.8	48.6	171.8
18	88	6.6	40	10.6	45.5	160.5
6	13	1.0	5	1.3	38.5	135.8
22	34	2.5	10	2.6	29.4	103.9
15	118	8.8	27	7.1	22.9	80.8
16	81	6.1	14	3.7	17.3	61.0
11	244	18.3	32	8.5	13.1	46.3
21	171	12.8	11	2.9	6.4	22.7
20	124	9.3	2	.5	1.6	5.7
13	113	8.5	1	.3	.9	3.1



[그림 III-1-2] 2차년도 어머니 우울 집단 결정 모형

다. 3차년도(만 2세)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 변인

자녀가 만 2세가 된 시점에 어머니의 우울 집단 분리에 대한 예측 변인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Ⅲ-1-3]과 같다. 아무런 예측 요인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의 우울 위험 집단은 386명으로 전체 1,236명 중 31.2%에 해당했다. 여기에 예측 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 집단 결정 모델에서 영향력 있는 요인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사회성 기질, 부부갈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머니의 우울 집단 예측에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었다.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뿌리마디에서 전체의 31.2%가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낮은(2.44점 이하) 경우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군에 속할 확률이 76.9%로 증가하였다(노드 1 참조).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고(2.44점 이하) 양육스트레스가 보통보다 높으면(3.091점 초과) 경도 이상의 우울 집단에 속할 확률이 87.1%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위험 요인이 되며,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우울 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Ⅲ-1-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예측 모형에서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에 대한 분류 민감도는 67.1%로 386명 중 259명이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류 정확도는 7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 분할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 분류 데이터의 위험 추정치는 0.22(*SD*=0.01), 검증 데이터의 위험추정치는 0.21(*SD*=0.02)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6> 3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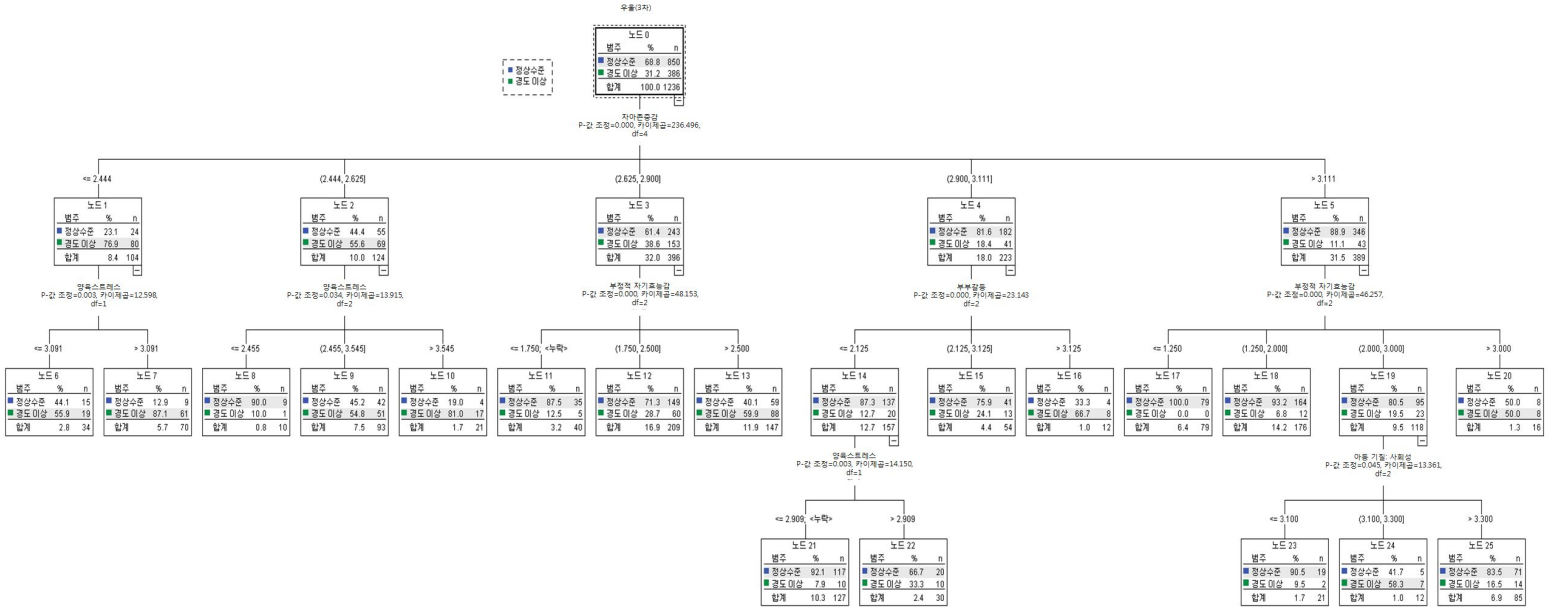
집단	분류 데이터			검증 데이터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704	146	82.8	318	68	82.4
경도 이상	127	259	67.1	42	106	71.6
전체 퍼센트	67.2	32.8	77.9	67.4	32.6	79.4
위험도	0.22(SD=0.01)			0.21(SD=0.02)		

3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 Ⅱ-3-7>의 지수를 보면, 지수 값이 가장 높은 노드가 7번임을 알 수 있다. 7번

노드의 특징과 같이 낮은 자아존중감(2.44점 이하)과 중간 이상의 양육스트레스(3.09점 이상)인 경우의 어머니를 우울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고 분류하는 뿌리 마디에서 보다 2.79배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표 Ⅲ-1-7> 3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노드	전체		경도 이상		응답(%)	지수(%)
	N	퍼센트	N	퍼센트		
7	70	5.7	61	15.8	87.1	279.0
10	21	1.7	17	4.4	81.0	259.2
16	12	1.0	8	2.1	66.7	213.5
13	147	11.9	88	22.8	59.9	191.7
24	12	1.0	7	1.8	58.3	186.8
6	34	2.8	19	4.9	55.9	178.9
9	93	7.5	51	13.2	54.8	175.6
20	16	1.3	8	2.1	50.0	160.1
22	30	2.4	10	2.6	33.3	106.7
12	209	16.9	60	15.5	28.7	91.9
15	54	4.4	13	3.4	24.1	77.1
25	85	6.9	14	3.6	16.5	52.7
11	40	3.2	5	1.3	12.5	40.0
8	10	.8	1	.3	10.0	32.0
23	21	1.7	2	.5	9.5	30.5
21	127	10.3	10	2.6	7.9	25.2
18	176	14.2	12	3.1	6.8	21.8
17	79	6.4	0	.0	.0	.0



[그림 III-1-3] 3차년도 어머니 우울 집단 결정 모형

라. 4차년도(만 3세)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 변인

자녀가 만 3세가 된 시점에 어머니의 우울 집단 분리에 대한 예측 변인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Ⅲ-1-4]와 같다. 아무런 예측 요인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의 우울 위험 집단은 384명으로 전체 1,211명 중 31.7%에 해당했다. 여기에 예측 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독립변인 중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의 사회성 기질이 우울 집단 분리의 중요변수로 나타났다. 이 중 만 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이었다.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뿌리마디에서 전체의 31.7%가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높은(3.25점 이상) 경우 경도 이상의 우울 집단에 속할 확률이 82.6%로 높아졌다(노드 5 참조). 높은 부정적 자기효능감(3.25점 이상)을 가진 어머니 중 자아 존중감이 중간 이하인 경우(3.10점 이하) 우울 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93.3%로 증가하였다(노드 16 참조). 이를 볼 때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우울 위험 집단 분류에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Ⅲ-1-8>과 같이 본 예측 모형에서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에 대한 분류 민감도는 62.8%로 384명 중 241명이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류 정확도는 79.3%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할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 분류 데이터의 위험 추정치는 0.21(*SD*=0.01), 검증 데이터의 위험추정치는 0.24(*SD*=0.02)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8> 4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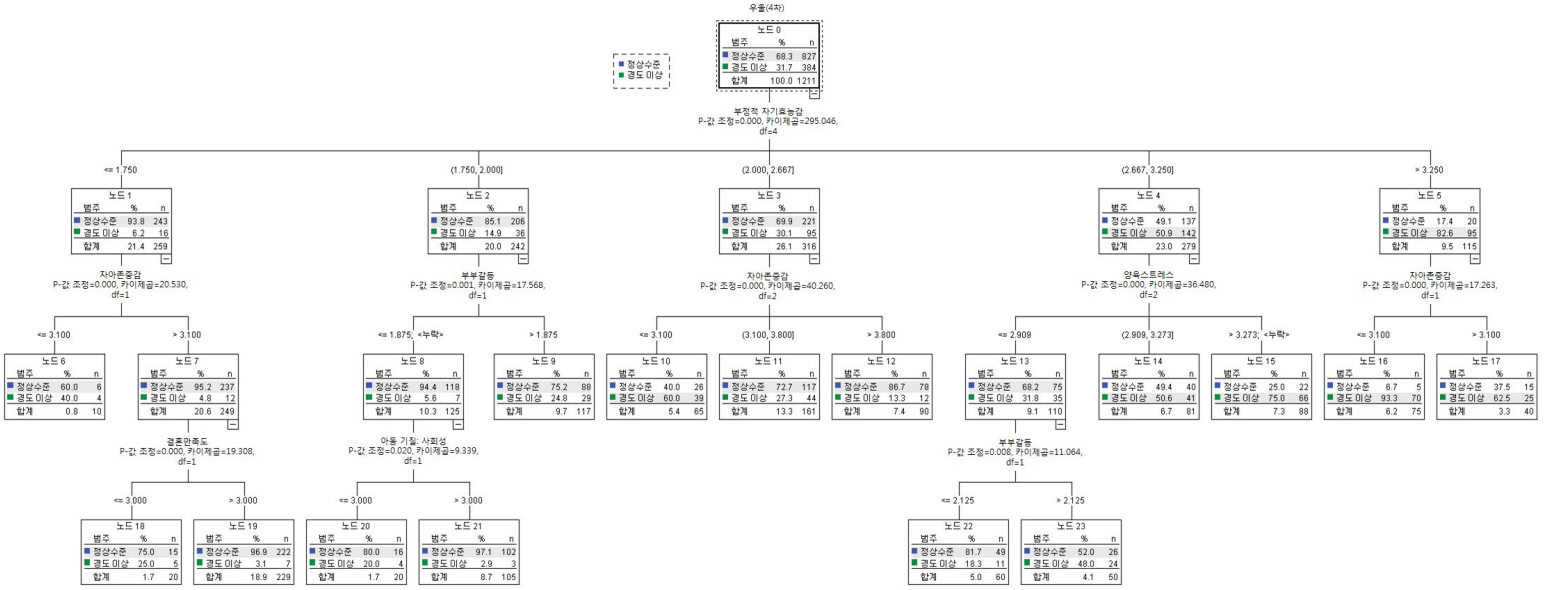
집단	분류 데이터			검증 데이터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719	108	86.9	295	51	85.3
경도 이상	143	241	62.8	68	76	52.8
전체 퍼센트	71.2	28.8	79.3	74.1	25.9	75.7
위험도	0.21(SD=0.01)			0.24(SD=0.02)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 Ⅲ-1-9>의 지수를 보면, 지수 값이 가장 높은 어머니가 위험 집단에 속할 예측 효율이 가장 높은 노드는 16번으로 나타났다. 16번 노드의 특징과 같이 부정적 자기 효능감이 높고(3.25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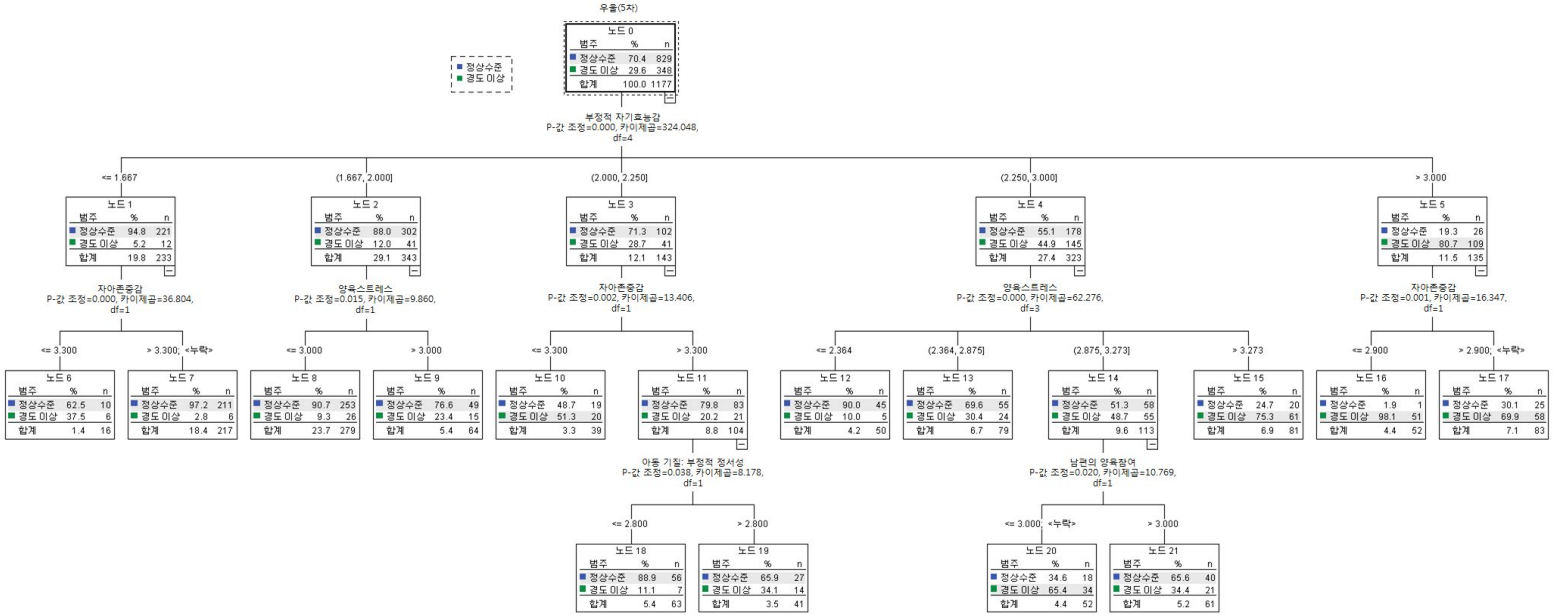
자아 존중감이 중간 이하(3.10점 이하)인 경우의 어머니를 우울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고 분리하는 뿌리 마디에서 보다 2.94배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표 III-1-9> 4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노드	전체		경도 이상		응답(%)	지수(%)
	N	퍼센트	N	퍼센트		
16	75	6.2	70	18.2	93.3	294.3
15	88	7.3	66	17.2	75.0	236.5
17	40	3.3	25	6.5	62.5	197.1
10	65	5.4	39	10.2	60.0	189.2
14	81	6.7	41	10.7	50.6	159.6
23	50	4.1	24	6.3	48.0	151.4
6	10	.8	4	1.0	40.0	126.1
11	161	13.3	44	11.5	27.3	86.2
18	20	1.7	5	1.3	25.0	78.8
9	117	9.7	29	7.6	24.8	78.2
20	20	1.7	4	1.0	20.0	63.1
22	60	5.0	11	2.9	18.3	57.8
12	90	7.4	12	3.1	13.3	42.0
19	229	18.9	7	1.8	3.1	9.6
21	105	8.7	3	.8	2.9	9.0



[그림 III-1-4] 4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 예측 모형



[그림 III-1-5] 5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 예측 모형

마. 5차년도(만 4세)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 변인

자녀가 만 4세가 된 시점에 어머니의 우울 집단 결정 모형은 [그림 Ⅲ-1-5]와 같다. 아무런 예측 요인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의 우울 위험 집단은 348명으로 전체 1,177명 중 29.6%에 해당했다. 여기에 예측 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 집단 결정 모델에서 영향력 있는 요인은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남편의 양육참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로 나타났다. 이 중 어머니의 우울 집단 예측에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이었다.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뿌리마디에서 전체의 27.7%가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보통 이상인(3.00점 이상) 경우,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군에 속할 확률이 83.9%로 증가하였다(노드 5 참조). 특히 노드 5에 속하는 어머니들 중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낮은(2.90점 이하) 경우, 경도 이상의 우울 집단에 속할 확률이 100%로 높아졌다. 즉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어머니 우울에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Ⅲ-1-10>과 같이 본 예측 모형에서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에 대한 분류 민감도는 64.4%로 348명 중 224명이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류 정확도는 82.4%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할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 분류 데이터의 위험 추정치는 0.18(*SD*=0.01), 검증 데이터의 위험추정치는 0.19(*SD*=0.02)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10> 5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집단	분류 데이터			검증 데이터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746	83	90.0	316	42	88.3
경도 이상	124	224	64.4	53	84	61.3
전체 퍼센트	73.9	26.1	82.4	74.5	25.5	80.8
위험도	0.18(SD=0.01)			0.19(SD=0.02)		

<표 Ⅲ-1-11>에 제시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의 요약 지수를 보면, 지수 값이 가장 높은 노드는 16번으로,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보통 이상이고(3.00점 이상), 자기존중감이 낮은(2.90점 이하) 어머니를 우울 위험 집단으로 분

류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고 분류하는 뿌리 마디에서보다 3.31배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표 Ⅲ-1-11> 5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노드	전체		경도 이상		응답(%)	지수(%)
	N	퍼센트	N	퍼센트		
16	52	4.4	51	14.7	98.1	331.7
15	81	6.9	61	17.5	75.3	254.7
17	83	7.1	58	16.7	69.9	236.3
20	52	4.4	34	9.8	65.4	221.1
10	39	3.3	20	5.7	51.3	173.4
6	16	1.4	6	1.7	37.5	126.8
21	61	5.2	21	6.0	34.4	116.4
19	41	3.5	14	4.0	34.1	115.5
13	79	6.7	24	6.9	30.4	102.7
9	64	5.4	15	4.3	23.4	79.3
18	63	5.4	7	2.0	11.1	37.6
12	50	4.2	5	1.4	10.0	33.8
8	279	23.7	26	7.5	9.3	31.5
7	217	18.4	6	1.7	2.8	9.4

바. 6차년도(만 5세)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 변인

자녀가 만 5세가 된 시점에 어머니의 우울 집단 결정 모형은 [그림 Ⅲ-1-6]과 같다. 아무런 예측 요인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의 우울 위험 집단은 308명으로 전체 1,132명 중 27.2%에 해당했다. 여기에 예측 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독립변인 중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우울 집단 분리의 중요변수로 나타났다.

이 중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었다.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뿌리마디에서 전체의 27.2%가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낮은(2.90점 이하) 경우 우울 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73.0%로 증가하였다(노드 1 참조). 낮은 자아존중감(2.90점 이하)의 어머니들이 중간 이상의 양육스트레스(2.73점 초과)을 경험할 경우, 경도 이상의 우울 집단에 속할 확률이 79.3%로 높아졌다(노드 7 참조). 즉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우울에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Ⅲ-1-12>와 같이 본 예측 모형에서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에 대한 분류 민감도는 51.9%로 308명 중 160명이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류 정확도는 78.6%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할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 분류 데이터의 위험 추정치는 0.21(*SD*=0.01), 검증 데이터의 위험추정치는 0.21(*SD*=0.02)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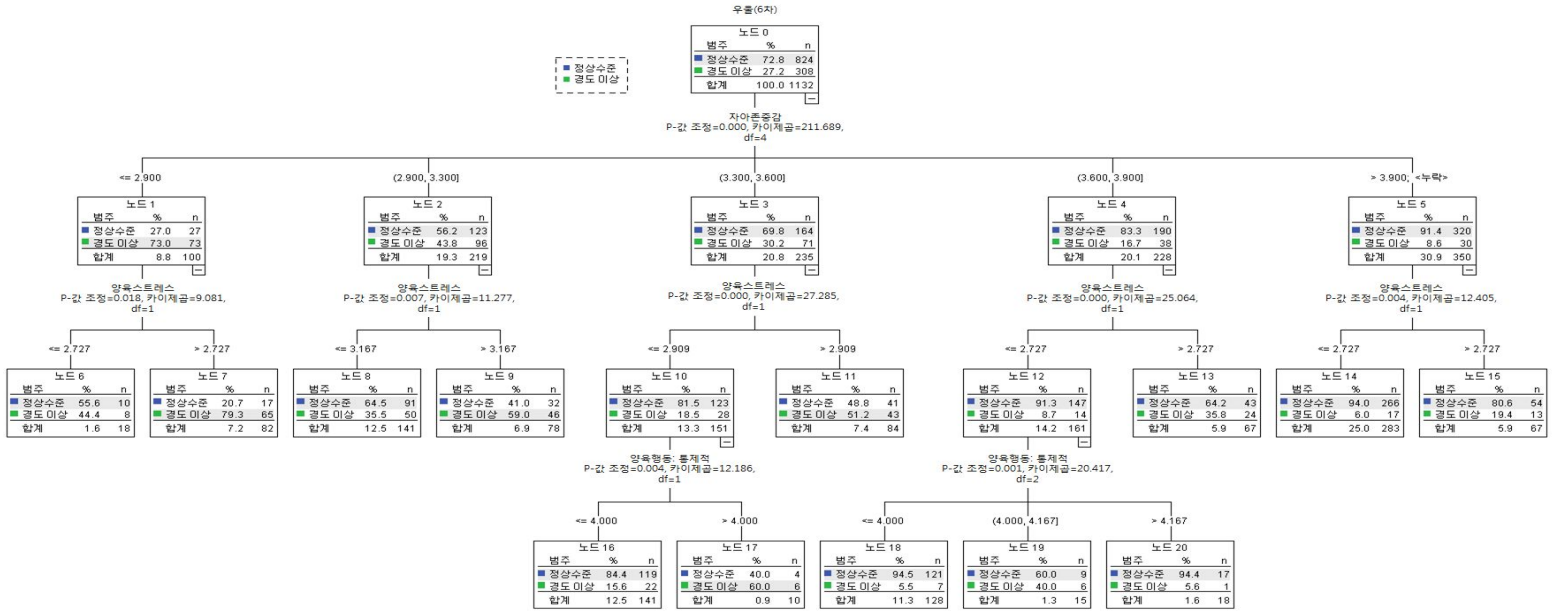
<표 III-1-12> 6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집단	분류 데이터			검증 데이터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730	94	88.6	317	37	89.5
경도 이상	148	160	51.9	66	62	48.4
전체 퍼센트	77.6	22.4	78.6	79.5	20.5	78.6
위험도	0.21(SD=0.01)			0.21(SD=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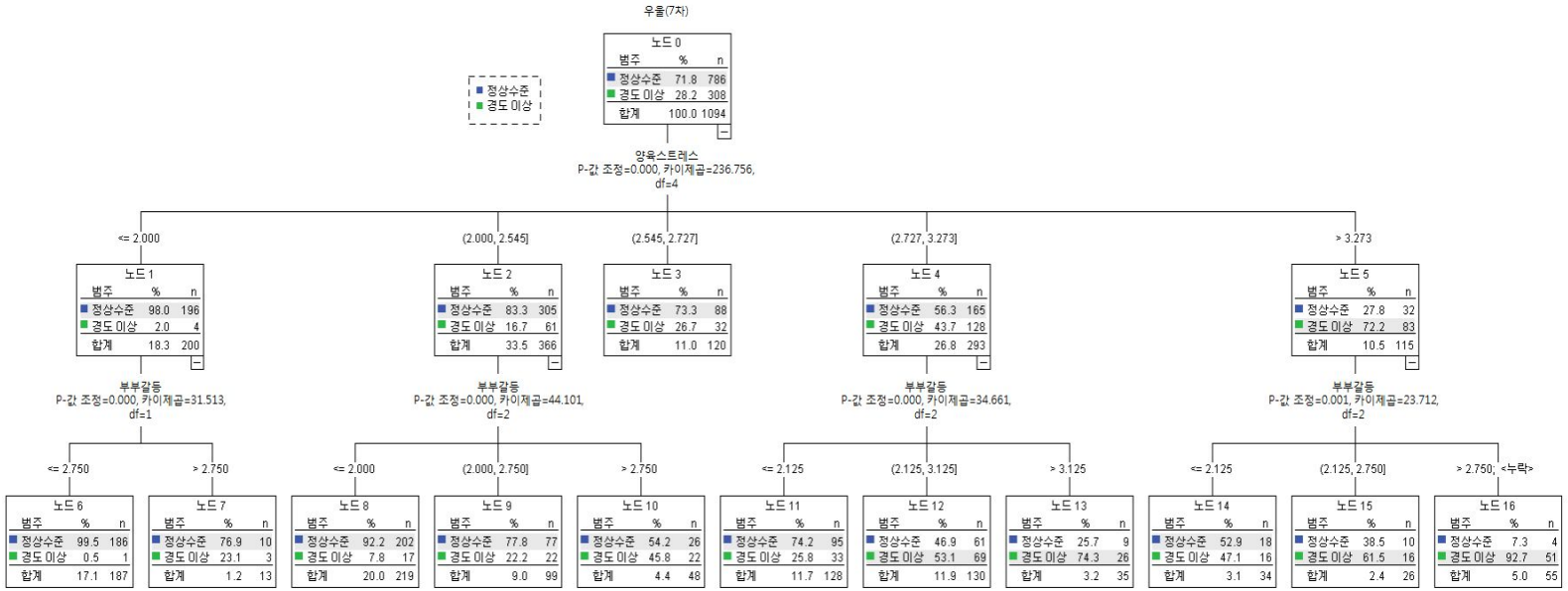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 Ⅲ-1-13>의 지수를 보면, 어머니가 우울 위험 집단에 속할 예측 효율이 가장 높은 노드는 7번 노드로, 낮은 자아존중감(2.90점 이하)과 중간 이상의 양육스트레스(2.73점 초과)인 경우의 어머니를 우울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고 분류하는 뿌리 마디에서 보다 2.91배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표 III-1-13> 6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노드	전체		경도 이상		응답(%)	지수(%)
	N	퍼센트	N	퍼센트		
7	82	7.2	65	21.1	79.3	291.3
17	10	.9	6	1.9	60.0	220.5
9	78	6.9	46	14.9	59.0	216.7
11	84	7.4	43	14.0	51.2	188.1
6	18	1.6	8	2.6	44.4	163.3
19	15	1.3	6	1.9	40.0	147.0
13	67	5.9	24	7.8	35.8	131.7
8	141	12.5	50	16.2	35.5	130.3
15	67	5.9	13	4.2	19.4	71.3
16	141	12.5	22	7.1	15.6	57.3
14	283	25.0	17	5.5	6.0	22.1
20	18	1.6	1	.3	5.6	20.4
18	128	11.3	7	2.3	5.5	20.1



[그림 III-1-6] 6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 예측 모형



[그림 III-1-7] 7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 예측 모형

사. 7차년도(만 6세)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 변인

자녀가 만 6세가 된 시점에 어머니의 우울 집단 결정 모형은 [그림 Ⅲ-1-7]과 같다. 아무런 예측 요인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의 우울 위험 집단은 308명으로 전체 1,094명 중 28.2%에 해당했다. 여기에 예측 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독립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 집단 분리의 중요변수로 나타났다. 이 중 만 6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였다.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뿌리마디에서 전체의 28.2%가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3.28점 이상) 경우, 경도 이상의 우울 집단에 속할 확률이 72.2%로 높아졌다(노드 5 참조). 양육스트레스가 높고(3.28점 이상) 부부갈등이 중간 이상(2.75점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에 속할 확률이 92.7%로 증가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어머니 우울에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Ⅲ-1-14>와 같이 본 예측 모형에서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에 대한 분류 민감도는 52.6%로 308명 중 241명이 경도 이상의 우울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류 정확도는 79.0%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할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 분류 데이터의 위험 추정치는 0.21(*SD*=0.01), 검증 데이터의 위험추정치는 0.24(*SD*=0.02)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14> 7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집단에 대한 예측모형 평가

집단	분류 데이터			검증 데이터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경도 이상	정확도(%)
정상수준	702	84	89.3	299	37	89.0
경도 이상	146	162	52.6	77	58	43.0
전체 퍼센트	77.5	22.5	79.0	79.8	20.2	75.8
위험도	0.21(SD=0.01)			0.24(SD=0.02)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 Ⅲ-1-15>의 지수를 보면, 어머니가 우울 위험 집단에 속할 예측 효율이 가장 높은 노드는 16번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3.27점 이상)과 중간 이상의 양육스트레스(2.75점 이상)인 경우의 어머니를 우울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고 분류하는 뿌리 마

디에서 보다 3.29배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표 III-1-15> 7차년도 어머니의 경도이상 우울 집단의 이익도표

노드	전체		경도 이상		응답(%)	지수(%)
	N	퍼센트	N	퍼센트		
16	55	5.0	51	16.6	92.7	329.4
13	35	3.2	26	8.4	74.3	263.9
15	26	2.4	16	5.2	61.5	218.6
12	130	11.9	69	22.4	53.1	188.5
14	34	3.1	16	5.2	47.1	167.2
10	48	4.4	22	7.1	45.8	162.8
3	120	11.0	32	10.4	26.7	94.7
11	128	11.7	33	10.7	25.8	91.6
7	13	1.2	3	1.0	23.1	82.0
9	99	9.0	22	7.1	22.2	78.9
8	219	20.0	17	5.5	7.8	27.6
6	187	17.1	1	.3	.5	1.9

4.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조합 관계 속에서 대상 아동 어머니의 우울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녀의 성장에 따라 시기별로 각각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녀의 성장 시점에 따라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머니의 우울 정상 및 경도 이상의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정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어머니의 개인 내적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부부 갈등, 자녀의 기질 특성 등의 조합에 따라 세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정상 또는 경도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변인은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모의 산후 우울에 대한 신유경과 최연실(2013)의 연구에서 산모 개인 차원의 변수가 부부관계 차원의 변수나 산전우울, 직업, 음주, 흡연 등의 배경변인에 의한 요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우울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유경·최연실, 2013; 양병한, 2005; 엄태완, 2008; 이주연·전종

설·전혜숙·정하은, 2015).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조절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실망과 슬픔, 무가치감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양병한, 2005).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과업이나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대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 직후인 만 0세 시점과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급증하는 만 3~4세 시점에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우울 집단 분류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어머니에게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나 육아 경험의 부족, 주변의 지지가 부족하거나 혹은 양육과 관련하여 과잉 정보에 노출됨으로 인한 결정의 어려움 등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에 노출될 경우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심각하게 높아져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Bandura(1993)는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성취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휩싸이는 경우, 인적 자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낙담된 사고를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최근 육아 예능,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육아 판타지에 휩싸여 스스로에게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확고한 어머니 자신만의 육아 신념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 출산 후 양육 및 취원과 같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보육 반장과 같은 검증된 조력을 확산·홍보함으로써 어머니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육과 관련하여 스스로나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에 노출되어 부정적 심리상태의 순환 고리가 연결되기 전에 이를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점은 자아존중감이 우울 위험집단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박현정(2015)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치며 가족생활만족도의 경로를 통과할 때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본인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은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경험하고 해석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신나리·김영원, 2010, p.142). 「한국아동패널 2015」에 따르면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특성이다(이정림·김길숙·송신영·김진미·이예진·김소아·김신경, 2015). 이윤주와 김진숙(2012)은 자신에 대한 가치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단기간에 걸쳐 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낮은 여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우울해질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내적 표상인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 결과와 더불어 생각해 볼 때,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비교적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주변 지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는 평소 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로 어머니의 우울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강희경, 2012). 양육스트레스는 우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며(이윤주·김진숙, 2012; 이주연·전종설·전혜숙·정하은, 2015),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증가율이 높아지면 우울의 증가율 역시 높아진다(김균희·김현정·이완정, 2014).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자녀가 학령 전기가 되는 만 6세 시점에는 어머니 개인의 내적 특성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 위험 집단 결정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는 '아이의 명문대 합격의 3대 요소는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조부모의 재력'이다(김은형, 2013. 6). 이로 미루어볼 때 어머니가 느끼는 자녀 양육에 대한 금전적, 정보적 부담 및 책임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도구는 주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령기를 준비하는 만 6세 시점의 어머니들에게는 개인 내적 특성보다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주변 또는 스스로의 기대감에 의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을 정상 수준의 우울과 경도 이상의 위험 집단으로 분리하여 자녀의 성장 시점에 따라 주요 영향요인을 탐색해봄으로써 어머니의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한 보호/위험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어머니의 응답을 기반으로 관련 변인들을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 위험 집단 결정에는 어머니의 개인 내적 특성, 양육관련 요인, 부부관계, 자녀의 기질 등이 서로 조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 위험 집단

결정에 자녀가 만 5세가 되는 시점까지는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이, 학령기 직전 시기인 만 6세 시점에는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녀의 성장 주기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 중재를 위해 고려해야 할 방향성이 다름을 암시한다. 자녀가 영유아 시기일 때는 주로 어머니의 내적 힘의 강화, 학령 전 시기일 때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현실적 한계선 및 자녀와의 객관화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양육스트레스 조절과 관련한 내용의 부모교육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이 어느 연령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 학력, 직업군 등의 세분화 된 사항을 집단으로 나누어 예측 변인으로 분석한다면 추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연구 대상을 경도 이상의 위험 집단으로 통합하였으나, 경도 우울 집단과 중도 이상의 우울 집단은 상이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어 추후 우울과 관련된 다양한 탐색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희경(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육학회지, 12**(1), 131-147.

김경은(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17.

김균희·김현정·이완정(2014). 발달위험군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333-346.

김기현·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학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미례(2007).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761-777.

김은형(2013. 6). 엄마는 출근중 - 아이의 교육열에 가세하는 우리 집 그렌마 파워-. 베스트베이비:육아/출산.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097&contents_id=29655에서 2015. 10. 27에 인출.

도현심·신나나·박보경·김민정·김혜인(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79-198.

박현정(2015).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0**(3), 151-161.

신유경·최연실(2013).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능감, 부부갈등 및 산전우울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155-176.

양병한(2005). 자기효능감, 우울 및 불안과 지연경향 간의 관계. **인문논총, 12,** 89-110.

엄세진(2014).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스타일의 매개효과.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1**(1), 1-12.

엄태완(2008). 빈곤층 여성의 우울에 대한 연구: 스트레스, 신체화,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4**(12), 61-88.

이윤주·김진숙(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2229-2249.

이윤주·김진숙(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2229-2249.

이정림·김길숙·송신영·김진미·이예진·김소아·김신경(2015). 한국아동패널 2015. 발간 예정.

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신나리·김영원(2010).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이주연·전종설·전혜숙·정하은(2015).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2), 293-312.

이희정(2012). 어머니 우울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2), 230-258.

장영애·박정희(2009). 어머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유아 간 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213-232.

조복희·이진숙 · 이홍숙 ·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천희영·옥경희(2011). 영아 어머니 우울의 예측 변인 분석: 어머니의 부모됨 및 양육 관련 체계 변인을 중심으로. **인지발달중재학회지, 2**(2), 71-90.

최종후·소선하(2005). 사례로 배우는 데이터 마이닝. 서울: 자유아카데미.

통계청(2011. 7. 7).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가구·주택부문)'. http://kostat.go.kr에서 2015. 10. 12에 인출.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248.

Bornstein, M. H. (1989). Between caretakers and their young: Two modes of interaction and their consequences for cognitive growth. In M. J.

Bornstein & J. S. Bruner (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Behavioral and biological perspective (pp. 147-1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Inc.

Brunelli, S., Wasserman, G. A., Rauh, V. A., Alvarado, L. E., & Caraballo, L. R. (1995). Mothers' reports of paternal support: Associations with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Merrill-Palmer Quarterly, 41*(2), 152-171.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Dawson, G., Ashman, S. B., Panagiotides, H., Hessl, D., Self, J., Yamada, E., & Embry, L. (2003). Preschool outcomes of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Role of maternal behavior, contextual risk, and children's brain activity. *Child Development, 74*(4), 1158-1175.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Meadows, S. O., Mclanahan, S. S., & Brooks-Gunn, J. (2007). Parental depression and anxiety and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across family typ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1162-1177.

OECD. Korea's increase in suicides and psychiatric bed numbers is worrying, says OECD.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MMHC-Country-Press-Note-Korea.pdf에서 2015. 10.12에 인출.

Pearlinm L. I., Lieberman, M. A., Menaghanm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http://www.bsos.umd.edu/socy/research/rosenberg.htm 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인출.

Sacco, W. P., & Phares, V. (2001). Partner appraisal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504-513.

Weissman, M. (1987). Treatment effects on the social adjustment of depressed pati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0,* 771-778.

한국 영유아 부모의 양육가치관 변화 추이: European Values Study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요현, 김소아, 김신경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연구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의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 내용에 의하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이며, 아동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사회 기초집단인 가족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유년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 가족은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유엔헌장을 통해 선언한 이상주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출처: 유엔아동권리협약 서론.
http://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

다양한 가족 유형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가족 구성에 있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이며,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녀 돌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가 갖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아동은 부모의 돌봄 아래서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는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태도나 관점, 양육방식 등은 부모가 소유한 가치관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가치관(Value)이라 함은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고 학자마다 저마다 다른

의미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에 Kohn(1989: 18)은 가치관을 정의하는 다양한 의미를 종합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Parental Value)을 "자녀가 보여주었으면 하는 행동이나 특성인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부모가 지닌 자녀양육에 관한 가치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좌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가치체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양육가치관은 자녀가 성공에 이르는 길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Xiao, 2000), 부모의 양육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양육가치관을 살펴보는 연구는 한 사회의 가치 형성과 가치 전수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Xiao & Andes, 1999). 문화는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가 지닌 문화적 가치에 따라 자녀 양육이 이루어진다. 문화의 변천사와 사회체계의 영향으로 인해, 한 국가에서 자녀를 기르는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성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Xiao, 2014). 이러한 이유로 가족이 놓여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가 지니는 가치나 신념,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언급된다(Tudge, Hogan, Snezhkova, & Kulakova, 2000: Goodnow and Collins, 1990에서 재인용). 즉, 부모가 갖게 되는 양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는 자녀 혹은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으나, 처해있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의 기본적인 이념과 사상, 인간 혹은 삶에 대한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습득하면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의 양육가치관을 연구할 때 그들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함께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닌 다양한 국가의 양육 가치관의 차이와 그 양상을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국제적으로 양육가치관을 비교한 연구에는 European Values Systems Study Group(EVSSG)의 European Values Study(EVS) 중, 자녀에 대한 양육가치관(Learn children at Home)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있다. EVSSG는 1981년 총 16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유럽의 양육가치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8년에는 최종 47개 국가를 연구에 포함하면서, 동일하게 각국의 양육가치관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나라들을 중심으로 각국 간의 양육가치관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각 나라마다 주요하게 유지되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고 논의 되고 있다. Tudge, Hogan, Snezhkova와 Kulakova(2000)는 러시아와 미국 사회의 자녀양육 가치와 신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였으며,

Xiao(2001)는 양육에 대한 신념의 차이가 미국 사회와 중국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학자들은 미국 사회의 경우, 독립성이나 자율성(자주성), 지배/장악에 대한 가치가 높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Tudge et al., 2000) 이러한 미국의 가치관은 미국 사회의 부모 자녀양육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가치관은 1979년에 갤럽국제조사기구에서 조사한 어머니 의식 국제비교조사(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태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정교육에 있어 중요시하는 기준을 물었을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의 기본적인 습관', '예의바름'에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 높게 나타난 기준은 '돈/물건을 낭비하지 않는 것'과 '협동성'이었으며, '공정성', '시민의식', '관용성', '창의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0: 120). 항목별로 볼 때, '생활의 기본적 습관'이나 '자립성', '책임감'은 한국, 영국, 프랑스 간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관용성'은 영국 55.3%, 프랑스 33.5%인데 비해 한국은 11.2%로 큰 차이가 있었고, 반대로 '인내심'은 한국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적 차이를 알 수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3)는 후속 연구로써 국가로는 서독을, 대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여 각국의 가정생활과 가치관을 비교조사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 질문은 총 13가지 항목에서 개수와 상관없이 중복응답을 하는 방식인데, 같은 1순위라 하더라도 한국은 '기본생활습관'이 51.8%로 높게 나타난데 반하여, 영국과 서독은 '예절과 단정함'의 응답률이 각각 81.7%, 69.3%, 프랑스는 '책임감'이 73.9%로 높게 나타나 국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했다. 또한 서독의 경우 '예절과 단정함', '기본생활습관' 순으로 응답이 높아 우리나라 응답순위와 비슷한 형태를 띠었지만, '돈이나 물건을 낭비하지 않는 것', '관용성'이 4순위, 6순위로 꼽히는 등 우리나라와 다른 점도 있었다.

한국인의 양육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본 비교적 최근의 국내 선행연구로 김은설과 최혜선(2008)은 전국의 20~5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자녀 양육관 중 부모의 희생에 대한 신념을 묻는 문항의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2%가 '부모도 자녀 때문에 본

인의 행복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을 하였고,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응답은 46.7%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갖추길 바라는 소양에 대해서는 아들의 경우 자신감, 책임감, 리더십, 근면/성실성, 사회성 순의 결과를 보였고, 딸의 경우는 자신감, 예절, 근면/성실성, 책임감, 창의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가라는 커다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양육가치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 외에도, 개인의 특성 특히 성별은 양육가치관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Xiao와 Andes(1999)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의 자율성을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지만, 남성은 순응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서 자율성은 자기주도, 판단, 책임감 같은 것이라면, 순종은 복종, 청결, 좋은 습관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양육가치관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국가별 차이가 있다는 일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특성과 문화적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은 부모 모두의 영역이기 때문에 Xiao와 Andes(1999)의 연구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가치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관련하여, 국내 양육가치관 국제비교 연구인 한국갤럽조사연구(1980)에서 어머니의 양육가치관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가치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갤럽조사연구(1980)는 30여 년 전에 진행된 연구로 핵가족화와 저출산,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급격하게 변해온 현대사회 가족의 최근 경향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부모의 양육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IMF 경제위기로 가계경제에 변화가 나타났고, 더 이상 가족원 중 1인(주로 아버지)의 경제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족 내에서 자녀의 돌봄 문제가 표면화 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돌봄과 관련된 이슈는 그 사회 가치관의 한 단면일 수 있기에 한국과 다른 유럽의 나라들을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보면서,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자녀양육에 관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종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와 EVSSG에서 조사된 European Values Study의 'Learn children at Home'[7]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과 유럽 부모의 양육가치관이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양육가치관을 살펴보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지 그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European Values Study의 2008-2010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진이 선정한 유럽 6개국(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과 한국의 양육가치관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시간에 따라 한국 부모의 양육가치관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한국과 유럽(6개국: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부모의 양육가치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럽가치관조사(European Values Study: 이하 EVS)와 동일한 변인을 포함하여 수집한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2,150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이들의 양육과 발달, 성장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국가 수준의 패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양육가치관 문항이 조사되지 않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와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유럽가치관조사(EVS)는 한국아동패널과는 다른 방식의 조사로써 유럽 사람들의 가족, 일, 종교, 정치, 사회 전반에 관한 가치에 대해 조사한 대규모 횡단 및 종단 연구 프로젝트이다. 시작된 시점인 1981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을 포함한 16개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9년 주기의 조사가 점차 확대되어 2008년에는

7) EVSSG에서 조사된 European Values Study의 Learn children at Home 척도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양육신념'으로 번역되어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갈 것이므로, '양육가치관'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47개국을 대상으로 4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각 국가 당 표본 규모는 약 1천~1천 5백 명이다. 한국과의 국제비교 연구 수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소속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 중 스웨덴과 핀란드, 서유럽 국가 중 영국과 프랑스, 중앙유럽 국가의 독일과 남유럽의 이탈리아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이 시작된 2008년 조사와 동일한 시점과 변인으로 비교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유럽가치관조사의 2008년도 데이터인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가별 구체적인 조사 시기는 독일 2008~2009년, 스웨덴 2009~2010년, 영국 2009~2010년, 이탈리아 2009년, 프랑스 2008년, 핀란드 2009년이다.

유럽가치관조사(EVS)의 연구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 개인이다. 이에 한국아동패널처럼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중심으로 해당 가구의 부모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인 양육가치관의 특성에 맞추어 유럽가치관조사의 대상자 선정에서 자녀의 유무와 부모 및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았다. 유럽가치관조사에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자녀수 문항을 통해 자녀수가 1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부모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인 부모의 연령은 한국아동패널 2008년 조사의 부모연령과 동일한 조건으로 통제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에 해당되는 남성의 연령이 19-51세, 어머니인 여성 연령이 19-46세에 해당되는 성인만을 선택하였다(표 Ⅲ-2-1참조). 마지막으로 자녀의 발달연령에 따라서 양육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유럽가치관조사에서 부모의 자녀 연령을 만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가 2008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질문지를 포함한 추적 연구라면, 유럽가치관조사는 아동을 기준으로 모집한 조사가 아니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따라서 자녀가구원의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응답자의 첫 자녀 출생년도 조사문항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첫 자녀가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1990년생(2008년도 기준) 이후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첫 자녀의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정한 것은 한국의 청소년보호법(1장 2조 1항)의 기준 연령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별 통계분석이 가능한 최소 사례수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국가별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한국 아버지 33.88세, 한국 어머니 31.34세이고, 다른 유럽 국가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7.89~40.83세, 유럽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28~37.45세이다. 영국 부모의 평균연령이 유럽에선 가장 낮았고, 이탈리

아 부모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다(표 Ⅲ-2-1). 또한 국가별 연구대상의 성별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응답비율이 더 많았다(표 Ⅲ-2-2).

〈표 Ⅲ-2-1〉 국가별 연구대상의 연령

단위: 세, (명)

구분		평균연령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한국	아버지	33.88	4.04	19	51	(1,992)
(1차년도)	어머니	31.34	3.72	19	46	(2,077)
독일	아버지	38.36	6.67	19	51	(158)
	어머니	35.71	6.15	20	46	(216)
스웨덴	아버지	39.96	6.26	23	51	(119)
	어머니	37.24	5.24	23	46	(150)
영국	아버지	37.89	7.09	23	51	(140)
	어머니	34.28	7.23	19	46	(251)
이탈리아	아버지	40.83	5.56	27	51	(143)
	어머니	37.45	5.70	21	46	(139)
프랑스	아버지	38.31	6.24	21	51	(159)
	어머니	35.32	5.90	21	46	(208)
핀란드	아버지	38.76	6.17	24	51	(127)
	어머니	37.04	5.93	23	46	(120)

〈표 Ⅲ-2-2〉 국가별 연구대상의 성별

단위: 명

	한국 (1차년도)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남성(아버지)	1,992	158	119	140	143	159	127
여성(어머니)	2,077	216	150	251	139	208	120
계	4,069	374	269	391	282	367	247

국가별 연구대상의 결혼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은 부모의 결혼상태 문항을 사용하였다. 유럽가치관조사(EVS)는 연구대상의 결혼상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한국아동패널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된 현재 법적인 결혼상태(current legal marital status respondent)에 대한 문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1차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99.6%가 결혼 상태였으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87.9%로 비교국가 중에서 법적 결혼상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국이 54.9%로 가장 낮았다(표 Ⅲ-2-3).

〈표 III-2-3〉 국가별 연구대상의 결혼상태

단위: %, (명)

	한국 (1차년도)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결혼(초혼/재혼)	99.6	63.1	63.4	54.9	87.9	57.7	70.6
파트너 등록제[8]	-	4.8	7.2	1.0	-	4.1	3.7
사별	-	0.3	-	-	-	0.5	0.4
이혼	0.0	11.2	8.9	8.7	2.1	9.6	8.6
별거	0.1	2.9	2.1	6.7	2.9	6.6	0.8
미혼	0.2	17.6	18.3	28.7	7.1	21.6	1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072)	(374)	(235)	(390)	(280)	(366)	(245)

나. 연구변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5차년도 데이터 중 아버지 질문지, 어머니 질문지에 있는 "양육신념(본 연구에서는 양육가치관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 변인을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아동패널과 유럽가치관조사에서 동일하게 측정된 양육가치관 문항은 총 2가지로, 그 중 첫 번째 문항은 자녀가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과 특성을 우선순위 없이 5가지 선택하게 하는 문항으로, 선택항목은 총 11가지 자질과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가치관을 측정하는 두 번째 문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묻는 양자택일 방식의 문항이다. 양육가치관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표 III-2-4).

8) 파트너 등록제(registered partnership)란 혼인 없이도 함께 거주하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등록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28개국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1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파트너 등록제는 이성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동성간의 관계도 포함되며, 프랑스의 시민결합(civil union)과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U내에서 이 제도가 없는 국가는 이탈리아,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있다.
(출처: http://ec.europa.eu/justice/civil/family-matters/marriage/index_en.htm,
http://europa.eu/youreurope/citizens/family/couple/registered-partners/index_en.htm)

〈표 III-2-4〉 양육가치관 사용 문항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 다음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5가지만 골라 주십시오(우선순위 없이 선택). Here is a list of qualities which children can be encouraged to learn at home. Which, if any, do you consider to be especially important? Please choose up to five!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Good manners ② 독립심: Independence ③ 근면함: Hard work ④ 책임감: Feeling of responsibility ⑤ 상상력: Imagination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Tolerance and respect for other people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Thrift, saving money and things ⑧ 결단력과 끈기: Determination, perseverance ⑨ 종교적 신념: Religious faith ⑩ 이타심: Unselfishness ⑪ 어른 말씀 잘 듣기: Obedience
[**부모의 책임**]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귀하는 둘 중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best describes your views about parents's responsibilities to their children? 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Parents' duty is to do their best for their children even at the expense of their own well-being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Parents have a life of their own and should not be asked to sacrifice their own well-being for the sake of their children

출처: 1)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도구프로파일(http://panel.kicce.re.kr/kor/publication/01_02.jspstartPage=20&code=paneltoolsprofiles&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에서 2015년 5월 19일 인출)
2) 유럽가치관조사 코딩북 GESIS Variable Reports No. 2013-27 EVS 2008-Variable Report Integrated Dataset pp. 389-420.
(https://dbk.gesis.org/dbksearch/download.asp?db=E&id=46504에서 2015년 5월 19일 인출)

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 대한 분석은 크게 한국 부모의 양육가치관의 변화 추이와 한국과 유럽의 양육가치관에 대한 비교로 이루어진다.

(연구문제 1) 한국 부모의 양육가치관의 양상은 한국아동패널 1차~3차와 5차년도 자료로 분석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인 11개 항목 중 선택된 5개 항목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묻는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분석하고, 이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가치관으로 각각 나누어서 차수별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 한국아동패널과 유럽가치관조사에서 동일하게 조사된 시점인 2008년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인 11개 항목을 묻는 문항과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응답의 백분율 및 순위상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한국 부모의 양육가치관 변화 추이

한국 부모 양육가치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1차(2008년), 2차(2009년), 3차(2010년), 5차(2012년)의 4개년도의 자료를 토대로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부모의 양육가치관 문항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1) 한국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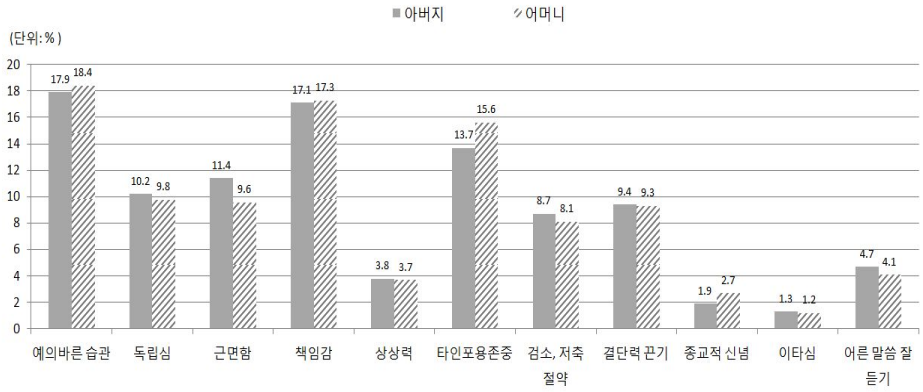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부모의 양육가치관 문항 중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을 선택하는 문항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Ⅲ-2-5>와 같다. 먼저 1차년도에 1순위는 '예의바른 생활습관'으로 아버지 17.9%, 어머니 18.4%였고, 2순위는 '책임감'으로 아버지 17.1%, 어머니 17.3%, 3순위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으로 아버지 13.7%, 어머니 15.6%였다(표 Ⅲ-2-5, 그림 Ⅲ-2-1).

〈표 III-2-5〉 차수별 한국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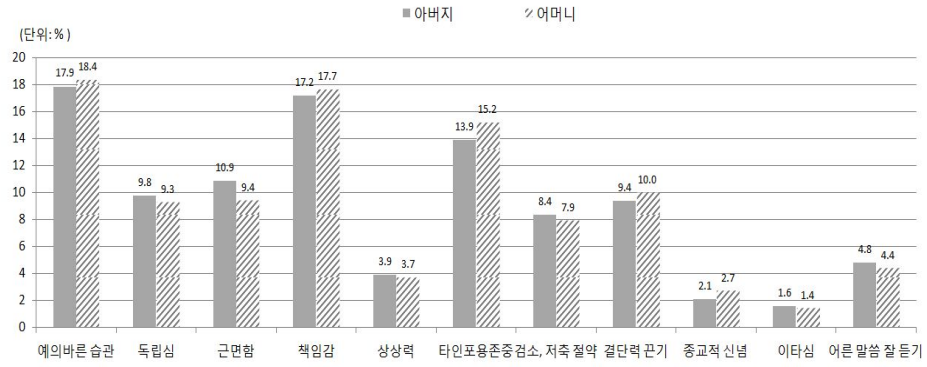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①	17.9	18.4	17.9	18.4	17.7	18.3	17.7	18.0
②	10.2	9.8	9.8	9.3	9.5	9.8	10.0	9.4
③	11.4	9.6	10.9	9.4	11.3	10.0	10.3	9.0
④	17.1	17.3	17.2	17.7	17.3	17.5	17.2	17.4
⑤	3.8	3.7	3.9	3.7	4.2	3.8	6.1	5.6
⑥	13.7	15.6	13.9	15.2	13.8	15.1	12.7	14.9
⑦	8.7	8.1	8.4	7.9	7.8	7.0	6.5	6.0
⑧	9.4	9.3	9.4	10.0	9.5	10.0	9.4	10.0
⑨	1.9	2.7	2.1	2.7	2.0	2.8	2.0	3.2
⑩	1.3	1.2	1.6	1.4	1.8	1.5	1.8	1.4
⑪	4.7	4.1	4.8	4.4	5.1	4.2	6.4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50)	(1,862)	(1,811)	(1,894)	(1,684)	(1,771)	(1,616)	(1,676)

주: ①예의바른 생활습관, ②독립심, ③근면함, ④책임감, ⑤상상력, ⑥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⑦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⑧결단력과 끈기, ⑨종교적 신념, ⑩이타심, ⑪어른 말씀 잘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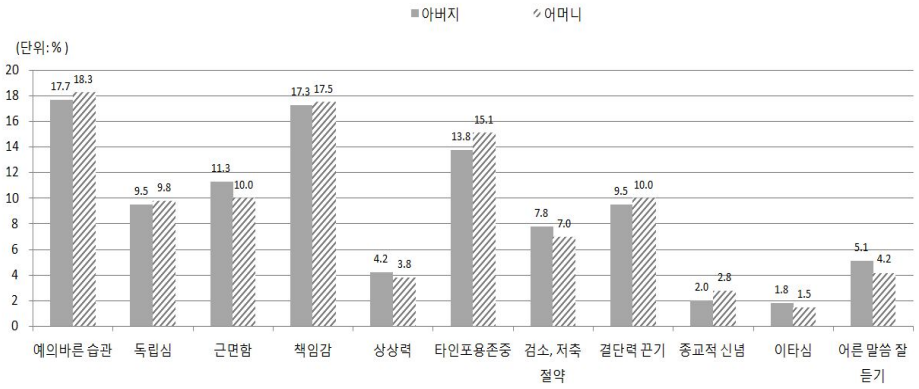
[그림 III-2-1]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의 한국 부모 응답 비교 - 1차년도

2차년도에는 '예의바른 생활습관'이 아버지 17.9%, 어머니 18.4%로 1순위로 선택되었고, 2순위는 '책임감'으로 아버지 17.2%, 어머니 17.7%,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은 2차년도 3순위로 아버지 13.9%, 어머니 15.2%로 나타났다(표 III-2-5, 그림 III-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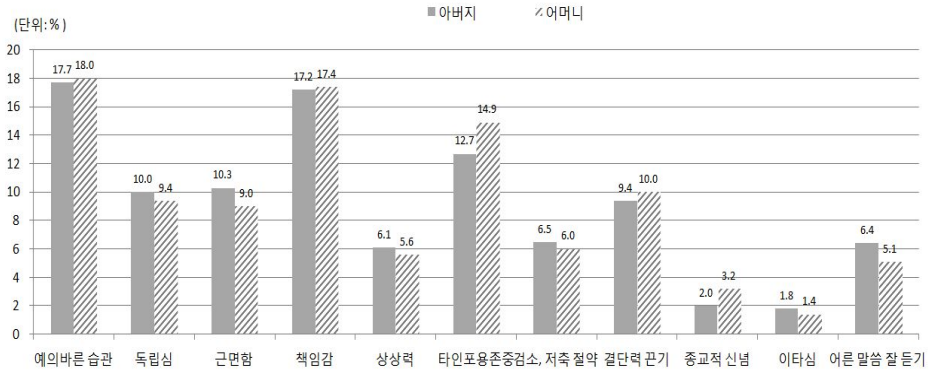
[그림 III-2-2]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의 한국 부모 응답 비교 -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예의바른 생활습관'이 1순위로 아버지 17.7%, 어머니 18.3%로 나타났고, 2순위는 '책임감'으로 아버지는 17.3%, 어머니는 17.5%의 응답을 보였다. 3차년도 3순위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의 항목으로 아버지 13.8%, 어머니는 15.1%의 응답을 보였다(표 Ⅲ-2-5, 그림 Ⅲ-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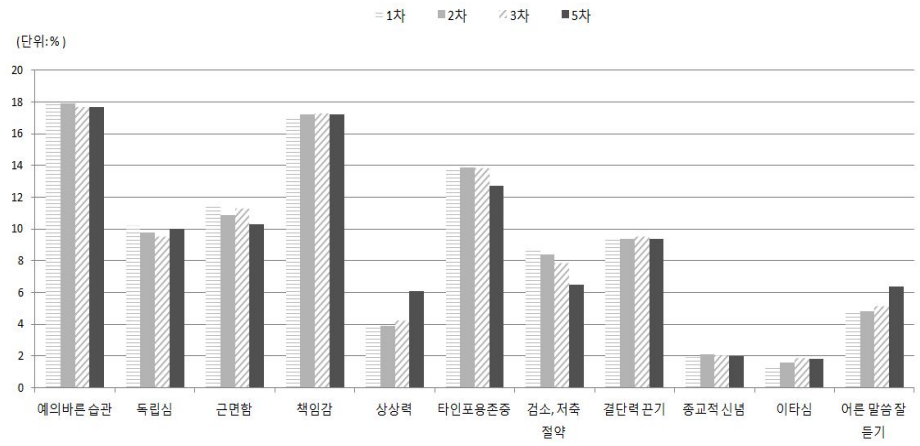
[그림 III-2-3]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의 한국 부모 응답 비교 - 3차년도

5차년도의 1순위도 '예의바른 생활습관'으로 아버지 17.7%, 어머니 18.0%였다. 2순위는 '책임감'으로 아버지 17.2%, 어머니 17.4%였고, 3순위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으로 아버지 12.7%, 어머니 14.9%로 응답되었다(표 Ⅲ-2-5, 그림 Ⅲ-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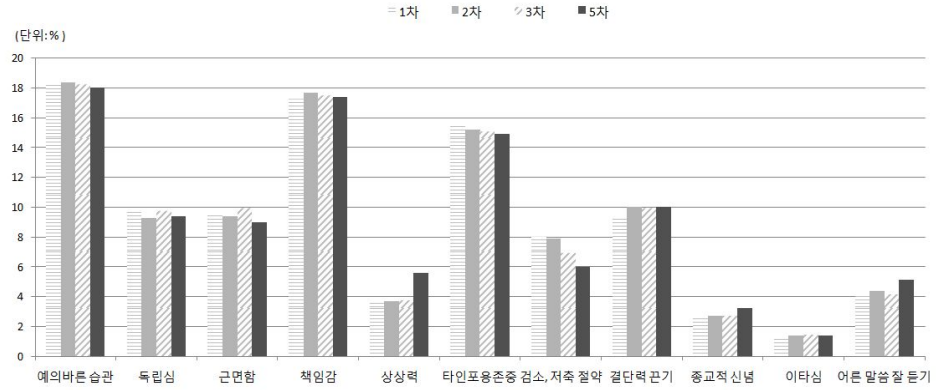
〔그림 III-2-4〕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의 한국 부모 응답 비교 - 5차년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에 대한 응답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택 항목이 1순위 '예의바른 생활습관', 2순위 '책임감', 3순위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으로 동일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택 항목간 비율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한국의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과 특성에 대한 변화는 아동의 성장(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2-5〕 아버지가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 변화 추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 1차년도 대비 5차년도에 증가하는 비율이 큰 항목은 상상력(2.3%p), 어른 말씀 잘 듣기(1.7%p)이고, 감소하는 항목은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2.2%p), 근면함(1.1%p)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1차년도 대비 5차년도 증가하는 비율이 큰 항목은 상상력(1.9%p), 어른 말씀 잘 듣기(1.0%p)이고, 감소하는 항목은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2.1%p),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0.7%p)으로 나타났다(표 Ⅲ-2-5, 그림 Ⅲ-2-5, 그림 Ⅲ-2-6 참조).



〔그림 Ⅲ-2-6〕 어머니가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 변화 추이

2) 한국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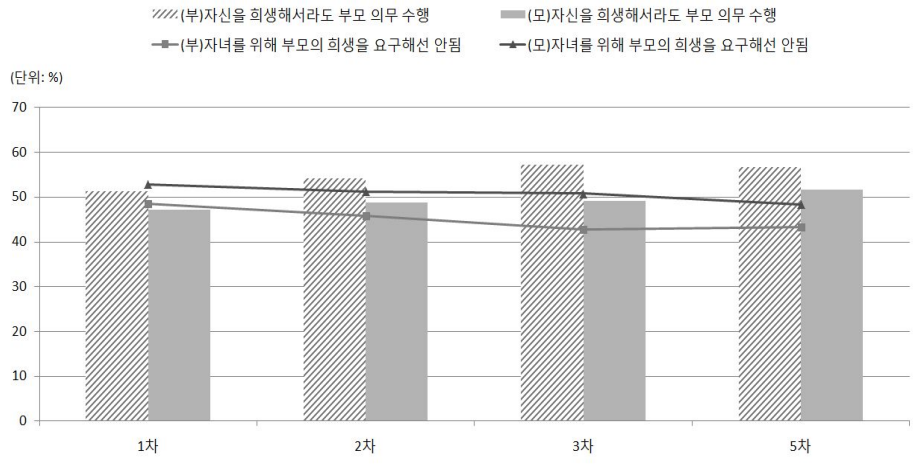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관련하여 한국 부모의 경우 1차년도 응답을 기준으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49.1%, '자녀를 위해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50.9%로 나타났다. 부모 책임에 대한 두 가지 견해의 선택 비율은 유사했으나, '자녀를 위해 부모의 희생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2차년도에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1.4%, 3차에는 53.1%, 5차년도에는 54.1%로 나타났다. '자녀를 위해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2차년도에 48.6%, 3차년도 46.9%, 5차년도에는 45.9%로 나타났다. 1차년도 대비 5차년도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5.0%p 증가하였으며, 차수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선택의 비율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표 Ⅲ-2-6).

〈표 III-2-6〉 한국 부모가 응답한 차수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단위: %, (명)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						자녀를 위해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해선 안됨					
	전체	(수)	아버지	(수)	어머니	(수)	전체	(수)	아버지	(수)	어머니	(수)
1차년도	49.1	(1,693)	51.4	(827)	47.2	(866)	50.9	(1,752)	48.6	(782)	52.8	(970)
2차년도	51.4	(1,886)	54.2	(966)	48.8	(920)	48.6	(1,781)	45.8	(816)	51.2	(965)
3차년도	53.1	(1,809)	57.2	(946)	49.2	(863)	46.9	(1,600)	42.8	(708)	50.8	(892)
5차년도	54.1	(1,769)	56.8	(908)	51.6	(861)	45.9	(1,501)	43.3	(692)	48.4	(809)

응답자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1차년도에는 51.4%에서 5차년도에는 56.8%로 약 5.4%p가량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경우에 동일 응답에 대해서 1차년도에는 47.2%에서 5차년도에 51.6%로 약 4.4%p가량 증가하였으나, 아버지에 비해서 다소 낮은 응답비율과 증가율을 보였다. 본 조사항목은 양자택일의 문항이므로 이와 대조되는 견해인 '자녀를 위해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문항은 1차년도에 비해 5차년도에는 부모 모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의견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표 Ⅲ-2-6, 그림 Ⅲ-2-7 참조).



[그림 III-2-7] 부모의 책임에 대한 부모 응답 비교

나. 유럽 부모의 양육가치관

유럽 부모의 양육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럽가치관조사(EVS)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의 6개국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EVS에서 조사한 부모의 양육 가치관 문항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부모의 양육가치관 문항과 동일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에 관한 문항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의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1) 유럽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

유럽 부모의 양육가치관 문항 중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을 선택하는 문항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을 구분하여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2-7>과 같다.

〈표 Ⅲ-2-7〉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의 유럽 부모 응답 비교

단위: %, (명)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①	16.6	17.2	15.5	14.6	18.7	18.1	16.4	14.9	19.4	18.4	15.4	14.1
②	15.6	16.7	12.9	14.6	10.4	11.5	7.4	8.5	7.8	10.2	5.2	6.6
③	4.0	2.2	2.4	1.2	9.4	7.0	7.2	7.0	1.7	0.5	9.9	7.6
④	17.5	18.0	17.2	16.5	8.8	8.5	17.4	15.9	18.1	19.1	14.4	14.1
⑤	5.7	7.8	7.6	9.4	7.1	6.8	2.2	1.6	5.6	6.3	5.5	3.3
⑥	15.8	15.2	17.8	18.1	14.7	16.3	14.1	14.8	17.2	19.8	17.5	18.4
⑦	9.2	7.8	8.1	9.3	2.6	4.4	8.0	7.3	4.2	2.5	8.1	8.5
⑧	10.5	9.6	7.9	5.4	7.5	7.2	7.0	6.2	10.9	10.0	9.7	9.8
⑨	1.8	2.2	1.8	1.3	2.7	2.4	6.8	8.1	1.4	1.2	1.7	1.9
⑩	1.3	1.2	6.0	7.4	11.2	10.0	7.8	9.2	7.5	7.0	6.7	9.4
⑪	2.0	2.1	2.8	2.2	6.9	7.8	5.8	6.7	6.3	4.9	5.8	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8)	(216)	(119)	(149)	(140)	(251)	(142)	(139)	(124)	(120)	(159)	(208)

주: ①예의바른 생활습관, ②독립심, ③근면함, ④책임감, ⑤상상력, ⑥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⑦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⑧결단력과 끈기, ⑨종교적 신념, ⑩이타심, ⑪어른 말씀 잘 듣기.

독일 부모의 경우 1순위는 '책임감'으로 아버지 17.5%, 어머니 18.0%였고, 2순위는 '예의바른 생활습관'으로 아버지 16.6%, 어머니 17.2%로 나타났다. 독일의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의 3순위의 경우 아버지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준중'으로 15.8%였고, 어머니는 '독립심'으로 16.7%였다. 독일 부모의 경우 '책임감'과 '예의바른 생활습관'의 자질과 특성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동일하게 1, 2순위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 순위로 독일 아버지의 경우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독일 어머니의 경우는 '독립심'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으로 선택하였다.

스웨덴 부모의 경우 1순위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으로 아버지 17.8%, 어머니 18.1%로 나타났고, 2순위는 '책임감'으로 아버지 17.2%, 어머니 16.5%가 선택하였다. 3순위의 경우 '예의바른 생활습관'의 항목을 아버지의 15.5%가 선택하였고, 어머니의 3순위 선택 항목은 '예의바른 생활습관'과 '독립심'이 14.6%로 동일한 비율의 선택을 보였다. 스웨덴 부모의 경우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책임감', '예의바른 생활습관'이 주요하게 가정에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이었고, 스웨덴 어머니는 '독립심'도 함께 가정에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중요한 자녀의 자질과 특성 중 하나로 선택하였다.

영국 부모의 경우 1순위는 '예의바른 생활습관'으로 아버지 18.7%, 어머니 18.1%였고, 2순위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으로 아버지 14.7%, 어머니 16.3%였다. 3순위는 영국의 아버지의 경우 11.2%의 응답을 보인 '이타심'이였고, 영국 어머니의 경우는 '독립심'으로 11.5%였다. 영국 부모의 경우 '예의바른 생활습관',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동일하게 선택한 가정에서 자녀가 배울 수 있길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이었다. 그 다음으로 영국 아버지는 '이타심', 영국 어머니는 '독립심'에 대해서 자녀가 가정에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부모의 경우 1순위는 '책임감'의 항목으로 아버지 17.4%, 어머니 15.9%가 응답했고, 2순위는 '예의바른 생활습관' 항목으로 아버지 16.4%, 어머니 14.9%였다. 3순위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항목에서 아버지 14.1%, 어머니 14.8%의 선택을 하였다. 이탈리아 부모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하게 '책임감', '예의바른 생활습관',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의 순으로 가정에서 자녀가 배우길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으로 선택하였다.

핀란드 부모의 경우, 아버지는 1순위가 19.4%의 '예의바른 생활습관', 2순위가 '책임감' 18.1%, 3순위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의 항목에 17.2%였다. 핀란드 어머니의 경우,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이 19.8%로 1순위였고, '책임감'이

19.1%로 2순위, '예의바른 생활습관'이 18.4%로 3순위였다. 핀란드 부모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가정에서 자녀가 배우길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이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항목별 선택에서는 순위의 차이가 있었다.

프랑스 부모의 경우 1순위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항목으로 아버지 17.5%, 어머니 18.4%의 비율로 선택하였다. 프랑스 아버지의 경우 2순위는 '예의바른 생활습관'으로 15.4%, 프랑스 어머니의 경우 2순위는 '예의바른 생활습관'과 '책임감'으로 각각 14.1%였다. 프랑스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가 배울 수 있길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으로 선택한 3순위는 '책임감'으로 14.4%, 프랑스 어머니가 선택한 자질과 특성의 3순위는 '결단력과 끈기(9.8%)'였다. 프랑스 부모의 경우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고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으로 선택하였다.

2) 유럽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부모의 양육가치관 문항 중 유럽 부모가 응답한 부모의 책임에 대한 교차분석 응답 비율은 <표 Ⅲ-2-8>과 같다. 이탈리아는 95.2%로 대부분의 성인 부모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영국이 88.3%, 스웨덴이 87.0%, 프랑스가 86.4%, 핀란드 84.2%, 독일이 7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부모들은 상당수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Ⅲ-2-8〉 유럽 부모가 응답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단위: %, (명)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						자녀를 위해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해선 안됨					
	전체	(수)	아버지	(수)	어머니	(수)	전체	(수)	아버지	(수)	어머니	(수)
독일	70.8	(238)	69.2	(99)	72.0	(139)	29.2	(98)	30.8	(44)	28.0	(54)
스웨덴	87.0	(221)	88.1	(96)	86.2	(125)	13.0	(33)	11.9	(13)	13.8	(20)
영국	88.3	(333)	84.6	(115)	90.5	(218)	11.7	(44)	15.4	(21)	9.5	(23)
이탈리아	95.2	(240)	93.7	(119)	96.8	(121)	4.8	(12)	6.3	(8)	3.2	(4)
핀란드	84.2	(155)	86.6	(84)	81.6	(71)	15.8	(29)	13.4	(13)	18.4	(16)
프랑스	86.4	(305)	88.5	(139)	84.7	(166)	13.6	(48)	11.5	(18)	15.3	(30)

응답자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버지는 이탈리아 93.7%, 프

랑스 88.5%, 스웨덴 88.1%, 핀란드 86.6%, 영국 84.6%, 독일 69.2%의 순이고, 어머니는 이탈리아 96.8%, 영국 90.5%, 스웨덴 86.2%, 프랑스 84.7%. 핀란드 81.6%, 독일 72.0%의 순이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영국(5.9%p), 이탈리아(3.1%p), 독일(2.8%p)이고,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나라는 핀란드(5.0%p), 프랑스(3.8%p), 스웨덴(1.9%p)이었다.

다. 한국과 유럽 부모의 양육가치관 비교

한국과 유럽 부모의 양육가치관 비교를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이 시작된 2008년 조사와 유럽가치관조사의 2008년도 데이터인 4차년도 조사를 사용하였다. 유럽가치관조사의 경우 개별 국가마다 조사시점이 다소 다르지만, 유럽가치관조사에서 2008년 데이터로 4차년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공하는 자료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하는 변인은 앞서 살펴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 변인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변인이다.

1) 국가별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

한국과 유럽 부모의 양육가치관 문항 중 '자녀가 가정에서 배우길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을 선택하는 문항에 대한 다중응답 빈도분석결과는 <표 Ⅲ-2-9>와 같다. 이를 통해 한국과 유럽 부모의 양육가치관에 관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다.

각 국가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된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과 영국, 핀란드는 '예의바른 생활습관', 독일과 이탈리아는 '책임감', 스웨덴과 프랑스는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의 항목이 선택되었다.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된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의 자질과 특성은 각 국가마다 선택한 5순위 안에 포함되는 공통된 자질과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2-9〉 국가별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

단위: %, (명)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예의바른 생활습관	18.2	16.9	15.0	18.3	15.6	18.9	14.7
독립심	10.0	16.3	13.8	11.1	8.0	9.0	6.0
근면함	10.5	2.9	1.7	7.8	7.1	1.1	8.6
책임감	17.2	17.8	16.8	8.6	16.7	18.6	14.2
상상력	3.8	6.9	8.6	6.9	1.9	5.9	4.3
타인 포용/존중	14.7	15.5	18.0	15.7	14.4	18.5	18.0
검소함(저축/절약)	8.4	8.4	8.7	3.8	7.6	3.3	8.3
결단력과 끈기	9.4	10.0	6.6	7.3	6.6	10.5	9.7
종교적 신념	2.3	2.0	1.5	2.5	7.4	1.3	1.8
이타심	1.2	1.2	6.8	10.4	8.5	7.2	8.2
어른 말씀 잘 듣기	4.4	2.0	2.5	7.5	6.3	5.6	6.1
계(수)	100.0 (3,512)	100.0 (374)	100.0 (268)	100.0 (391)	100.0 (281)	100.0 (244)	100.0 (367)

주: 1) 가장 높은 빈도에 밑줄 표시함.
2) 한국의 경우 부모 모두의 응답을 포함하였으며, 부모 선택 비율의 평균값을 제시하였음.

위 결과에 근거하여, '자녀가 가정에서 배우길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에 대한 부모의 응답을 우선순위로 정리하고,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III-2-10>과 같다.

〈표 III-2-10〉 국가별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 순위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1위	예의/습관	책임감	포용/존중	예의/습관	책임감	예의/습관	포용/존중
2위	책임감	예의/습관	책임감	포용/존중	예의/습관	책임감	예의/습관
3위	포용/존중	독립심	예의/습관	독립심	포용/존중	포용/존중	책임감
4위	근면함	포용/존중	독립심	이타심	이타심	결단/끈기	결단/끈기
5위	독립심	결단/끈기	검소함	책임감	독립심	독립심	근면함
6위	결단/끈기	검소함	상상력	근면함	검소함	이타심	검소함
7위	검소함	상상력	이타심	순종	종교신념	상상력	이타심
8위	순종	근면함	결단/끈기	결단/끈기	근면함	순종	순종
9위	상상력	종교신념 순종	순종	상상력	결단/끈기	검소함	독립심
10위	종교신념	-	근면함	검소함	순종	종교신념	상상력
11위	이타심	이타심	종교신념	종교신념	상상력	근면함	종교신념

2) 국가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한국과 유럽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표 Ⅲ-2-11>과 같다. 한국의 경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응답과 '자녀를 위해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9.1%로 다소 낮았다.

이에 비해 비교국인 유럽의 6개 국가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의 경우는 95.2%로 비교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영국 88.3%, 스웨덴 87.0%, 프랑스 86.4%, 핀란드 84.2%로 높게 나타났으며, 독일의 경우 전체 70.8%로 6개 비교국가 중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Ⅲ-2-11〉 국가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단위: %, (명)

	(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	자녀를 위해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해선 안됨
한국	(3,445)	49.1	50.9
독일	(336)	70.8	29.2
스웨덴	(254)	87.0	13.0
영국	(377)	88.3	11.7
이탈리아	(252)	95.2	4.8
핀란드	(184)	84.2	15.8
프랑스	(353)	86.4	13.6

주: 한국의 경우 부모 모두의 응답을 포함하였음.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 부모의 양육가치관을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와 유럽가치관조사(EVS) 중 유럽 6개국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양육가치관은 개인이 소유한 관점도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더불어 습득된 습속을 포함한 문화와 국가의 관점도 포함된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한국과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부모의 양육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두 가지 연구문제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 그리고 부모의 책임으로 나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을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한국 부모의 경우 1~3차, 5차의 모든 차수 응답에서 '예의바른 생활습관'이 1순위, '책임감'이 2순위,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이 3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유럽 국가의 경우 국가마다 응답 순위의 차이가 존재했으나, 6개국 모두에서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책임감', '예의바른 생활습관'이 우선하는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의 자질이 연구에 포함된 국가마다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가치관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비율과 순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본 결과는 한국 어머니가 '생활의 기본적인 습관'이나 '예의바름'을 중요한 양육가치로 선택하고, 한국, 영국, 프랑스가 유사한 수준으로 '생활의 기본적 습관'이나 '책임감'을 중요한 양육가치로 선택했던 어머니 의식 국제비교조사(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0)와 유사하다. 각 연구에 포함된 국가나 제시된 양육가치관의 범주가 상이하여 정확한 비교가 어려우나, 국가마다 우선시되는 다양한 양육가치관 중에 공통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치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79년에 실시된 어머니 의식 국제 비교조사와 2000년대 후반에 진행된 한국아동패널 및 유럽가치관조사의 유사함은 국가마다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양육가치관이 비교적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양육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모의 희생에 대한 견해를 묻는 부모 책임의 양자택일 문항에서 유럽 부모의 70%이상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한국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응답에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더 높게 응답했다. 전국의 성인 20~55세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은설과 최혜선(2008)의 연구에서도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응답비율이 53.2%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유럽 6개 국가 중 이탈리아의 경우 사적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병행하고 있어

돌봄의 영역에서 가족이 가족 내의 자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양육문화를 지닌다(윤홍식 외, 2011: 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95.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와 유럽사회에서 희생이나 책임, 의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있어 문화적인 해석 혹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부모의 효를 강조하고 가족문제에 대한 가족책임을 우선시하는 등(윤홍식 외, 2011: 149), 가족에게 매우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가족주의적인 분위기가 컸기 때문에, 한국 부모가 떠올리는 희생의 범주가 유럽 부모와 다를 수 있고, 자녀 양육에서 발생되는 희생에 대해 한국 부모가 더욱 무게감 있는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2,124시간으로 비교국인 유럽의 6개 나라 중 가장 긴 것으로 보고된다(OECD, 2014). 독일(연간 1,371시간)과 비교했을 때는 1.6배나 많은 시간을 근로를 하고 있었고(연합뉴스, 2015. 11. 2), 이탈리아(1,734시간)나 영국(1,677시간), 프랑스(1,473시간), 핀란드(1,645시간), 스웨덴(1,609시간)보다도 더 많은 노동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2014). 특히 윤홍식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이 다른 OECD 비교국가(독일,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에 비해 유급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았고, 이러한 결과는 무급노동에 투여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상대적으로 한국이 더 적음을 의미한다(윤홍식 외, 2011: 98).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무급노동시간 중에서 돌봄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 비율은 한국이 비교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윤홍식 외, 2011: 98-99), 결과적으로 한국 부모, 특히 취업모의 경우 유럽 부모에 비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부모(특히 취업모)의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높게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럽의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생이나 책임,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지각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감은 저출산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 국가로 유럽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는 돌봄의 탈성별화를 뚜렷이 하고, 탈가족화를 중심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였으며(윤홍식 외, 2011; 131), 프랑스의 경우 공적

인 영역에서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병행하면서(윤홍식 외, 2011; 83)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한국사회 또한, 그동안 가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자녀 돌봄의 이슈가 더 이상 가정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남아있지 않다. 무엇보다 저출산의 문제와 경제적인 위기,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돌봄의 공백, 돌봄의 사회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결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한다. 마을공동체를 통한 공동체적 시스템 구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두가족품앗이'제도나 '모두가족봉사단' 등의 활용을 통한 공동체적 돌봄 문화 형성 또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가정 내 양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의 단축,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원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양육가치관이라는 동일한 조사문항을 사용한 한국아동패널과 유럽가치관조사를 분석하여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자녀양육을 둘러싼 돌봄의 이슈를 사회문화적인 거시적 맥락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한 두 가지 대규모 종단조사가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도에 출생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국가 간 비교분석을 위해 유럽가치관조사에서는 2008년 조사의 첫 자녀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즉, 유럽가치관조사의 일정한 사례 수 확보를 위해 자녀연령을 보다 낮추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유럽가치관조사의 연구대상자 자녀는 만 18세 이하로 영유아기, 취학아동기, 청소년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광범위하고,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양육가치관, 특히 책임과 희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자녀발달단계에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설, 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undefined에서 2015년 10월 20일 인출.

연합뉴스(2015. 11. 2). **韓 근로시간 OECD 2위…독일보다 연간 4개월 더 일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31/0200000000AKR20151031046951009.HTML?input=1179m에서 2015년 11월 5일 인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1989). **유엔아동권리협약**. http://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윤홍식, 류연규, 송다영, 신경아, 윤성호, 이숙진, 안세아(2011).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파이낸셜뉴스(2015. 10. 20). **삶의 만족도 꼴찌, 사회안전망 더 넓혀야**. http://www.fnnews.com/news/201510191652464694에서 2015년 11월 5일 인출.

한겨레(2015. 11. 2). **"불평등은 경제성장 걸림돌"…OECD·IMF 등 시각 바뀌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5606.html에서 2015년 11월 4일 인출.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0).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3). **한국인의 가족생활과 자녀교육**.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도구프로파일(2011). http://panel.kicce.re.kr/kor/publication/01_02.jspstartPage=20&code=paneltoolsprofiles&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

에서 2015년 5월 19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justice/civil/family-matters/marriage/index_en.htm에서 2015년 10월 20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youreurope/citizens/family/couple/registered-partners/index_en.htm에서 2015년 10월 20일 인출.

GESIS(2013). GESIS Variable Reports No. 2013-27 EVS 2008-Variable Report Integrated Dataset pp. 389-420. https://dbk.gesis.org/dbksearch/download.asp?db=E&id=46504에서 2015년 5월 19일 인출.

Kohn, M. L. (1963). Social cla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 interpret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71-480.

Kohn, M. L. (1977).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ohn, M. L. (198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ohn, M. L. (1995).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ity through time and spa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Kohn, M. L., & Slomczynski, K. M. (1990). Social structure and self-dire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nd Poland. Basil Blackwell.

OECD(2014).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Tudge, J. R., Hogan, D. M., Snezhkova, I. A., Kulakova, N. N., & Etz, K. E. (2000). Parents' child rearing values and beliefs i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he impact of culture and social clas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9*(2), 105-121.

Xiao, H., & Andes, N. (1999). Sources of parental values. *Journal of Human Values*, 5(2), 157-167.

Xiao, H. (2000). Structure of child-rearing values in urban China. *Sociological*

perspectives, 43(3), 457-471.

Xiao, H. (2001). Childrearing value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 comparison of belief systems and social structure. Greenwood Publishing Group.

Xiao, H. (2014). Raising the "Model" Child. Cultural Traditions and Aspirations: A U.S-China Comparison. In *The 2014 John F. Roatch Global Lecture Series.* http://www.asu.edu/distinguishedprofessor/roatch/Xiao's%20ASU%20Lecture%20full%20text%202014.pdf에서 2015년 8월 11일 인출.

Ⅳ. 아동의 건강

1. 출산전후 부모의 사회경제지표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김영호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강사)·
권지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소아천식아토피센터장)

출산전후 부모의 사회경제지표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김영호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강사)
권지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소아천식아토피센터장)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Uphoff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알레르기질환의 증가 원인으로 출생 전후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노출이 중요시되며, 그 중 서구화된 생활문화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지표 상승이 알레르기질환과 연관됨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동시에 Lannero 등(2002)이나 Almqvist 등(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소외계층이 알레르기질환과 연관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코호트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지표와 알레르기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적은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2008년부터 시작된 한국아동패널 코호트 추적 조사에서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및 사회경제지표를 포함한 출산 전후 환경이 알레르기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 한국아동패널 만 6세 아동 추적조사에서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및 출산 전후 사회경제지표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연구내용

가.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발병률 조사

한국아동패널 만 6세아 추적 조사에서 한국형 ISAAC 설문지 사용하여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나. 출산 전후 우울, 스트레스가 6세 자녀의 알레르기질환에 미치는 영향

출생 당시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등 기 아동패널 조사에서 확인된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상 만 6세 아동의 알레르기질환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3. 연구방법

한국 아동패널에서 시행한 산전 산후 설문조사와 2014년 7차년도(만 6세)에 시행한 알레르기질환관련 설문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을 조사하고, 출생 당시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등 사회경제지표와 자녀 알레르기질환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알레르기질환 유병률과 사회경제지표는 한국형 ISAAC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가.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질환별로 다음 5가지 종류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 천식

- 평생증상(+): 지금까지 숨을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다.
- 지난 12개월 증상 (+): 지난 12개월간 숨을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나 휘파람소리가 난 적이 있다.
- 진단 (+):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천식'이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다.
- 치료 (+): 지난 12개월 동안 '천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 현증 천식: 진단 (+) 이면서 지난 12개월 증상 (+)

· 알레르기비염

- 평생증상 (+): 지금까지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또는 콧물, 코막힘 증상을 보인 적이 있다.
- 지난 12개월 증상 (+): 지난 12개월간 재채기 또는 콧물, 코막힘 증상을 보인 적이 있다.
- 진단 (+): 지금까지 '알레르기비염'이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다.
- 치료 (+): 지난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 현증 알레르기비염: 진단 (+) 이면서 지난 12개월 증상 (+)

· 아토피피부염

- 평생증상 (+): 지금까지 가려운 피부발진('태열' 또는'아토피피부염'이라고도 함.)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있다.
- 지난 12개월 증상 (+): 지난 12개월 동안 위와 같은 가려운 피부발진이 나타난 적이 있다.
- 진단 (+):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
- 치료 (+): 지난 12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 현증 아토피피부염: 진단 (+) 이면서 지난 12개월 증상 (+)

나. 출생 당시 부모의 사회경제지표와 알레르기질환의 상관관계

출생한 연도(2008)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2014년도 자녀의 알레르기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하였으며, 보정인자는 자녀의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엄마의 교육 정도, 가정 수입, 간접흡연이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표로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알레르기질환 과거력(2008, 2013, 2014), 부모 직업(2008), 부모 학력(2008), 주택 형태(2008), 소득 및 지출(2008, 2011), 모 직장/학업, 양육 스트레스 및 수유형태(2009, 2014) 등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지표로 2013, 2014년에 조사한 천식(최근 12개월 내 천명, 천식 진단력), 알레르기비염(알레르기비염 진단력, 현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 진단력, 현증 아토피피부염) 등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가.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

알레르기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2013년 1,594명, 2014년 1,523명으로 각각 1, 2차년도 전체 모집 아동의 74.1%, 70.8%였다.

1) 천식

천식관련 유병률 중 출생 이후 한 번이라도 천명이 있었던 경우는 17.14% (235/1,476), 최근 12개월 내 천명이 있었던 경우는 5.04% (75/1,488) 였다. 천식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7.78% (110/1,414), 최근 12개월 내 천식 치료를 받은 경우는 2.98% (44/1,498), 천식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으면서 최근 12개월 내 천명이 있었던 경우, 즉 현증 천식(진단 + 최근 12개월 내 천명)인 경우는 2.45% (34/1,388)였다.

〈표 Ⅳ-1-1〉 천식의 유병률

구분	응답수 (n)	유병률 (95% CI)
천명 증상 유무	253/1,476	17.14 (15.22-19.06)
최근 12개월 내 천명	75/1,488	5.04 (3.93-6.15)
천식 진단력	110/1,488	7.78 (6.38-9.18)
최근 12개월 내 천식 치료	44/1,498	2.94 (2.08-3.79)
현증 천식	34/1,388	2.45 (1.64-3.26)

2)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비염 관련 유병률 중 출생 이후 알레르기비염 증상이 있었던 경우는 52.89% (788/1,490), 최근 12개월 내 알레르기비염 증상이 있었던 경우는 47.58% (717/1,507)였다. 알레르기비염을 진단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는 50.03% (720/1,439), 최근 12개월 내 알레르기비염 치료를 했던 경우는 34.54% (517/1,497), 현증 알레르기비염(진단 + 최근 12개월 내 증상)인 경우는 36.49% (520/1,425)였다.

〈표 Ⅳ-1-2〉 알레르기비염의 유병률

구분	응답수 (n)	유병률 (95% CI)
알레르기비염 증상 유무	788/1,490	52.89 (50.35-55.42)
최근 12개월 내 비염 증상	717/1,507	47.58 (45.06-50.10)
알레르기비염 진단력	720/1,439	50.03 (47.45-52.62)
최근 12개월 내 비염 치료	517/1,497	34.54 (32.13-36.94)
현증 알레르기비염	520/1,425	36.49 (33.99-38.99)

3) 아토피피부염

아토피피부염 관련 유병률 중 출생 이후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있었던 경우는 34.82% (523/1,502), 최근 12개월 내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있었던 경우는 19.57% (294/1,507),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는 30.49% (433/1,420), 최근 12개월 내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했던 경우는 13.21% (197/1,491), 현증 아토피피부염(진단 + 최근 12개월 내 증상)인 경우는 15.27% (216/1,415)였다.

〈표 Ⅳ-1-3〉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

구분	응답수 (n)	유병률 (95% CI)
아토피피부염 증상 유무	523/1,502	34.82 (32.41-37.23)
최근 12개월 내 아토피피부염 증상	294/1,507	19.57 (17.57-21.58)
아토피피부염 진단력	433/1,420	30.49 (28.10-32.89)
최근 12개월 내 아토피피부염 치료	197/1,491	13.21 (11.49-14.93)
현증 아토피피부염	216/1,415	15.27 (13.39-17.14)

나. 출산전후 부모의 사회경제지표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1) 천식

가)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2008, 2013, 2014)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최근 12개월 내 천명과 간접흡연, 엄마의 음주, 아빠의 음주, 흡연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음주를 하는 경우 천식 진단의 위험도가 1.79배 증가하였다. 간접흡연, 아빠의 음주, 흡연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흡연과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모두 없을 때에 비해 아버지의 흡연과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동반 시 천식 진단의 위험도가 2.17배 증가하였다.

〈표 IV-1-4〉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2008, 2013, 2014)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최근 12개월 내 천명 aOR (95% CI)	천식 진단력 aOR (95% CI)
간접흡연 (2013)	1.05 (0.64-1.74)	1.26 (0.83-1.93)
엄마 음주 여부 (2008)		
안마심	1.00	1.00
마심	0.81 (0.42-1.58)	1.79 (1.06-3.03)
일시적으로 안마심(임신, 모유수유)	0.93 (0.51-1.70)	1.29 (0.76-2.20)
아빠 음주 여부 (2008)	0.90 (0.47-1.70)	0.93 (0.54-1.61)
아빠 흡연 여부 (2008)	1.30 (0.73-2.34)	0.95 (0.58-1.55)
간접흡연 (2014)	0.91 (0.52-1.59)	0.72 (0.44-1.15)
부 흡연 여부 (2008)와 부모 알레르기 질환 과거력 (2013)		
부 흡연 (-)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	1.00	1.00
부 흡연 (+)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	1.40 (0.69-2.86)	0.78 (0.40-1.49)
부 흡연 (-)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	1.24 (0.54-2.84)	1.84 (0.95-3.54)
부 흡연 (+)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	1.43 (0.61-3.30)	2.17 (1.12-4.20)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나) 부모 직업 (2008)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최근 12개월 내 천명 및 천식 진단력과 엄마의 소득활동, 직업 종류, 비정규직, 근로시간, 직업 만족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아빠의 직업 종류, 비정규직, 근로시간 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IV-1-5〉 부모 직업 (2008)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최근 12개월 내 천명 aOR (95%CI)	천식 진단력 aOR (95%CI)
엄마 소득활동	0.93 (0.51-1.68)	1.24 (0.75-2.06)
엄마 직업 종류		
관리자, 전문직	1.00	1.00
사무직	1.71 (0.57-5.10)	0.78 (0.31-1.93)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기능직, 기계, 군인	1.05 (0.27-4.08)	0.50 (0.15-1.65)
엄마 비정규직	1.97 (0.65-6.01)	0.30 (0.07-1.34)
엄마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	1.00	1.00
41-50시간	0.79 (0.42-1.46)	1.11 (0.48-2.56)
〉 50시간	0.99 (0.29-3.38)	0.55 (0.15-2.04)
엄마 취업/학업	0.79 (0.42-1.46)	0.95 (0.56-1.62)
엄마 직업 만족도 (보통 미만)	0.40 (0.12-1.33)	0.45 (0.17-1.24)
아빠 직업 종류		
관리자, 전문직	1.00	1.00
사무직	1.00 (0.52-1.94)	1.23 (0.71-2.12)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기능직, 기계, 군인	1.45 (0.77-2.75)	1.02 (0.58-1.80)
아빠 비정규직	1.24 (0.65-2.75)	1.18 (0.68-2.07)
아빠 1주일 근로시간		
≤40 시간	1.00	1.00
41-50 시간	1.21 (0.57-2.55)	0.61 (0.34-1.10)
51-60 시간	1.50 (0.70-3.24)	0.54 (0.28-1.02)
〉 60 시간	1.31 (0.57-2.99)	0.82 (0.44-1.54)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다) 부모 학력 (2008)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최근 12개월 내 천명 및 천식 진단력과 엄마, 아빠의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IV-1-6〉 부모 학력 (2008)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최근 12개월 내 천명 aOR (95% CI)	천식 진단력 aOR (95%CI)
엄마 최종학력		
고등학교 미만	1.00	1.00
전문대	0.72 (0.39-1.35)	1.23 (0.74-2.07)
대학교 이상	0.61 (0.33-1.13)	0.96 (0.56-1.64)
아빠 최종학력		
고등학교 미만	1.00	1.00
전문대	0.77 (0.38-1.57)	0.36 (0.18-0.72)
대학교	0.80 (0.40-1.59)	0.67 (0.37-1.18)
대학원 이상	0.76 (0.27-2.12)	0.92 (0.41-2.06)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라) 주택 형태 (2008)와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최근 12개월 내 천명 및 천식 진단력과 주택 소유 형태, 거주 주택 유형, 지역사회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IV-1-7〉 주택 형태 (2008)와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최근 12개월 내 천명 aOR (95% CI)	천식 진단력 aOR (95%CI)
주택 소유 형태		
자가	1.00	1.00
전세	0.81 (0.45-1.44)	1.33 (0.83-2.13)
전/월세 또는 월세	0.34 (0.08-1.47)	1.13 (0.50-2.56)
무상 (사택, 관사)	0.98 (0.29-3.35)	1.22 (0.46-3.29)
거주 주택 유형		
단독주택	1.00	1.00
아파트	0.91 (0.37-2.25)	0.70 (0.36-1.38)
연립주택	0.67 (0.21-2.18)	0.53 (0.21-1.33)
다세대, 오피스텔	1.37 (0.45-4.16)	0.85 (0.35-2.07)
지역사회 유형		
일반주택지역	1.00	1.00
아파트지역	1.86 (0.96-3.61)	0.98 (0.60-1.59)
상가/공장지역	1.74 (0.54-5.56)	0.69 (0.23-2.06)
농/어가지역	3.55 (0.93-13.63)	1.70 (0.54-5.36)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마) 소득 및 지출 (2008, 2011)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최근 12개월 내 천명 및 천식 진단력과 월평균 가구 소득, 모 근로소득, 소유 부동산, 부채, 월 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Ⅳ-1-8〉 소득 및 지출 (2008, 2011)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최근 12개월 내 천명 aOR (95% CI)	천식 진단력 aOR (95%CI)
월평균 가구 소득 (2008)		
200만 원 이하	1.00	1.00
201-300만 원	1.17 (0.62-2.21)	0.94 (0.57-1.55)
300만 원 이상	1.16 (0.61-2.22)	0.61 (0.35-1.05)
월평균 가구 소득 (2011)		
290만원 이하	1.00	1.00
290-400만 원	0.55 (0.27-1.12)	0.76 (0.49-1.19)
401만 원 이상	1.36 (0.62-2.97)	0.71 (0.45-1.12)
모 근로소득 (2011)		
130만 원 이하	1.00	1.00
130-220만 원	0.83 (0.26-2.62)	2.17 (0.83-5.70)
221만 원 이상	1.16 (0.35-3.83)	2.24 (0.73-6.88)
소유 부동산 (2008)		
5,000만 원 이하	1.00	1.00
5001만 원 - 1억 원	1.23 (0.61-2.48)	0.73 (0.42-1.28)
1억 원 이상	1.09 (0.51-2.31)	0.80 (0.45-1.44)
부채 (2008)		
없음	1.00	1.00
3,000만 원 미만	1.23 (0.61-2.48)	1.56 (0.91-2.69)
3,000만 원 이상	1.09 (0.51-2.31)	0.80 (0.39-1.63)
월 지출 (2008)		
100만 원 이하	1.00	1.00
101-150만 원	1.01 (0.50-2.03)	1.28 (0.74-2.22)
151-200만 원	1.20 (0.57-2.51)	1.19 (0.63-2.24)
200만 원 이상	1.33 (0.58-3.07)	1.65 (0.81-3.38)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바) 모 직장/학업, 양육 스트레스 및 수유형태 (2008, 2014)와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완전모유수유에 비해 혼합수유를 하는 경우 천식 진단력의 위험도가 1.79배, 분유수유를 하는 경우 1.99배 증가하였다. 임신 중 직장/학업, 양육 스트레스 등

은 최근 12개월 내 천명 및 천식 진단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IV-1-9〉 모 직장/학업, 양육 스트레스 및 수유형태 (2008, 2014)와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최근 12개월 내 천명 aOR (95% CI)	천식 진단력 aOR (95%CI)
임신 중 직장/학업 (2014)	0.87 (0.51-1.48)	1.29 (0.83-1.98)
양육 스트레스 (2009)		
0-24	1.00	1.00
24-29	1.40 (0.70-2.79)	1.11 (0.64-1.91)
30-50	1.54 (0.80-2.97)	1.19 (0.71-2.01)
출생 후 6개월간 수유형태 (2014)		
완전모유수유	1.00	1.00
혼합수유	0.96 (0.56--1.63)	1.79 (1.13-2.85)
분유수유	0.80 (0.35-1.85)	1.99 (1.07-3.69)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2) 알레르기비염

가)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2008, 2013, 2014)과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간접흡연 (2008)에 노출된 경우 알레르기비염 진단 위험도가 1.33배 증가하였고, 현증 알레르기비염의 위험도는 1.36배 증가하였다.

알레르기비염 진단 및 현증 알레르기비염과 간접흡연 (2014), 엄마의 음주, 아빠의 음주, 흡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상관관계가 없었다.

아버지의 간접흡연과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모두 없을 때에 비해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과거력만 있을 때 알레르기비염 진단의 위험도가 2.34배 증가하였고, 현증 알레르기비염의 위험도가 1.72배 증가하였다. 아버지의 간접흡연과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동반 시 알레르기비염 진단위험도가 2.84배 증가하였고, 현증 알레르기비염의 위험도가 1.59배 증가하였다.

〈표 Ⅳ-1-10〉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2008, 2013, 2014)과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알레르기비염 진단력 aOR (95% CI)	현증 알레르기비염 aOR (95% CI)
간접흡연 (2013)	1.33 (1.06-1.67)	1.36 (1.08-1.72)
엄마 음주 여부 (2008)		
안마심	1.00	1.00
마심	1.00 (0.75-1.33)	1.10 (0.81-1.49)
일시적으로 안마심(임신, 모유수유)	1.14 (0.87-1.50)	1.15 (0.87-1.52)
아빠 음주 여부 (2008)	1.07 (0.79-1.43)	1.04 (0.35-1.19)
아빠 흡연 여부 (2008)	1.05 (0.81-1.36)	0.82 (0.62-1.08)
간접흡연 (2014)	0.83 (0.65-1.08)	0.83 (0.63-1.08)
부 흡연 여부 (2008)와 부모 알레르기 질환 과거력 (2013)		
부 흡연 (-)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	1.00	1.00
부 흡연 (+)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	0.98 (0.72-1.33)	0.77 (0.55-1.07)
부 흡연 (-)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	2.34 (1.63-3.36)	1.71 (1.19-2.47)
부 흡연 (+)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	2.84 (1.91-4.22)	1.59 (1.08-2.35)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나) 부모 직업 (2008)과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알레르기비염 진단력 및 현증 알레르기비염은 엄마의 소득활동, 직업 종류, 비정규직, 근로시간, 직업 만족도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아빠의 직업 종류, 비정규직, 근로시간 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IV-1-11〉 부모 직업 (2008)과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알레르기비염 진단력 aOR (95%CI)	현증 알레르기비염 aOR (95%CI)
엄마 소득활동	0.84 (0.64-1.10)	0.96 (0.73-1.27)
엄마 직업 종류		
관리자, 전문직	1.00	1.00
사무직	1.09 (0.69-1.72)	0.90 (0.55-1.47)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기능직, 기계, 군인	0.77 (0.43-1.41)	0.86 (0.46-1.61)
엄마 비정규직	1.17 (0.66-2.09)	1.22 (0.67-2.22)
엄마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	1.00	1.00
41-50시간	1.11 (0.71-1.73)	0.73 (0.46-1.18)
〉 50시간	0.62 (0.34-1.12)	0.65 (0.35-1.22)
엄마 취업/학업	0.78 (0.60-1.03)	0.84 (0.63-1.12)
엄마 직업 만족도 (보통 미만)	1.21 (0.78-1.87)	1.14 (0.72-1.33)
아빠 직업 종류		
관리자, 전문직	1.00	1.00
사무직	1.05 (0.75-1.36)	1.21 (0.90-1.63)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기능직, 기계, 군인	0.92 (0.67-1.26)	0.90 (0.65-1.25)
아빠 비정규직	1.01 (0.75-1.36)	0.90 (0.65-1.25)
아빠 1주일 근로시간		
≤40 시간	1.00	1.00
41-50 시간	0.86 (0.62-1.18)	0.80 (0.57-1.11)
51-60 시간	0.73 (0.52-1.03)	0.71 (0.50-1.01)
〉 60 시간	0.93 (0.64-1.34)	0.91 (0.62-1.32)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다) 부모 학력 (2008)과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알레르기비염 진단과 관련하여 아빠의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엄마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진단 위험이 증가하였다.

현증 알레르기비염과 관련하여 엄마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이상일 때 고등학교 미만인 경우에 비해 위험도가 1.42배 증가하였고, 아빠의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IV-1-12〉 부모 학력 (2008)과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알레르기비염 진단력 aOR (95%CI)	현증 알레르기비염 aOR (95% CI)
엄마 최종학력		
고등학교 미만	1.00	1.00
전문대	1.18 (0.88-1.57)	1.30 (0.96-1.76)
대학교 이상	1.30 (0.98-1.73)	1.42 (1.06-1.92)
아빠 최종학력		
고등학교 미만	1.00	1.00
전문대	1.18 (0.85-1.62)	1.14 (0.82-1.60)
대학교	1.14 (0.83-1.57)	1.14 (0.81-1.59)
대학원 이상	1.23 (0.77-1.97)	1.10 (0.68-1.78)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라) 주택 형태 (2008)와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최근 12개월 내 천명 및 천식 진단력과 주택 소유 형태, 거주 주택 유형, 지역사회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IV-1-13〉 주택 형태 (2008)와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알레르기비염 진단력 aOR (95%CI)	현증 알레르기비염 aOR (95% CI)
주택 소유 형태		
자가	1.00	1.00
전세	1.1 (0.86-1.43)	1.16 (0.89-1.51)
전/월세 또는 월세	1.29 (0.82-2.03)	1.13 (0.71-1.81)
무상 (사택, 관사)	0.76 (0.43-1.34)	0.69 (0.37-1.27)
거주 주택 유형		
단독주택	1.00	1.00
아파트	0.90 (0.60-1.35)	0.98 (0.64-1.50)
연립주택	0.69 (0.41-1.15)	0.89 (0.52-1.51)
다세대, 오피스텔	0.84 (0.49-1.46)	1.05 (0.60-1.85)
지역사회 유형		
일반주택지역	1.00	1.00
아파트지역	1.08 (0.83-1.42)	1.15 (0.87-1.52)
상가/공장지역	1.18 (0.70-2.00)	1.22 (0.71-2.11)
농/어가지역	0.52 (0.20-1.20)	0.70 (0.28-1.73)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마) 소득 및 지출 (2008, 2011)과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알레르기비염 진단력 및 현증 알레르기비염은 월평균 가구 소득, 소유 부동산, 부채, 월 지출, 월마다 아기에게 지출되는 비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IV-1-14〉 소득 및 지출 (2008, 2011)과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알레르기비염 진단력 aOR (95%CI)	현증 알레르기비염 aOR (95% CI)
월평균 가구 소득 (2008)		
200만 원 이하	1.00	1.00
201-300만 원	0.98 (0.73-1.30)	0.86 (0.64-1.15)
300만 원 이상	0.74 (0.55-0.98)	0.66 (0.49-0.90)
월평균 가구 소득 (2011)		
290만 원 이하	1.00	1.00
290-400만 원	0.85 (0.63-1.15)	0.85 (0.63-1.16)
401만 원 이상	0.87 (0.60-1.25)	0.90 (0.61-1.31)
모 근로소득 (2011)		
130만 원 이하	1.00	1.00
130-220만 원	1.32 (0.83-2.12)	1.24 (0.75-2.04)
221만 원 이상	1.39 (0.82-2.37)	1.26 (0.72-2.20)
소유 부동산 (2008)		
5,000만 원 이하	1.00	1.00
5001만 원 - 1억 원	1.04 (0.76-1.41)	0.95 (0.69-1.31)
1억 원 이상	1.25 (0.90-1.73)	1.08 (0.77-1.51)
부채 (2008)		
없음	1.00	1.00
3,000만 원 미만	0.97 (0.73-1.35)	1.26 (0.92-1.74)
3,000만 원 이상	1.01 (0.72-1.43)	1.04 (0.73-1.48)
월 지출 (2008)		
100만 원 이하	1.00	1.00
101-150만 원	0.99 (0.73-1.35)	0.98 (0.72-1.35)
151-200만 원	0.83 (0.59-1.16)	0.89 (0.63-1.26)
200만 원 이상	0.87 (0.59-1.27)	0.94 (0.63-1.40)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바) 모 직장/학업, 양육 스트레스 및 수유형태 (2008, 2014)와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알레르기비염 진단과 관련하여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 0-24일 때 비해 30-50일 경우 위험도가 1.35배 증가하였다. 임신 중 직장/학업, 양육 스트레스, 출생 후 6개월간 수유 형태는 알레르기비염 진단 및 현증 알레르기비염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표 IV-1-15〉 모 직장/학업, 양육 스트레스 및 수유형태 (2009, 2014)와 아동 알레르기비염과의 연관성

	알레르기비염 진단력 aOR (95%CI)	현증 알레르기비염 aOR (95% CI)
임신 중 직장/학업 (2014)	1.16 (0.92-1.47)	1.16 (0.91-1.48)
양육 스트레스 (2009)		
0-24	1.00	1.00
24-29	1.08 (0.82-1.44)	0.86 (0.64-1.15)
30-50	1.35 (1.03-1.78)	0.66 (0.49-0.90)
출생 후 6개월간 수유형태 (2014)		
완전모유수유	1.00	1.00
혼합수유	0.98 (0.77-1.25)	1.15 (0.90-1.48)
분유수유	1.14 (0.81-1.62)	1.24 (0.87-1.78)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3) 아토피피부염

가)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2008, 2013, 2014)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아토피피부염 진단력 및 현증 아토피피부염은 간접흡연, 엄마의 음주, 아빠의 음주, 흡연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아버지의 간접흡연과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모두 없을 때에 비해 아버지의 간접흡연과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동반 시 아토피피부염 진단의 위험도가 2.19배 증가하였고, 현증 아토피피부염의 위험도가 2.11배 증가하였다.

〈표 Ⅳ-1-16〉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2008, 2013, 2014)과 아동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

	아토피피부염 진단력 aOR (95% CI)	현증 아토피피부염 aOR (95% CI)
간접흡연 (2013)	1.25 (0.99-1.59)	1.15 (0.84-1.57)
엄마 음주 여부 (2008)		
안마심	1.00	1.00
마심	1.18 (0.87-1.60)	0.93 (0.62-1.38)
일시적으로 안마심(임신, 모유수유)	0.89 (0.66-1.20)	0.76 (0.51-1.12)
아빠 음주 여부 (2008)	0.86 (0.63-1.20)	0.87 (0.58-1.31)
아빠 흡연 여부 (2008)	1.37 (1.03-1.81)	1.36 (0.99-2.33)
간접흡연 (2014)	0.91 (0.69-1.19)	0.87 (0.61-1.24)
부 흡연 여부 (2008)와 부모 알레르기 질환 과거력 (2013)		
부 흡연 (-)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	1.00	1.00
부 흡연 (+)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	1.19 (0.84-1.67)	1.23 (0.78-1.96)
부 흡연 (-)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	1.25 (0.85-1.85)	1.35 (0.81-2.23)
부 흡연 (+)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	2.19 (1.47-3.27)	2.11 (1.26-3.55)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나) 부모 직업 (2008)과 아동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

아토피피부염 진단력 및 현증 아토피피부염과 엄마의 소득활동, 직업 종류, 비정규직, 근로시간, 직업 만족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아빠의 직업 종류, 비정규직, 근로시간 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IV-1-17〉 부모 학력 (2008)과 아동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

	아토피피부염 진단력 aOR (95% CI)	현증 아토피피부염 aOR (95% CI)
엄마 소득활동	1.12 (0.84-1.48)	0.98 (0.68-1.42)
엄마 직업 종류		
관리자, 전문직	1.00	1.00
사무직	1.22 (0.76-1.98)	1.07 (0.57-1.98)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기능직, 기계, 군인	0.87 (0.46-1.65)	1.02 (0.45-2.31)
엄마 비정규직	1.28 (0.71-2.31)	1.12 (0.57-2.55)
엄마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	1.00	1.00
41-50시간	1.28 (0.80-2.06)	1.19 (0.65-2.18)
〉 50시간	0.80 (0.42-1.52)	0.82 (0.35-1.92)
엄마 취업/학업	1.15 (0.86-1.54)	0.92 (0.63-1.34)
엄마 직업 만족도 (보통 미만)	1.20 (0.76-1.90)	0.99 (0.54-1.81)
아빠 직업 종류		
관리자, 전문직	1.00	1.00
사무직	1.14 (0.84-1.54)	1.12 (0.76-1.64)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기능직, 기계, 군인	0.99 (0.72-1.36)	0.92 (0.60-1.41)
아빠 비정규직	1.22 (0.84-1.70)	1.42 (0.93-2.17)
아빠 1주일 근로시간		
≤40 시간	1.00	1.00
41-50 시간	0.91 (0.65-1.28)	0.97 (0.62-1.52)
51-60 시간	0.93 (0.65-1.34)	1.05 (0.65-1.68)
〉 60 시간	1.07 (0.62-1.69)	1.12 (0.67-1.87)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다) 부모 학력 (2008)과 아동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

아토피피부염 진단과 관련하여 엄마, 아빠의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현증 아토피피부염과 관련하여 엄마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이상일 때 고등학교 미만인 경우에 비해 위험도가 2.00배 증가하였고, 아빠의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IV-1-18〉 부모 학력 (2008)과 아동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

	아토피피부염 진단력 aOR (95% CI)	현증 아토피피부염 aOR (95% CI)
엄마 최종학력		
고등학교 미만	1.00	1.00
전문대	1.08 (0.79-1.48)	1.16 (0.75-1.79)
대학교 이상	1.21 (0.89-1.64)	2.00 (1.34-3.00)
아빠 최종학력		
고등학교 미만	1.00	1.00
전문대	0.92 (0.65-1.31)	1.04 (0.64-1.69)
대학교	1.16 (0.82-1.63)	1.29 (0.82-2.03)
대학원 이상	1.03 (0.62-1.69)	1.09 (0.58-2.07)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라) 주택 형태 (2008)와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아토피피부염 진단력 및 현증 아토피피부염과 주택 소유 형태, 거주 주택 유형, 지역사회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IV-1-19〉 주택 형태 (2008)와 아동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

	아토피피부염 진단력 aOR (95% CI)	현증 아토피피부염 aOR (95% CI)
주택 소유 형태		
자가	1.00	1.00
전세	1.00 (0.76-1.32)	1.09 (0.76-1.56)
전/월세 또는 월세	1.06 (0.65-1.73)	0.80 (0.39-1.64)
무상 (사택, 관사)	0.97 (0.52-1.79)	1.21 (0.56-2.59)
거주 주택 유형		
단독주택	1.00	1.00
아파트	0.97 (0.63-1.50)	0.82 (0.47-1.46)
연립주택	0.67 (0.39-1.18)	0.66 (0.32-1.37)
다세대, 오피스텔	1.08 (0.60-1.93)	0.74 (0.34-1.60)
지역사회 유형		
일반주택지역	1.00	1.00
아파트지역	1.24 (0.93-1.66)	1.31 (0.89-1.92)
상가/공장지역	0.93 (0.52-1.69)	0.95 (0.42-2.13)
농/어가지역	0.58 (0.22-1.59)	0.91 (0.26-3.20)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마) 소득 및 지출 (2008, 2011)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아토피피부염 진단력 및 현증 아토피피부염과 월평균 가구 소득, 소유 부동산, 부채, 월 지출, 월마다 아기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IV-1-20〉 소득 및 지출 (2008, 2011)과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아토피피부염 진단력 aOR (95% CI)	현증 아토피피부염 aOR (95% CI)
월평균 가구 소득 (2008)		
200만 원 이하	1.00	1.00
201-300만 원	0.96 (0.71-1.31)	0.75 (0.50-1.13)
300만 원 이상	0.88 (0.65-1.20)	0.80 (0.54-1.19)
월평균 가구 소득 (2011)		
290만원 이하	1.00	1.00
290-400만 원	0.98 (0.71-1.35)	0.92 (0.60-1.41)
401만 원 이상	1.25 (0.84-1.84)	1.39 (0.84-2.31)
모 근로소득 (2011)		
130만 원 이하	1.00	1.00
130-220만 원	1.18 (0.71-1.94)	0.89 (0.47-1.71)
221만 원 이상	0.87 (0.49-1.52)	0.70 (0.34-1.44)
소유 부동산 (2008)		
5,000만 원 이하	1.00	1.00
5001만 원 - 1억 원	0.92 (0.66-1.29)	0.76 (0.49-1.19)
1억 원 이상	1.01 (0.71-1.43)	0.71 (0.45-1.12)
부채 (2008)		
없음	1.00	1.00
3,000만 원 미만	0.98 (0.70-1.36)	0.80 (0.52-1.25)
3,000만 원 이상	0.89 (0.00-1.28)	0.58 (0.35-0.95)
월 지출 (2008)		
100만 원 이하	1.00	1.00
101-150만 원	0.91 (0.65-1.26)	0.95 (0.62-1.47)
151-200만 원	1.13 (0.79-1.61)	1.06 (0.66-1.69)
200만 원 이상	1.07 (0.71-1.62)	1.14 (0.66-1.94)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바) 모 직장/학업, 양육 스트레스 및 수유형태 (2008, 2014)와 아동 천식과의 연관성

아토피피부염 진단과 관련하여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 0-24일 때 비해 24-29일

경우위험도가 1.44배 증가하였고, 30-50일 때 위험도가 1.40배 증가하였다. 임신 중 직장/학업, 출생 후 6개월간 수유 형태 등은 아토피피부염 진단력 및 현증 아토피피부염과 통계적으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Ⅳ-1-21〉 모 직장/학업, 양육 스트레스 및 수유형태 (2008, 2014)와 아동 아토피피부염과의 연관성

	아토피피부염 진단력 aOR (95% CI)	현증 아토피피부염 aOR (95% CI)
임신 중 직장/학업 (2014)	1.25 (0.97-1.61)	1.17 (0.85-1.62)
양육 스트레스 (2009)		
0-24	1.00	1.00
24-29	1.44 (1.06-1.96)	0.96 (0.71-1.31)
30-50	1.40 (1.04-1.89)	0.88 (0.65-1.20)
출생 후 6개월간 수유형태 (2014)		
완전모유수유	1.00	1.00
혼합수유	1.11 (0.86-1.44)	0.96 (0.71-1.31)
분유수유	0.92 (0.62-1.34)	0.88 (0.65-1.20)

aOR: adjusted for sex, region, parent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 maternal education, household income, and ETS

5. 해석

2014년 아동패널 조사에서 천식 진단 유병률은 7.78%, 비염 진단 유병률 50.03%, 아토피피부염 진단 유병률 30.49% 이었으며, 현증 천식 유병률은 2.45%, 현증 알레르기비염 유병률은 36.49%, 현증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은 15.27%였다.

대상아들의 출생 연도인 2008년 당시의 부모직업, 주택형태, 소득, 지출 등은 2014년 알레르기질환 발생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엄마의 음주, 아빠의 흡연과 부모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동반은 천식의 위험인자로 확인되었고, 모유수유에 비해 분유수유를 하는 경우 천식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접흡연, 아빠의 흡연과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동반, 엄마의 고학력,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 등은 알레르기비염의 발생과 관계가 있었다. 또한 아빠의 흡연과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과거력 동반, 엄마

의 고학력,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 등은 아토피피부염의 발생과 관계가 있었다.

6. 결론 및 논의

출생 당시의 환경 요인 중 부모의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과 연관된 위험요인들은 학동전기 알레르기질환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출생 후 분유수유는 모유수유에 비하여 천식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알레르기비염과 아토피피부염 발생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질환 발생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엄마의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부모의 흡연이나 음주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사회보건학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이 적극 필요할 것이다.

향후 어떠한 아이들에서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지 등을 조사해 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인 맞춤형 예방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C Almqvist, G Pershagen, M Wickman. Low socioeconomic status as a risk factor for asthma, rhinitis and sensitization at 4 years in a birth cohort. Clinical and experimental allergy :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2005;35(5):612-8.

E Lannero, I Kull, M Wickman, G Pershaqen, SL Nordvall. Environmental risk factors for allergy and socioeconomic status in a birth cohort (BAMSE). Pediatric Allergy and Immunology 2002;13(3):182-7.

E Uphoffe. B Cabieses, M Pinart M Valdes, JM Anto, J Wright. A systemic review of socioeconomic position in relation to asthma and allergic diseases. Eur resp J 2015;46(2):364-74.

Abstract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08-2014 IN-DEPTH DATA ANALYSIS RESEARCH

Lee, Jeong Rim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revitalize related academic field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olicies by suggesting more in-depth research contents and methodologies, using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longitudinal data. This report is composed of three independent subjects: child's growth and development, nurturing environment, and health.

The first study explored following issues: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in childhood on five year old's behavioral problem, the influence of maternal rearing behaviors, parenting stress, frequency of cultural infrastructure usage on child's social skill,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s behavioral problem, and the influence factors on child's school readiness. The second research topic on child's nurturing environment dealt with exploration of predictor variables o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their risks as a consequence of growth of their children and the changes in parenting values of Korean parents with infants focused on the comparison with European Values Study. The third subject of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parents' perinatal socioeconomic status on occurrence of children's allergic disease.

By emphasizing essential issues that must be considered at a national level, the research of PSKC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support children's healthy and sound growth and development.

연구보고 2015-34

한국아동패널 2008-2014 자료 심층 분석 연구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현대아트컴 02-2278-448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63-9 93330